

南北對話關係

國內主要新聞記事集IV

1991. 12.

統 一 院

南北對話關聯

國內主要新聞記事集 IV

1991. 12.



양보익하
가관
양보익하
양보익하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71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남북 사이에 대화의 시대가 개막된지 20년이 되는 올해에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3차 남북고위급회담 이후 10개월만인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단일 합의서의 명칭, 내용구성 체계 등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 기틀마련을 위한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분단 46년만에 이루어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평화통일을 향한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소의 잇단 핵무기 감축·폐기 선언으로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된 북한의 핵안전조치협정 체결 거부 및 핵무기 개발기도는 한반도 및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은 제46차 유엔 총회연설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선도적이고도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우리측은 광복절 경축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여 남북교류를 통한 민족 대화합의 마당을 마련하고자 『통일대행진』을 제의 하였으며, 중단된 남북체육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북한측에 촉구하였으나, 북한측의 잇단 거부로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바라는 7천만 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대화사무국에서는 제 4차 남북고위급회담 관련기사, 한반도 핵문제 관련기사,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관련기사, 남북대화 20년 관련기사 그리고 기타 남북대화 관련기사 등 총 453건의 기사를 수록하여 기사집 제Ⅳ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사집이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1991. 12

통 일 원 남북대화사무국

目 次

I.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	3
II. 韓半島 核問題	151
III. 南北韓 UN 同時加入	207
IV. 南北對話 20年	261
V. 南北關係 關聯記事	269
1. 統一大行進 提議	271
2. 第85次 平壤 IPU 總會	291
3. 其他 南北對話關聯 主要論・解說記事.....	333

I.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

高位級회담의 개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

社說

북한이 최근 남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북한 대외경제협력 추진에 장애물

북한 대외경제협력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북서유엔가입후 이탈리아

전부 '제1인'으로 선출된 후

南北장려회담 10월再開 전망

북한이 남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후 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南北총리회담 내달 再開

北 延총리 27일 平壤서, 통지

전제조건없어 남북합의 정부는 곧 북한통일

【서울 11일路透電】 남북총리회담이 7월 27일 평양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남정부는 11일 북한측에 회답을 보냈으며, 북한측은 12일 남측에 회답을 보냈다. 남정부는 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북한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부는 회담이 7월 27일 평양에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부는 11일 북한측에 회답을 보냈으며, 북한측은 12일 남측에 회답을 보냈다. 남정부는 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북한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정부는 회담이 7월 27일 평양에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부는 11일 북한측에 회답을 보냈으며, 북한측은 12일 남측에 회답을 보냈다. 남정부는 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북한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회담이 27일 재개될 예정

남·북 회담이 7월 27일 평양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남정부는 11일 북한측에 회답을 보냈으며, 북한측은 12일 남측에 회답을 보냈다. 남정부는 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북한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정수입 확대 및 무역 개방

남정부는 양정수입 확대 및 무역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부는 11일 북한측에 회답을 보냈으며, 북한측은 12일 남측에 회답을 보냈다. 남정부는 회담이 전제조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북한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1991년 7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1992년 12월 31일까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4개항목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1.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2.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3.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4.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이다.

북한은 1991년 7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1992년 12월 31일까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4개항목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1.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2.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3.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4.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이다.

外壓에 강요된 北韓선택

남북고위급회담 재개세의 배경

남북고위급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양에서 재개되었다. 이번 회담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4개항목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1.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2.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3.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4.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이다.



북한의 거부로 중단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르면 내달중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작년 12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차 남북고위급회담 개막식에서 인수를 교환하고있는 양측대표단.

남북고위급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양에서 재개되었다. 이번 회담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4개항목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1.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2.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3.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4.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양에서 재개되었다. 이번 회담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4개항목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1.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2.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3.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 4.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조치이다.

〈宋永濤기자〉

南北대화 명분, 對日수교 "길뚱기"

平壤의 총리회담再開제의 배경

김정일 총리회담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壤에서 열린다. 이 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이 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김정일 총리회담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壤에서 열린다. 이 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김정일 총리회담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壤에서 열린다. 이 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김정일 총리회담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壤에서 열린다. 이 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김정일 총리회담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壤에서 열린다. 이 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內外압력에 밀려 外交整地 나선듯 頂上회담등 서울, 平壤 새지천 예상

유엔加入 앞두고 절차 조율 가능성도



1차 남북고위급 회담. 서울에서 열린 이 회담은 남북 양측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가하여 1차 회담을 마쳤다. (1990. 9. 4-9)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壤에서 열린다. 이 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이 1991년 7월 12일 평壤에서 열린다. 이 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수교는 남북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린다.

북한 고위급회담 내달 제의 배경

북한이 오는 9월18일 유엔에 가입한 뒤 10월까지 남북고위급 회담을 받아들인다는 예상은...

유엔가입 결정과 역사할 수용 등 비교적 탄력적으로 주변정세의 변화에 대응해왔던 북한은...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역사할 수용 등 전제조건을 내걸고 북한과의 수교 또는 관계개선을...

특히 미국은 남북한간의 '의미 있는' 대화 진전을 대북관계 개...

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북한 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한국과 미국이 정상 회담에서 한국의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정책을 미국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지원 약속이 한반도 주변 여건을 한국의 통일정책에 유리하도록 돕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 추진...

에 있어 미국과 관련된 '족쇄'들을 일정 부분 풀이준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해야만 한다고 여긴 듯 싶다.

미국의 관련단체나 학자들이 남한내 핵무기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해 철거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군의 핵 철수문제 협상 창구를 한국 정부가 담당하기로 했다는...

련, 당국자간 대화를 그 직후에 옴으로써 대화를 성사시키자는 의도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한 당국이 대화의지가 있는지를 실험하는 한편 통일논의 창구의 다변화를 유지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즉 당국간·비당국간 대화를 병행함으로써 북한이 그동안 고수해왔던 '정치협상통일회의'의 기반을 조성, 통일문제에 대한 북...

외교공세 능동대처·대화창구 다변화 유도 남한 통일정책 속도 탐색도

보도들은 이런 필요성을 북한에 더욱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북한은 특히 이런 흐름들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을 것이다.

북한은 또 유엔가입 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요구해온 미국과의 '직접협상'이 국제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인정하면 한국이 어떤 양보조치를 할 것인지도 궁급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8·15를 전후해 논란이 벌어질 범민족대회 등과 관...

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한편 북한의 이번 제의의 특징은 지금까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문제들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단지 분의한-인수경씨 등 방북인사의 석방만을 '희망'한다고 제시한 점이다.

이는 4차 고위급회담이 결렬될 경우 북한에 책임을 전가하는 빌미를 남한쪽에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 남한이 제의하려는 '통일대행진' 등의 행사에 그들이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김성수 기자)

남한이 유엔가입을 전제로 한 대화 제의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뒤 10월까지 남북고위급 회담을 받아들인다는 예상은...

北, 유엔가입·對美日개선 분위기 조성

우리측의 잇단 交流제의 회석 의도도 '불가피한선택' 불구 '開放호름' 청신호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뒤 10월까지 남북고위급 회담을 받아들인다는 예상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뒤 10월까지 남북고위급 회담을 받아들인다는 예상은...

핵심재opening 다시 거시기 기대

社說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개방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개방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개방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양심·핵문제 남측 전략 타진

북측 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심 타진

美·日과 접촉 추진 속셈 드러

전남정·전진상임평 핵문제 전진가이성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경제개방을 추진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보유는 북한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北韓

유엔가입 앞서 체면차리기

南北총리회담 再開 속박입니...

남북의 남북정상회담이 12일 다시 시작된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회담이 12일 다시 시작된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美·日과의 관계개선 추진제로도 활용

남북 정상회담이 12일 다시 시작된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회담이 12일 다시 시작된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북한측은 12일 이회창 총리와의 회담이 12일 다시 시작된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회담이 12일 다시 시작된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남북 정상회담이 12일 다시 시작된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1991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0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중앙일보 7월 16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2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경향신문 7월 27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세계일보 8월 3일자 1면

무성한 對北세의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경향신문 8월 3일자 1면



북한측이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회담 실무접촉 회의에서 북측 대표인 김성조(왼쪽)가 남측 대표인 김성조(오른쪽)에게 발언하고 있다. 김성조는 "남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성조는 "남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不可侵의 일괄채택 異見

어제 총리회담 실무접촉 北측서 합의서 명칭 우선토의 주장

북한측이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회담 실무접촉 회의에서 북측 대표인 김성조(왼쪽)가 남측 대표인 김성조(오른쪽)에게 발언하고 있다. 김성조는 "남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성조는 "남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측은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측은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합의문 채택 異見조정

南北총리회담 실무접촉 非核化·불가침선언포함

북한측이 10일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회담 실무접촉 회의에서 북측 대표인 김성조(왼쪽)가 남측 대표인 김성조(오른쪽)에게 발언하고 있다. 김성조는 "남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성조는 "남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측은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남측은 "북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總理회담 예정대로 27일 개최

南北 실무진 총 5개 文件, 일괄 타결, '인식결렬'

【서울 16일 AP통신】북한이 17일 평壤에서 남한 대표들과 5개 실무 문제를 놓고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정부는 이 회담이 예정대로 27일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16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5개 실무 문제를 놓고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정부는 이 회담이 예정대로 27일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16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5개 실무 문제를 놓고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정부는 이 회담이 예정대로 27일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 16일 AP통신】북한이 17일 평壤에서 남한 대표들과 5개 실무 문제를 놓고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정부는 이 회담이 예정대로 27일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16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5개 실무 문제를 놓고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정부는 이 회담이 예정대로 27일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한 정부는 16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5개 실무 문제를 놓고 회담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 정부는 이 회담이 예정대로 27일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대표 접촉 절충실패 불가침선언등 합의서 채택 이견

남북한은 16일 오전 판문점 남쪽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8월27~30일 평양) 준비를 위한 제3차 실무대표 접촉을 갖고 이 회담에서 채택할 문건 문제를 협의했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로 절충에 실패했다.

양측은 그러나 실무접촉은 더 이상 하지 않는 대신 실무접촉의 결과를 토대로 본회담에서 각기 접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생산적이고 결실 있는 회담을 진행하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송한호 통일원차관이 밝혔다.

남한측은 이날 접촉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합의서 △불가침선언등 3개 문건을 제시하고 먼저 북한의 안과 포괄적으로 의견절충을 한 뒤 합의서 수와 명칭을 결정하자고 했다.

반면 북한측은 △불가침선언 △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등 2개의 문건을 제시하고 양측이 제안한 5개의 문건 가운데 같은 명칭으로 돼 있는 불가침선언과 함께 나머지 제안들도

공통적인 것만 추려서 합의하고자 주장했다.

남한측은 이에 대해 "이것은 결국 북한측이 내놓은 2개의 합의서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북한측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방문 및 재결합 △'불가침'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실천조치 △현 정전협정의 고수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등 10개항이 반드시 합의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서울신문(1991. 8. 17)

주변대좌 '어두운 그림자'

4차 高位級회담 어떻게 될까

북측은 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양측의 입장차이가 심해져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합의서 △불가침선언등 3개 문건을 제시하고 먼저 북한의 안과 포괄적으로 의견절충을 한 뒤 합의서 수와 명칭을 결정하자고 했다.

반면 북한측은 △불가침선언 △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등 2개의 문건을 제시하고 양측이 제안한 5개의 문건 가운데 같은 명칭으로 돼 있는 불가침선언과 함께 나머지 제안들도 공통적인 것만 추려서 합의하고자 주장했다.

남한측은 이에 대해 "이것은 결국 북한측이 내놓은 2개의 합의서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북한측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방문 및 재결합 △'불가침'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실천조치 △현 정전협정의 고수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등 10개항이 반드시 합의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합의서 △불가침선언등 3개 문건을 제시하고 먼저 북한의 안과 포괄적으로 의견절충을 한 뒤 합의서 수와 명칭을 결정하자고 했다.

반면 북한측은 △불가침선언 △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 등 2개의 문건을 제시하고 양측이 제안한 5개의 문건 가운데 같은 명칭으로 돼 있는 불가침선언과 함께 나머지 제안들도 공통적인 것만 추려서 합의하고자 주장했다.

남한측은 이에 대해 "이것은 결국 북한측이 내놓은 2개의 합의서를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북한측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왕래와 상봉·방문 및 재결합 △'불가침'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실천조치 △현 정전협정의 고수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등 10개항이 반드시 합의서에 포함돼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실무접촉 끝난 高位회담 전망

북·미 실무접촉은 19일 북·미 실무접촉이 19일 미 국무부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북·미 실무접촉은 19일 북·미 실무접촉이 19일 미 국무부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실무접촉은 19일 북·미 실무접촉이 19일 미 국무부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南-北현안」 본격토의 예고

북·미 실무접촉은 19일 북·미 실무접촉이 19일 미 국무부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실무접촉은 19일 북·미 실무접촉이 19일 미 국무부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北아킬레스腱」 감촉 실마리 「文件경쟁」 피하고 유연 대응

북·미 실무접촉은 19일 북·미 실무접촉이 19일 미 국무부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실무접촉은 19일 북·미 실무접촉이 19일 미 국무부에서 끝났다고 밝혔다.

3차례 실무집행...총인원감전망

○전국농민총연맹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91년 3차 실무집행회의'에서 1991년 3차 실무집행회의를 3차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8월 17일, 24일, 31일 각각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연맹은 이번 회의에서 1991년 3차 실무집행회의를 3차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8월 17일, 24일, 31일 각각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대항' 양서기 집인양 불평 화의

양측 단상 기정정인 편화... 단적 승환 기단

남·북 양측이 '대항' 양서기 집인양 불평 화의 양측 단상 기정정인 편화... 단적 승환 기단.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1991년 3차 실무집행회의를 3차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8월 17일, 24일, 31일 각각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남·북 양측이 '대항' 양서기 집인양 불평 화의 양측 단상 기정정인 편화... 단적 승환 기단.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1991년 3차 실무집행회의를 3차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8월 17일, 24일, 31일 각각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이 손편이... 한의 수편 異見

4차 실무집행회의 實施方策 報告

이날 3차 실무집행회의는 1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연맹은 이번 회의에서 1991년 3차 실무집행회의를 3차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8월 17일, 24일, 31일 각각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北不可侵「집합」과 「귀류」 등 부패 관심 本會談 前망원 양측 머무는 신중

북이 손편이... 한의 수편 異見.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1991년 3차 실무집행회의를 3차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는 8월 17일, 24일, 31일 각각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북한이 1991년 8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회담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
 ▲회담의 목적과 의의
 ▲회담의 성격과 범위
 ▲회담의 일정과 장소
 ▲회담의 참가인원과 대표단 구성
 ▲회담의 의제와 주요 쟁점
 ▲회담의 성과와 의의

북한이 1991년 8월 20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회담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
 ▲회담의 목적과 의의
 ▲회담의 성격과 범위
 ▲회담의 일정과 장소
 ▲회담의 참가인원과 대표단 구성
 ▲회담의 의제와 주요 쟁점
 ▲회담의 성과와 의의

북한이 1991년 8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회담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
 ▲회담의 목적과 의의
 ▲회담의 성격과 범위
 ▲회담의 일정과 장소
 ▲회담의 참가인원과 대표단 구성
 ▲회담의 의제와 주요 쟁점
 ▲회담의 성과와 의의

북한이 1991년 8월 18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회담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
 ▲회담의 목적과 의의
 ▲회담의 성격과 범위
 ▲회담의 일정과 장소
 ▲회담의 참가인원과 대표단 구성
 ▲회담의 의제와 주요 쟁점
 ▲회담의 성과와 의의

韓半島 엄습한 고리비寒波

北韓, '근위남회담, 장수변경 요구' 속사정

대북외교부의 김성기 차장이 18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회담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김 차장은 회담이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담이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회담이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담이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강경파 立地강화 保守化선희 예고 일시적 後退 장기적戰術 두고 봐야

북한이 장수변경과 관련하여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보수화 선례를 예고하며, 일시적인 후퇴를 장기적인 전략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회담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북한이 장수변경과 관련하여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보수화 선례를 예고하며, 일시적인 후퇴를 장기적인 전략으로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남북회담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北轉생각이 달라진다

「북한혁명」 담니북진 담론

북한이 최근 들어 '북진' 담론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북진'을 추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북진' 담론을 펼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북진'을 추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蘇정변 주시하며 손익계산

「개방시간표」 다시 조정...南北대화순연 불가피

북한이 최근 들어 '북진' 담론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북진'을 추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南北정전회담 연기될 듯

북, '콜레라' 핑계 平壤서 못 열겠다

북한이 최근 들어 '북진' 담론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북진'을 추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북진' 담론을 펼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에 대해 '북진'을 추진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북진'을 통해 남한을 통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平壤이 다시 영흥기린다

「고르비失調」 平壤 부패
 「고르비失調」 平壤 부패
 「고르비失調」 平壤 부패

南北실무접촉에 나타난 「고르비波長」

그러나 북측이 보인 듯한
 양면의 움직임은 북측
 사회의 외부개방 및 남북관
 계개선 움직임의 전조로 따
 라서 더욱 주목할 만한 것
 일 것이다. 남북관계를 제
 대로 북측은 지금까지의 지
 경이다.

이런 가운데 고르비의 실각은
 그 자체로 평壤이나 그미라가
 의욕을 북측의 개혁을
 선도하는 국면전환의 호기
 면이다.

만 아니라 페레스트로이카
 의 불확실성이 북측의
 자신의 지도적 역할과 북측
 사회주의 이념을 뒤엎을 것
 일 수 있다.

특히 이영자 「명호의 달
 안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고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강대국의 압력에 밀려
 왔던 「외국」에 대한
 심어주는 동시에 북측의

이탈한 고르비의 실각은
 북측에게 「우익」 사
 의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북측의

기간 침체국면의 빠져
 나오려 한다.
 그러나 최근 북측
 내부에서 對內的 변화
 개방을 주장해 왔던 혁신
 또는 개혁파의 입지는
 추소해져 가고 있다.

평壤의 고르비 실각은
 영흥하게 북측의 개혁
 과 속행되리라는
 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탈한 고르비 실각은
 평壤의 개혁파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북측의 개혁파의
 추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北韓 體制強化명분... 개혁과肅清 예상

「政·經분리」 고수 中國式 모델 따를 듯

이탈한 고르비의 실각은
 북측에게 「우익」 사
 의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북측의

특히 이영자 「명호의 달
 안화되지는 않을 것이라
 고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강대국의 압력에 밀려
 왔던 「외국」에 대한
 심어주는 동시에 북측의

이탈한 고르비의 실각은
 북측에게 「우익」 사
 의 대한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북측의

기간 침체국면의 빠져
 나오려 한다.
 그러나 최근 북측
 내부에서 對內的 변화
 개방을 주장해 왔던 혁신
 또는 개혁파의 입지는
 추소해져 가고 있다.

평壤의 고르비 실각은
 영흥하게 북측의 개혁
 과 속행되리라는
 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탈한 고르비 실각은
 평壤의 개혁파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북측의 개혁파의
 추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고위급회담 연기배경

북한이 평양에서 있을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불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남한에서의 콜레라 발생을 이유로 사실상 회담의 연기를 선언한 것은 갑작스런 소련사태가 북한과 남북대화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이에 따라 북한은 고위급회담의 경우도 소련사태가 가도를 잡을 때까지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연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세판단을 내린 듯하다. 물론 북한의 이런 결정은 소련 사태가 예기치 않게 일어났듯이 갑작스레 결정된 것으로

는 생각할 수 없는 시점이였다. 북한은 전통문을 보낸 뒤 소련의 정변상황을 듣고 발빠르게 회담연기의 명분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겨우 찾아낸 명분이 남한의 콜레라 발생이라고 보면 된다. 사실 북한은 지난 13일 남한에 콜레라 비상령이 내려진 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회담연기의 결정이 내려

소의 변경만을 요청했을 뿐 회담의 연기를 시사하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으나 이는 곧바로 남한쪽에 의해 회담의 무기연기로 해석됐다. 남한측 관계자들은 명분을 중시하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이러한 북한의 요구는 곧 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뜻을 통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한측은 대책회의를 열고 21일 있을 연락관 접촉에서 판문

소련사태 파악위한 시간벌기

크렘린 정변 가닥잡혀야 재개될듯 콜레라 이유로...무리따라도 유리판단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북관계나 대외정책에서 항상 주체성을 강조해오긴 했지만, 남북고위급회담 재개뿐 아니라 유엔가입, 핵안전협정 서명 등 최근의 극적극적인 정책변화들이 사실은 소련 개혁·개방정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점에서 소련 권력층의 변동과 이에 따르는 정책변화는 북한에는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인다. 북한은 19일 오전 10시 전통문을 보내 채류일정·신변보장각서 등 고위급회담의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한 책임연락관 접촉을 20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쪽지역 통일각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남한도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는 전통문을 이날 오후 3시 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회담의 연기

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19일 오후 보건책임자가 "콜레라 발생지역을 통과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격리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고, 20일 회담의 일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에서 북한은 돌연 콜레라 방역을 이유로 회담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북한은 이날 접촉에서 회담장

점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합의된 대로 회담을 열 것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을 정했으나 북한의 태도와 남한의 대응으로 보아 회담연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다만 회담재개 시기는 빨라야 소련의 정변사태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유엔가입 이후 10~11월경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태규 기자>

蘇사태추이가들할 시간벌기

北韓 平壤 高위급회담 연기 불가, 수습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평양에서 7시간가량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이 20일 오후 3시께 판문점 북쪽지역 통일각에서 남북한 책임연락관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남한도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는 전통문을 이날 오후 3시 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회담의 연기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19일 오후 보건책임자가 "콜레라 발생지역을 통과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격리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고, 20일 회담의 일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에서 북한은 돌연 콜레라 방역을 이유로 회담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북한은 이날 접촉에서 회담장점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합의된 대로 회담을 열 것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을 정했으나 북한의 태도와 남한의 대응으로 보아 회담연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다만 회담재개 시기는 빨라야 소련의 정변사태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유엔가입 이후 10~11월경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태규 기자>

대내외적 우선순위에 따른 회담 연기 기대

회담 연기 주장 안해 귀추 주목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평양에서 7시간가량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이 20일 오후 3시께 판문점 북쪽지역 통일각에서 남북한 책임연락관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남한도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는 전통문을 이날 오후 3시 보냈다. 이때까지만 해도 회담의 연기진 것으로 보이는 시점인 19일 오후 보건책임자가 "콜레라 발생지역을 통과한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격리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고, 20일 회담의 일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에서 북한은 돌연 콜레라 방역을 이유로 회담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북한은 이날 접촉에서 회담장점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미 합의된 대로 회담을 열 것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을 정했으나 북한의 태도와 남한의 대응으로 보아 회담연기는 불을 보듯 뻔하다. 다만 회담재개 시기는 빨라야 소련의 정변사태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 유엔가입 이후 10~11월경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태규 기자>

南北총인원회담 연기될까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서 거부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20일 북한 내각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20일 북한 내각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20일 북한 내각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20일 북한 내각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20일 북한 내각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20일 북한 내각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20일 북한 내각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20일 북한 내각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對南정책 強硬선호시나오면

북측 加事총인원회담 연기할지 연구 중

북측은 20일 평壤에서 열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 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측은 20일 평壤에서 열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 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측은 20일 평壤에서 열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 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측은 20일 평壤에서 열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 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측은 20일 평壤에서 열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 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측은 20일 평壤에서 열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 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측은 20일 평壤에서 열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 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북측은 20일 평壤에서 열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 회의에서 남북총인원회담을 연기할 것을 주장하며, 북장수원회담연구 부서는 이를 반대했다.

蘇계방압력 추수, ...회담 장기지체 우려도

<경제특파원 특필>

총리회담場所 절충작업

북부지역의 문제

북부지역의 문제... 이비 회담장소가 북부지역이 아니라 남부지역인 것은 수반할 수 없다고 주장... 21일 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충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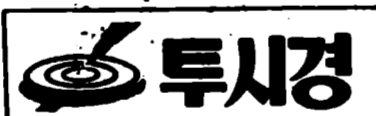
북부지역의 문제... 이비 회담장소가 북부지역이 아니라 남부지역인 것은 수반할 수 없다고 주장... 21일 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충작업이 필요하다.

蘇政變인가, 콜레라인가

—이성민합 북한의 불만정가

북한이 정변을 일으켰을 것인가, 아니면 콜레라 때문인가. 이성민합은 이 문제를 두고 "북한이 정변을 일으켰을 것인가, 아니면 콜레라 때문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는 "북한이 정변을 일으켰을 것인가, 아니면 콜레라 때문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북한이 정변을 일으켰을 것인가, 아니면 콜레라 때문인가. 이성민합은 이 문제를 두고 "북한이 정변을 일으켰을 것인가, 아니면 콜레라 때문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그는 "북한이 정변을 일으켰을 것인가, 아니면 콜레라 때문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 건부는 콜레라가 우리 공화국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것이다.”

이는 북한 보건당국이 20일 오전 6시 <중앙방송>을 통해 발 표한 장문의 담 화문 중 한 구 절이다.

담화문 발표 가 있는 지 4시간 뒤 판문점에 서 열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실무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쪽 책임연락관 접촉에서 북한측은 돌연 남한의 콜레라 발생을 이 유로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 길 것을 제의했다.

“뒤떨어진 나라에서 발생하여 불과 식료품, 생활접촉을 통하 여 비사히 빠른 속도로 퍼지는 전염병”인 콜레라 방역 때문에 남한측 회담대표단의 입국이 곤

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런 이유는 누가 보아도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궤변에 가깝다.

남한에 처음 콜레라환자가 발 생해 비상령이 내려진 것은 13 일 이었다.

통일원을 비롯한 북한방송 청 취기관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남 한에 콜레라가 발생한 뒤 보건 당국의 담화문이 나온 19일까지

‘콜레라 탓 회담연기’ 유감

콜레라에 대한 일체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

북한측은 또 제4차회담에서 채택할 합의문건을 논의하기 위 해 16일 열린 제3차 실무대표접 촉에서도 콜레라와 관련한 언급 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3 차례의 실무접촉이 성과없이 끝 났지만 평양에서 열릴 본회담에 서는 실무접촉 결과를 토대로 좋은 열매를 맺자고 양측이 함 의까지 했다는 것이 접촉대표의

일원인 송한호 통일원차관의 발 표였다.

이러저러한 사정을 볼 때 북 한이 갑자기 콜레라문제를 제기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19일 오전에 발생한 소련 정 변사태가 그 이유일 것이라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유력한 분 석이다.

소련 정변사태가 남북대화의 중단으로 직결 되는 남북관계 의 취약성이 가 슴 아프지만 더

욱더 가슴을 쓰리게 하는 것은 통일문제를 위해서는 한시도 허 비할 시간이 없다고 늘 주장하 던 북한당국이 지금시대에는 대 단한 병도 아닌 것으로 알려진 콜레라를 이유로 회담을 사실상 연기했다는 점이다.

북한도 남한 국민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명분은 통일뿐 아 니라 자신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테규 기자>

노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社說

노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Introductory text for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ewspaper)

노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Continuation of the introductory text)

노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Middle section of the anniversary text)

노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Continuation of the middle section)

노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노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Introductory text for the anniversary)

노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Continuation of the introductory text)

노동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Continuation of the introductory text)

南北韓 총리회담 10월22일 平壤서

北측 연기제안 받아들여 두달 늦춰

한겨레신문(1991. 8. 23)

'한민족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쿠데타와 콜레라와 남북회담

사흘 동안 세계를 뒤흔든 소련의 쿠데타는 불발로 끝났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휴양지에서 연금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과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이 고르바초프와 엘친을 적극 지지하면서 쿠데타를 규탄할 때 가장 대조적인 반응을 보인 나라가 북한과 중국이었다.

북한의 언론은 이례적으로 소련의 쿠데타 소식을 빨리 보도하면서 '사회주의의 승리는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은 "각국 인민의 자발적인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함으로써 소련의 쿠데타를 실질적으로 승인했다.

소련의 쿠데타는 한반도의 남북대화에 즉각 영향을 끼쳤다. 북한은 오는 27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바꾸자고 책임연락관 접촉에서 제안한 뒤 "한국 정부가 공안통치로 자주·민주·통일운동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미 관계와 핵사찰 등 10개항을 담은 '공개질문장'을 발표했다.

이제 판문점에서 또 만난 책임연락관들이 고위급회담의 장소 변경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회담은 멀리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이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남한에서 번지고 있는 콜레라라고 한다.

참으로 딱하고 안쓰러운 일이다. 남녘의 동포들이 콜레라라는 전염병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면 먼저 위로와 걱정을 하고, 남에서 북으로 찾아갈 대표단에게 예방조치를 당부한 뒤 필요하다면 검사를 하고 회담을 여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궁색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소련의 정세가 북한의 정보 분석과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의 차원에서

크게 본다면 소련의 정변은 외부의 사건에 불과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은 우리 민족 내부의 중대사이다.

고르바초프가 85년 3월에 집권한 뒤 개혁과 개방과 화해의 정책을 추진한 6년 남짓 동안 북한이 전통적 맹방인 소련과 차츰 소원해지고 남한이 상대적으로 소련과 가까워진 것이 사실이다. 동유럽에서 가장 견실하고 부유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던 동독이 서독으로 흡수통일되고, 폐쇄의 장벽을 굳게 쌓고 있던 알바니아가 난민 탈출 파동에 시달리는 것은 어쨌든 사회주의 진영의 혼란과 동요와 붕괴의 징후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스탈린주의적 폐쇄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 이념에 따라 인민의 일체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체제의 고수에 힘을 쏟던 북한은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의 부분적 인정까지를 도입하면서 자본주의를 향해 가고 있는 소련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소련 보수파의 쿠데타는 북한이 '반동'으로 보는 개혁을 단숨에 끝장내는 듯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흘 만에 실패했다.

우리는 소련의 쿠데타와 북한의 성급한 대응을 보면서 참된 주체성은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한다. 진정한 주체성은 민족을 '크게 하나로' 보는 '한민족주의'에서 나온다. 이것은 남한의 권력도 깊이 깨달아야 할 일이다. 소련 쿠데타의 실패를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보는 미국적 시각을 벗어나서, 세계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 겨레가 어떻게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남한도 북한도 외부정세의 변화에 민족의 운명을 종속시키려 들어서는 안된다. 남북의 정권은 빨리 고위급회담을 열어 불가침선언과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바란다.

이와 같은... (Vertical text column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이와 같은... (Large vertical text column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containing multiple columns of text)

期待만큼 좋았다... 허미영각린주壤

總理회담 등 對南정책 거듭 반복 내키지 않는 南北대작 '自認한심'

그리다추비의 단행은 북한과 남한이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남북간의 교류와 개방을 앞세워 김일성 주석을 공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리다추비의 속출이 대립과 분리의 길을 열어놓을 우려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남북간의 교류와 개방을 앞세워 김일성 주석을 공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리다추비의 속출이 대립과 분리의 길을 열어놓을 우려가 있다.

蘇 反轉 드라마와 北韓 대응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남북간의 교류와 개방을 앞세워 김일성 주석을 공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리다추비의 속출이 대립과 분리의 길을 열어놓을 우려가 있다.

北韓의 蘇사태 보도태도

일자	보도 내용
19일	고르비 失脚, 비정규 뉴스로 신속보도. 블레라 발생 국가주인 入北제한 발표
20일	제 4차 南北고위급회담 板門店 개최 주장
21일	蘇국가비상사태위 「정령」만 보도
22일	고르비 職務복귀 간단히 보도. 김영남외교부장, 고르비 지지 표명
23일	제 4차 南北고위급회담 10월 卅 開 개최 재의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남북간의 교류와 개방을 앞세워 김일성 주석을 공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리다추비의 속출이 대립과 분리의 길을 열어놓을 우려가 있다.

당부간 「문단순」강화... 「調整期」거칠것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남북간의 교류와 개방을 앞세워 김일성 주석을 공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리다추비의 속출이 대립과 분리의 길을 열어놓을 우려가 있다.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고 남북간의 교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 남북간의 교류와 개방을 앞세워 김일성 주석을 공지에 몰아넣고 있는 그리다추비의 속출이 대립과 분리의 길을 열어놓을 우려가 있다.

北韓 기준視角 北平의야

北平의야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평양이다. 평양은 조선의 수도이며,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평양은 조선의 심장으로서,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은 조선의 영광과 슬픔을 함께 겪어온 도시이며, 조선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고이다.

평양은 조선의 수도로서,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평양은 조선의 심장으로서,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은 조선의 영광과 슬픔을 함께 겪어온 도시이며, 조선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고이다.

평양은 조선의 수도로서,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평양은 조선의 심장으로서,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은 조선의 영광과 슬픔을 함께 겪어온 도시이며, 조선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고이다.

평양은 조선의 수도로서,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평양은 조선의 심장으로서, 조선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양은 조선의 영광과 슬픔을 함께 겪어온 도시이며, 조선의 미래를 내다보는 창고이다.

북 핵안전협정 서명 계기 공세로 선회

10월 개최 남북 4차고위급회담

지난 19일 갑자기 일어난 소련의 정변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소련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애초 열기로 했던 27일에서 10월22일로 늦춰져 3박4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게 됐다.

북한이 콜레라 발병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의 장소변경을 요구했던 목적이 소련사태의 진행추이를 지켜보는 '시간벌기'였으나, 소련이 정상상태로 돌아갔으므로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은 기존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4차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10월22일 이전에 행해지는 남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된 귀중한 행사들이 고위급회담의 협상 폭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는 30일 일본과 4차 수교협상을 시발로, 9월에는 대외정책의 일대 전환점인 핵안전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또 북한은 10월에 두만강경제특구 설치 등을 논의하는 유엔개발계획(UNDP)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남북한은 9월17일 평화공존의 길에 들어서는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된다. 최근 들어 북한은 유리한 국제환경과 우세한 경제력에 바탕을 둔 남한 정부와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북한 고립정책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핵안전협정 체결을 계기로 대남·대외정책에서 수세적인 입장을 벗어나 공세적으로 반격할 토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0월에 열리는 평양 고위급회담에서 예전의 회담에 비해 훨씬 공격적인 태도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고위급회담의 최대 쟁점은 불가침선언 문제가 될 것이라고 관계 당국과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16일 사이에 새차레 열린 4차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에서도 '불가침선언' 채택이 고위급회담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핵적인 문제'라며 이의 문안정리부터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3차 남북고위급회담의 양쪽 수석대표가 회담장인 호텔신라의 로비에 활짝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4차회담은 팀스피리트훈련, 소련의 정변 때문에 두차례나 연기돼 오는 10월에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지전 우려 불가침 선언 채택 강력 요구 '휴전'서 '평화'체제 전환조치 협의 가능성

북한이 이처럼 불가침선언에 매달리는 것은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사회주의 개혁 이후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

류에서 과거 냉전체제의 한쪽 맹주인 소련이라는 대립축이 붕괴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제한적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를 북한 지도부가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북한의 연행목 총리는

어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며, 그것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는 우리 주장의 근거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소련 보수강경파의 쿠데타 실패로 급진개혁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고위급회담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지금 분단조국에서 제일 중요한 과제는 전쟁이 일어나

에 따라 북한과 소련의 군사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며 "북한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번 4차 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 채택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가침선언 채택에 대해 남한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한 편이다.

비록 4차회담에서 남한은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그리고 3통(통행·통신·통상) 협정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불가침' 채택에는 여러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남한 당국이 제시하는 조건은 △현장검증과 상주 감시체제 △일정규모 훈련 및 부대이동의 상호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의 이행 보장 실천조치와 함께, 상방이 이미 체결한 조약(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이 불가침합의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는 점 등이다.

이는 남쪽이 북한의 불가침선언 제의 의도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하는 북한-미국간의 평화협정 체결 논리의 전단계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한 당국은 불가침선언 채택이후 남한사회의 대북 경제심의 이완과 거세질 군사비 삭감 주장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남쪽은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기본틀인 기본합의서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3통협정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실효성 있는' 불가침을 수용한다는 태도이다.

4차회담에서는 또 한반도 비핵지대화 남북한 공동선언 문제가 회담 의제와는 관계없이 거론될 전망이다.

북한은 4차회담 전에 핵안전협정에 체결해 입지를 강화한 상태에서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은 주한미

군의 핵무기 철수를 포함한 남북한 공동 핵사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한은 핵전쟁 위협의 제거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보장과 군축에 관한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비핵지대화 문제를 다룰 별도의 당국자 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한 경제교류를 위한 제의가 오고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10월에 평양에서 열리는 유엔개발계획 회의에서 두만강경제특구 설치계획이 가시화하면 이 지역에 대한 남한쪽 기업들의 참여방법 등이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남한이 채택을 주장하고 있는 3통협정은 쉽사리 합의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묻히어 들어올 수 있는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경계심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경제개혁에 보탬이 되는 대남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은 또 4차회담에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으로 해체가 불가피한 유엔사령부 처리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성수 기자)

社說

讓步不換 대화原則

오늘날 남북한이 나눌 수 없는 국경선이 되어 버린 것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정권과 반공

박성우

북한정권은 반공을 외치는 동시에 반공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반공을 외치는 동시에 반공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반공을 외치는 동시에 반공을 실천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반공을 외치는 동시에 반공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반공을 외치는 동시에 반공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반공을 외치는 동시에 반공을 실천하고 있다.

南北총리회담 일정에 합의

22일入北 25일歸京

17일 대북특사단장인 김대중 총리는 14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중 총리는 14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중 총리는 14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不可侵·交流일괄타결 추진

총리회담 「3통」 상·하 합의

김대중 총리는 13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중 총리는 13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중 총리는 13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중 총리는 13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중 총리는 13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중 총리는 13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平壤 南北기담회합 일제

김대중 총리는 18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기담회합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중 총리는 18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기담회합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대중 총리는 18일 오전 평양에서 열린 남북기담회합에서 합의된 일정에 따라 22일 평양에 도착하고 25일 서울로 귀국할 예정이다.

平壤 총리회담日程 합의

어제 평양관전접속 23일 첫대좌... 2차례 회담

북한은 어제(17일) 평양에서 관전(平壤)과 서울(漢城)을 연결하는 관전(平壤)~서울(漢城)간 직통전화(直通電話)를 개시(開始)했다. 이 직통전화는 관전(平壤)에서 서울(漢城)로 가는 전화(電話)를 4초(秒) 이내(內)에 연결(連結)할 수(能)있도록(可) 한(한)다고(言)했다. 관전(平壤)에서 서울(漢城)로 가는 전화(電話)를 4초(秒) 이내(內)에 연결(連結)할 수(能)있도록(可) 한(한)다고(言)했다. 관전(平壤)에서 서울(漢城)로 가는 전화(電話)를 4초(秒) 이내(內)에 연결(連結)할 수(能)있도록(可) 한(한)다고(言)했다.

이 직통전화는 관전(平壤)에서 서울(漢城)로 가는 전화(電話)를 4초(秒) 이내(內)에 연결(連結)할 수(能)있도록(可) 한(한)다고(言)했다. 관전(平壤)에서 서울(漢城)로 가는 전화(電話)를 4초(秒) 이내(內)에 연결(連結)할 수(能)있도록(可) 한(한)다고(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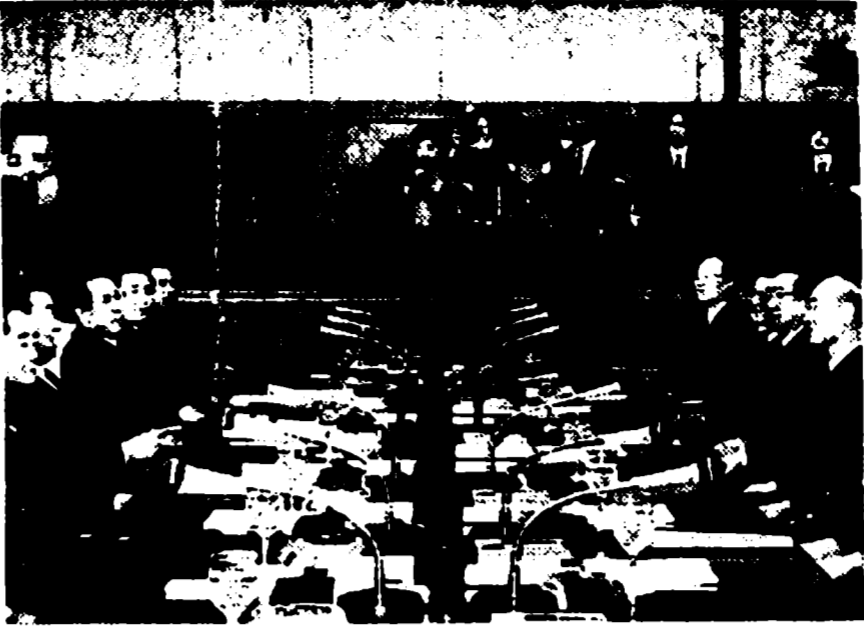
조선일보(1991. 10. 18)

북의 「拉北人士」 소식 요구를

북한 당국자들은 관전(平壤)에서 관전(平壤)과 서울(漢城)을 연결하는 관전(平壤)~서울(漢城)간 직통전화(直通電話)를 개시(開始)했다. 이 직통전화는 관전(平壤)에서 서울(漢城)로 가는 전화(電話)를 4초(秒) 이내(內)에 연결(連結)할 수(能)있도록(可) 한(한)다고(言)했다. 관전(平壤)에서 서울(漢城)로 가는 전화(電話)를 4초(秒) 이내(內)에 연결(連結)할 수(能)있도록(可) 한(한)다고(言)했다.

13차 남북 고위급 회담

1990. 12. 11-14 서울



南北 총리회담 議題와 전망

세계變化수 「평양變化」 주목

단 2000년 12월 11-14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이 13차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회담은 12월 12일 제3차 회담 두차례의 영기를 거둔 후 12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13차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관계개선」등 3개 합의문 일괄적 채택 제시 남측

「先군사문제 해결」집착 「분리」계속 고집할 듯 북측

經協 필요성엔 공감 교역활성화 획기적 전기가 가능성

에 이르기 22-25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13차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회담은 12월 12일 제3차 회담 두차례의 영기를 거둔 후 12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13차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남측은 「관계개선」 등 3개 합의문 일괄적 채택을 제시했다. 남측은 「先군사문제 해결」을 계속 고집할 듯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남측은 「분리」를 계속 고집할 듯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남측은 「관계개선」 등 3개 합의문 일괄적 채택을 제시했다. 남측은 「先군사문제 해결」을 계속 고집할 듯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남측은 「분리」를 계속 고집할 듯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남측은 「관계개선」 등 3개 합의문 일괄적 채택을 제시했다. 남측은 「先군사문제 해결」을 계속 고집할 듯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남측은 「분리」를 계속 고집할 듯 북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13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12월 11-14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12월 12일 제3차 회담 두차례의 영기를 거둔 후 12월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13차 회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구체실천 사항 합의주력

南北총리회담

이산가족 왕래등 10개항 설정

核문제나 오픈분리대처

【서울 19일 연합뉴스 보도】 남북총리회담이 19일 서울에서 열린 후 합의된 10개항 중 이산가족 왕래, 왕래지역,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이산가족의 재산관리, 이산가족의 의료비 지원, 이산가족의 교육비 지원, 이산가족의 취업지원, 이산가족의 주거지원, 이산가족의 사회복지지원, 이산가족의 문화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총리회담이 19일 서울에서 열린 후 합의된 10개항 중 이산가족 왕래, 왕래지역,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이산가족의 재산관리, 이산가족의 의료비 지원, 이산가족의 교육비 지원, 이산가족의 취업지원, 이산가족의 주거지원, 이산가족의 사회복지지원, 이산가족의 문화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1991. 10. 19)

社說

왕래라니 심혈하기 풀기 어렵다

아고, 왕래라니 심혈하기 풀기 어렵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재산관리,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원, 문화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재산관리,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원, 문화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재산관리,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원, 문화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재산관리,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취업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원, 문화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社說

유가하락과 임금하락의 동시현상

유가하락과 임금하락의 동시현상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현상이다. 유가가 하락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촉진하고, 결국 실업률 감소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가하락과 임금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때문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유가하락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여 주지만, 임금하락은 노동자의 생활고를 악화시킨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가하락과 임금하락의 동시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면서도 노동자의 임금 안정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유가하락과 임금하락의 동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때문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유가하락과 임금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때문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社說

인권억제도 해야 한다

—박종환 [문화평론가]

인권억제도 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권이 무시되고, 오히려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인권억제도 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권이 무시되고, 오히려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인권억제도 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인권이 무시되고, 오히려 억압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總理회담전망 밝지만 양은 없다

22일 평안군 주총회담기류

북 4차 북핵회담을 위한 22일 평안군 주총회담은 양측의 진보적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남측이 북측의 회담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회담의 구체적 내용과 시기, 장소, 그리고 참가 인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은 회담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남측은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북측의 경제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양측의 신뢰를 쌓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북측은 회담이 진행될수록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해갈 것이라고 본다.

남이제 1접트의 北不可侵선언부터 對立

異見 좁힐면 劇的 反轉 가능성

남측의 4차 회담 제안은 북측의 1접트 선언과 맞물려 대립각을 세웠다. 남측은 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며, 북측은 1접트 선언을 통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이견을 좁힐 수 있다면, 극적인 반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민환 기자)

최재 다시 열리는 남북고위급회담

도 비핵지대화' 새 쟁점 전망

터 평양 개최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들이 비공개 회의의 시작에 앞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진천규 기자>

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탈냉전으로의 정세변화는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분이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원단에서 체제수호가 가장 시급하므로 자신들의 정책이나 체제의 우월성을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대남관계에서 기존 입장을 쉽게 바꾸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위급회담에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남쪽이 대폭적인 양보를 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남쪽의 양보란 북쪽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을 수용

적교류·경협 초점 핵문제 별도처리 계획

가침선언 고수·주한미공군 핵 거론 예상

절충 가능성 있어도 합의서 도출기대 힘들듯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안에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새로운 세계질서 재편 흐름에 남북한이 뒤처져 양쪽 다 손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북한-본 수교 뒤 일본자본의 한반도 분할침략을 막기 위해 남북한이 되도록 빨리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6공정권이 국내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되도록 빨리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위급회담에 접근하는 시각도 있다.
정부 입찰체제 제안방침
 그러나 정부쪽의 다수의견은 시간이 지나면 지남수록 북한이 개혁·개방쪽으로 나아 것이기 때문에 의도대로 고위급회담의 진행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 체제로는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을 탈피할 수 없다는 게 그 판단의 근거이다.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4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선언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불가침선언·3통(통행·통신·통상)협정을 일괄 채택하자는 제안을 할 방침이다. 이는 기본합의서를 먼저 채택한 뒤 불가침선언을 합의하는 그동안의 단계적 해결론을 벗어난 것이다.
 또 합의서의 명칭이나 합의문진 숫자는 융통성을 보이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합의서에 명기한다는 전략이다.
 남쪽은 쌍방이 이미 맺은 조약·협정이 '불가침 합의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필수조항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불가침 합의 뒤 북쪽이 들고 나온 미군철수와 미군기지 철거요구를 한 미의 방위조약 문제를 내세워 일찌감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반면 북쪽은 4차회담에서 '불가침선언'과 '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합의서라는 2개의 문건을 내놓거나 이를 하나로 묶어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이 가운데 불가침선언을 중핵적인 문제로 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불가침선언과 함께 이번 4차회담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비롯한 핵문제가 논란거리로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30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생산·배치·통과 등의 금지된 행위로 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을 92년말까지 채택하라고 남쪽 당국에 제의한 바 있다.
 또한 연평북 총리나 김영남 외교통장이나 유엔총회에 참석했을 때 4차회담에서 불가침선언과 핵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런 북쪽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미·소의 진술핵무기 폐기선언으로 더욱더 힘있게 제기될 것이다. 특히 북쪽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승핵 폐기선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주한 미공군의 핵무기 문제를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자신들에 가해지는 핵안정협정 서명 및 핵사찰 압력을 남쪽에 배치돼 있는 핵무기와 연계시켜 맞대응하는 한편, 핵무기 감축시대에도 여전히 미공군의 핵우산에 의존하려는 남한당국의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줄 속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쪽은 핵문제는 고위급회담의 의제의 사항이므로 별도의 당국자회담을 열어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회담에서도 북쪽이 이 문제를 놓고 높이질 경우 북쪽이 핵안정협정 서명과 핵사찰에 먼저 응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4차회담에서 남쪽이 중점을 두고 임하는 것은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문제이다. 남쪽은 북한의 개방 유도용 위해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쪽은 남한발 9만5천톤의 대북 추가보충을 포함해 적교역 확대와 합작투자,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등을 제외할 방침이다.
 남쪽은 특히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선봉지역의 경제특구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와 자금지원

<3차회담 때 남북한 쌍방안>

남한		북한 불가침선언
전문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	북한 불가침선언
	1. 7·4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 재확인 2. 민족공동의 이익과 민족화해를 이룩하는 방향으로 대화추진 3. 긴장상태 완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구축 4. 상호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 성취를 위한 공동협력 경주	1. 7·4공동성명 재확인 2. 긴장상태를 적 화해와
조항	1. 통일때까지 상대방의 체제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 비방·중상행위중지 교류 실시	1. 상대방의 불간섭, 의견에 대한 비방
	2. 신분,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상호개방과 교류 실시	2. 부러움사용
	3. 경제·인적 교류협력 실시 및 이를 위한 통행, 통신, 경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	3. 비경제 중시 실현
	4. 이산 가족들의 서신 거래 및 상봉·방문 실시와 재결합 추진	3. 불가침의 개선으로 하
	5. 군비경쟁중지,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적 군비감축 실현	4. 우발적 무력국자간 직통
	6.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채택	5. 각계인사·동
	7. 현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국제적 평화보장 장치 마련	6. 경제협력과 각 분야에서
	8.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	7. 교통·체신망
	9.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교류협력과 정치·군사문제위 설치	8. 국제무대에서 공동진출
	10.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들 거쳐 상대방에 통고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9. 동선언의 본회담 태두
		10. 동선언은 이 폐기를 지속

세차례 남북고위급회담 어떻게 진행됐나

남북고위급회담은 1988년 12월 28일 당시 김영춘 국무총리가 남북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7명의 대표를 구성해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고위당국자회담을 제의하고 이에 북한의 연평북 총리가 1989년 1월 16일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열자고 호응함으로써 문이 열렸다.
 남북한은 그 뒤 양쪽의 차관급을 단장으로 1년6개월여 동안 8차례의 예비회담을 갖고 의제를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의제 접근방법 차

남 교류중시 북 상호 대립

북 협상과정서 융통성있게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문제'로 합의하게 된다.
 남북은 이에 따라 1990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의 총리가 마주 앉아 고위급회담을 시작했다. 서울 인턴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양쪽 총리의 기초발언 등을 통해 남북한 관계의 전반에 대한 양쪽 당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첫 교환했다.
 1차회담에서 남쪽은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공통의 합의기반이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체제인정을 배제로 한 8개항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제시했다.
 남쪽은 또 이런 합의기반을 바탕으로 실시할 교류협력 방안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비감축 방향

하자며 남북불가침선언에 관한 초안을 내놓았다.
 남쪽은 불가침협정 체결은 국 회비준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역제의했으나 평행히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차회담은 12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남쪽은 기본합의서를 먼저 채택한 뒤 1개월 안에 정치군사분과위를 설치해 불가침문제를 논의하자며 처음으로 불가침에 관한 방안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쪽은 불가침선언과 남쪽이 2차 때 제의한 화해 협력 선언을 통합하여 하나의 문건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양쪽의 제안 내용에는 용어사용에서 비슷한 점이 많았지만 그것들 사이의 의도와 합의문 명칭을 둘러싸고 양쪽은 평행선을 चलച്ച다.

經協등 「선언적 합의」 명칭

두 경제 정상은 평壤南北간 이해관계를 전담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두 경제 정상은 평壤南北간 이해관계를 전담하는 「선언적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는 두 정상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선언적 합의」를 통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남은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선언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선언적 합의」를 통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선언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선언적 합의」를 통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협정 일괄 처리의” “우리측” 의제외 “양통성” “유원가입·核감축등” 情勢 변화 반영 관심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선언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선언적 합의」를 통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은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선언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선언적 합의」를 통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선언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선언적 합의」를 통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 간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를 촉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4차 평壤총선거의 입장 전망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평壤의 對坐 먹구름 예고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유엔逆風」 남북입장 硬化

한발씩 양보면 합의도출 가능성도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4차 평壤총선거가 11월 12일 실시된다. 이 선거는 4차 총선거의 첫 번째 선거로, 4차 총선거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다.

不可侵-교류 신축대응

南北총리회담 내일 韓國대표단 90명 入北

한반도核문제 前向대처 頂上회담 개최 深層타진

交易 확대·合作추진 합의기대

【서울 20일 특파원 특보】 남북총리회담이 21일 서울에서 개막되는 가운데, 남측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

軍縮추세 맞춰가야 할 南北회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군축협약 체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핵무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社 說

군축협약 체결이 불가피하다. 특히 핵무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기타고급 南北高位級회담

社 說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핵무기 경쟁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이 손을 잡고 핵무기 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不可侵犯의 최대권한 영상

南北총리의담 議題와 전망

남북총리회담은 4월 20일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차 남북총리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회담은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총리회담은 4월 20일 대외경제협력위원회 차 남북총리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회담은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회담을 통해 남북 양측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通」비준·병행·무조건 채택」 평평 유엔加入후北의 尤인정인 기문

남북 양측은 유엔에 가입한 후, 북측이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화적 수단'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유엔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 양측이 유엔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북측은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 헌장에 명시된 '평화적 수단'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유엔에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 양측이 유엔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본문 계속>

社說

對北 高層級 會談

북측 高層級인 김일성 총서장이 남측인 김영삼 총리와의 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특히 김일성 총서장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김영삼 총리도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꾀하고 있다. 양측이 이러한 뜻을 모아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1991. 10. 22)

사설

공격과 선전보다 구체적 합의를 남북고위급회담에 거는 기대

참으로 오랜만에 남과 북의 고위관리들이 얼굴을 마주한다. 오늘 서울을 떠나 평양에 도착할 남측의 대표단은 열달 만에 북측 사람들을 만나 3박4일 동안 대화를 나눌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남북고위급 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뒤 세상은 정말로 많이도 변했다. 사회주의혁명의 모국인 소련에서는 쿠데타 기도를 비롯한 격변을 치르면서 공산당의 권력이 두드러지게 약화됐고,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 지향의 개혁과 민족문제로 열병을 앓았다.

사회주의 진영의 총체적 변화와 비교해 볼 때 현상 유지에 가장 집착하는 체제가 북한·중국·쿠바·베트남은 명백히 드러난다. 북한은 울돌이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을 깨고는 이렇다 할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과 끊임없이 교섭을 시도하고 일본과 국교를 맺으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아직은 큰 진전이 없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만 유리하도록 관계 개선을 할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남과 북의 권력자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답소를 나눌 때마다 이번에는 통일을 향해 단 몇 걸음이라도 진전이 있기를 바라던 거래는 그런 모임이 입씨름과 트집잡기로 끝날 때마다 허망함과 함께 배신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아픔을 여러번 겪은 사람들은 오늘부터 시작될 남북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은 온갖 좌절과 고통과 실망과 갈등을 딛고 한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험난한 작업임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해질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참용성을 갖고 온 거래와 함께 평양회담을 지켜보려고 한다.

지난해 12월의 제3차 회담은 불가침선언을 둘러싸고 남과 북이 절차와 내용에서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바람에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남측

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불가침선언, 그리고 3통협정을 일괄 채택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측은 불가침선언과 '화해와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동시에 제안하거나 하나로 묶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의 선결과제인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공존의 바탕이 되는 것은 적대관계의 청산이다. 남측이 북측을 '반국가 단체' 또는 섬멸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거나 북측이 남측을 무력혁명으로 '해방'시켜야 할 영토의 일부로 보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남과 북은 회담장에서만 동포이고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언제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적대세력으로 남는다.

이런 현실을 깨뜨리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불가침선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서로 상대방의 영토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남과 북의 의회가 이것을 인준한다면 불가침선언은 국제적 구속력을 갖는 협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가침을 조약이나 협정으로 보장하려면 전쟁을 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는 현실적 조건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첫째는 병력과 무기의 감축이다. 여기에는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는 남과 북이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실정법, 그리고 정강을 없애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적 통일의 전단계로서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에 합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인정받는 일이다.

물론, 남과 북은 이런 과정을 밟아나가는 데서 상당히 견해차이가 큰 이론적 주장을 보여왔다. 이런 대립을 풀지 않으면 통일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우리는 모처럼 열리는 고위급회담이 공격과 정치선전보다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생산적 만남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측 高層級인 김일성 총서장이 남측인 김영삼 총리와의 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특히 김일성 총서장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김영삼 총리도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꾀하고 있다. 양측이 이러한 뜻을 모아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한기백(한겨레)은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특히 김일성 총서장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남북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김영삼 총리도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꾀하고 있다. 양측이 이러한 뜻을 모아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社說

總理회담成敗의關鍵

北의基本路線 바뀌어야

북한의 비핵이며 남북한은 영구정전제 4차 북핵회담이 있을 때 평양에서 시작된다. 10개회담은 북한 대표단이 만나기 위해 평양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단...

북한의 비핵이며 남북한은 영구정전제 4차 북핵회담이 있을 때 평양에서 시작된다. 10개회담은 북한 대표단이 만나기 위해 평양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단...

그런데 평양회담이 이뤄진다면 영국의 판문점 회담이다. 현재 북한은 10월 초 유엔총회 기구장 회담에서 북측 대표단 사찰정지안 제출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제4차 북핵회담에 영구정전회담과 영구정전회담이 비평화회담이 되며 판문점 회담이 북한핵사찰정지안이라는 한판의 비핵화를 가진 우선적인 의제로 지정해...

보장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여 핵규제의 의무를 지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타락되는 핵무기도 철거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는 남북간의 군사협상 과정에서 한반도의 핵무기를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4차 남북고위급회담 전망

경제교류의견접근 가능성

양개장 4차회담은 한반도 주권문제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의 「북일수교」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관측을 미기고 있다.

4차회담이 될 수 없는 양측 주권사항이 해결된 후 양측은 13일까지의 김일성 방문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일성



◇북한측인 김일성(중)이 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김대중(좌)과 김동수(우)를 만나고 있다. 김대중은 4차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김일성(중)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대중은 4차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김일성(중)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양측은 4차회담을 앞두고 양측 주권사항이 해결된 후 양측은 13일까지의 김일성 방문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일성

있던 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4차회담의 전망은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4차회담에서 양측의 「북일수교」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관측을 미기고 있다.

평행선 「核문제」 이번에도 "태풍의 눈" 情勢 호전으로 北경직자세 다소 유연해질 듯

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의 고위급회담 결과 양측은 「북일수교」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관측을 미기고 있다.

이런데도 핵문제가 이번 4차회담의 전초를 볼 때 양측은 합의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눈」이다. 양측의 「비핵화」와 북한측의 「비핵지대화」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이번 회담이 다시 한 번 양측의 문제를 다루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10개월만에 속개되는 이번 4차회담은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양측은 13일까지의 김일성 방문이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일성

김대중(左)과 김동수(右)가 평양에서 김일성(中)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대중은 4차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김일성(中)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北變化거침없이 '승화' 진행됐다

4차南北고위급회담 전망

북한은 최근 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북변화'를 내세워 '승화'를 진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개혁'과 '외교개방'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 왔다. '북변화'는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승화'는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북변화'는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승화'는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최근 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북변화'를 내세워 '승화'를 진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개혁'과 '외교개방'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 왔다. '북변화'는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승화'는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북변화'는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승화'는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北실질交流의면「不可侵」집착 經濟분야야선 일부成果가 가능성

북한은 '不可侵'의 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북변화'는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승화'는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상되는南北의 입장

북	남
우선 제1차 회담을 통한 정치적 대화와 협력의 틀을 확립하고, 3차 회담을 통한 경제개혁의 합의와 '승화'를 추진한다.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북변화'를 추진하며,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남북교류의 틀을 확립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不可侵'의 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며,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남북교류의 틀을 확립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不可侵'의 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며,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남북교류의 틀을 확립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不可侵'의 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며,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남북교류의 틀을 확립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不可侵'의 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며,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남북교류의 틀을 확립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不可侵'의 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며,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킨다.

북한은 '不可侵'의 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북변화'는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승화'는 '경제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자민련 2백명만 있었다.
서울에서 平壤까지의 相距가
「북강안지영」 다 「북부」로
만 「북강」 2백가 더 가깝다면
가. 새마을을 명차라 하면 2시간
이질 발전 갈수있고 平壤. 그
러한 제 4차 平壤과 위대한
平壤 대표단이 大同江철교를
건조하기까지만 2시간 12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간이 걸
다.

大同江철교의 건설이야 아
니었다. 12년만인 2시간을 걸
하진 「북강안지영」 「북부」와
「신」을 「북강」에 남의 「북부」였
다.

제 4차 大同江철교 건설이
시 平壤 大同江강변에 이미
있었다. 「북강」에 건설중인
대 「북강」을 건설한다. 「북강」
건설을 「북강」에 건설한다. 「북강」
건설을 「북강」에 건설한다. 「북강」

기대와 우려의 平壤行



張秀根
(북한부장)

이질 4차 平壤행 平壤의
반복 이질 4차 平壤행 平壤의
이질 4차 平壤행 平壤의
이질 4차 平壤행 平壤의
이질 4차 平壤행 平壤의
이질 4차 平壤행 平壤의
이질 4차 平壤행 平壤의

북강안 제 4차 大同江철교
건설은 「북강」에 건설중인
대 「북강」을 건설한다. 「북강」
건설을 「북강」에 건설한다. 「북강」
건설을 「북강」에 건설한다. 「북강」
건설을 「북강」에 건설한다. 「북강」
건설을 「북강」에 건설한다.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이질 4차 平壤의 平壤의

南北리무네네 잉글타결 추진

總理회담대표 平壤도착 核·軍縮문제 진전 기대



“반갑습니다” 鄭元植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제 4차 南北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板門店북측지역에 도착, 北韓측의 安炳洙 祖平統부위원장으로부터 영접을 받고있다. <板門店=金車万기자>

3泊4일 두차례 회담

【平壤=黃在弘기자】 제 4차 南北고위급회담이 22일 오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安炳洙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鄭총리는 23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南측지역에서 祖平統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24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祖 부위원장과 회담을 끝으로 3박4일 회담이 마무리됐다.

제 4차 南北고위급회담은 22일 오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安炳洙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鄭총리는 23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南측지역에서 祖平統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24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祖 부위원장과 회담을 끝으로 3박4일 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은 22일 오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安炳洙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鄭총리는 23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南측지역에서 祖平統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24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祖 부위원장과 회담을 끝으로 3박4일 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은 22일 오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安炳洙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鄭총리는 23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南측지역에서 祖平統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24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祖 부위원장과 회담을 끝으로 3박4일 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은 22일 오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安炳洙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鄭총리는 23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南측지역에서 祖平統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24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祖 부위원장과 회담을 끝으로 3박4일 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은 22일 오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安炳洙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鄭총리는 23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南측지역에서 祖平統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24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祖 부위원장과 회담을 끝으로 3박4일 회담이 마무리됐다.

회담은 22일 오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安炳洙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鄭총리는 23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南측지역에서 祖平統 부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24일 오후 10시 30분 板門店북측지역에서 祖 부위원장과 회담을 끝으로 3박4일 회담이 마무리됐다.

南北고위급회담 대표단 入北 표정·전망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의논중 집중 協經 等역교 직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북측은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고위급회담 대표단 10명...

남북일자리 대비표

Table with 4 columns: Job Category, South Side, North Side, and Remarks. It lists various professions and their corresponding positions in the North and South.

핵문제 첫논의... 양적일치 미견

관문점통과절차의속, 그냥 가시죠. 신분확인인생략. 북측기자, 남측 패칭하고 단풍절경... 회담도 잘될것.

이시기엔 민족통일사.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20개, 21개, 22개, 23개, 24개, 25개, 26개, 27개, 28개, 29개, 30개, 31개, 32개, 33개, 34개, 35개, 36개, 37개, 38개, 39개, 40개, 41개, 42개, 43개, 44개, 45개, 46개, 47개, 48개, 49개, 50개, 51개, 52개, 53개, 54개, 55개, 56개, 57개, 58개, 59개, 60개, 61개, 62개, 63개, 64개, 65개, 66개, 67개, 68개, 69개, 70개, 71개, 72개, 73개, 74개, 75개, 76개, 77개, 78개, 79개, 80개, 81개, 82개, 83개, 84개, 85개, 86개, 87개, 88개, 89개, 90개, 91개, 92개, 93개, 94개, 95개, 96개, 97개, 98개, 99개, 100개.

이시기엔 민족통일사.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7개, 18개, 19개, 20개, 21개, 22개, 23개, 24개, 25개, 26개, 27개, 28개, 29개, 30개, 31개, 32개, 33개, 34개, 35개, 36개, 37개, 38개, 39개, 40개, 41개, 42개, 43개, 44개, 45개, 46개, 47개, 48개, 49개, 50개, 51개, 52개, 53개, 54개, 55개, 56개, 57개, 58개, 59개, 60개, 61개, 62개, 63개, 64개, 65개, 66개, 67개, 68개, 69개, 70개, 71개, 72개, 73개, 74개, 75개, 76개, 77개, 78개, 79개, 80개, 81개, 82개, 83개, 84개, 85개, 86개, 87개, 88개, 89개, 90개, 91개, 92개, 93개, 94개, 95개, 96개, 97개, 98개, 99개, 100개.

그냥우세요 北의원환인생략

총리회담代表 入北 이모저모



제4차 북대고위급회담에 참가하는 우리측 기자단과 수행원들이 22일 오전 板門店을 통과, 북측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板門店=黃鍾鎰기자>

주한미 4차 북대고위급회담이 22일 오후 1시 30분경 板門店을 통과, 북측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板門店=黃鍾鎰기자>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板門店을 통과, 북측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板門店=黃鍾鎰기자>

北취재진 줄고 蘇기자 안모여

鄭총리 黃海道서 태어나 감회 더 깊다

北측지역에 취재진이 줄고, 蘇(중국) 기자도 안모여... <板門店=黃鍾鎰기자>

시온리언 이사들과 함께... <板門店=黃鍾鎰기자>

북측지역에 취재진이 줄고, 蘇(중국) 기자도 안모여... <板門店=黃鍾鎰기자>

北측지역에 취재진이 줄고, 蘇(중국) 기자도 안모여... <板門店=黃鍾鎰기자>

平壤 총리회담으로 가는 길

10월 22일 평壤에서 열린 남북 수교회담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조은 열매 맺자” 南北화담

청명한 햇살반이며 북이러...

北, 수행원·기자단 신분확인인생략, ‘그냥 가시죠’

開城 여학생 8명 통일각의 구학꽃다발로 환영



10개팀만에 재개된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할 우리측 대표단. 취재진·수행원 및 기자단이 22일 오전 8시 15분을 기해 평壤에서 출발하고 있다. [板門店=趙路哲기자]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북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남측 수교회담 대표단은 22일 오후 8시에 시작됐다.

【板門店=社報·安熙奎 기자】

不可侵 포함 새합의안 제시

南北총리회담 대표단 平壤도착 오늘 오전 첫 공개회의 열려



南北총리 악수

제4차 南北고위급회담을 위해 22일 오후 平壤에 도착한 鄭元植총리가 유소인 백화원초대소 현관에서 延孝默북한정무원총리의 영접을 받고 있다. (平壤=金龍遠특파원촬영)

“한반도 平和체제로 전환하자” “회담 전진시켜 民族에 선물을” 鄭총리만찬사

【平壤=연합통신】북한 정무원총리 鄭元植(정원식)은 22일 오후 平壤에 도착한 남한 정무원총리 鄭元植(정원식)을 영접하며 “회담 전진시켜 민족에 선물을”라고 말했다. 鄭총리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민족에 선물을 하겠다”고 말했다. 鄭총리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민족에 선물을 하겠다”고 말했다.

鄭총리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민족에 선물을 하겠다”고 말했다. 鄭총리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민족에 선물을 하겠다”고 말했다. 鄭총리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민족에 선물을 하겠다”고 말했다.

“압력에 의한 核사찰” 北韓, 절대 불응

【平壤=연합통신】북한 정무원총리 鄭元植(정원식)은 22일 오후 平壤에 도착한 남한 정무원총리 鄭元植(정원식)을 영접하며 “회담 전진시켜 민족에 선물을”라고 말했다. 鄭총리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민족에 선물을 하겠다”고 말했다. 鄭총리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민족에 선물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 일정

일	시간	내용
23일	10:00	제1일 회담 (인민문화궁전)
	15:30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관람
	18:00	공연관람 (만수대예술극장)
24일	10:00	제2일 회담 (비공개)
	15:00	인민대학생소년단 공연 관람
	19:30	북한문화회관 공연 관람 (인민문화궁전)
25일	09:00	平壤출발
	13:10	板門店통과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자”

鄭총리 만찬담사 南北직교역 당장 10億弗가능



高位級회담 대표단 平壤1박 오늘날 상오 첫 공개회담

“進展이뤄 좋은 합의書 만들자” 鄭총리 만찬사

【서울=한국일보】남북회담 대표단 10명(남측 5명, 북측 5명)이 22일 오후 1시 30분 평壤에서 첫 공개회담을 가졌다. 남측 대표단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담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장인 김성조는 “남북회담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자”고 강조했다.

◇南北총리 平壤전배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 鄭元植 국무총리와 북측수석대표 延亨默장무 원총리가 22일저녁 平壤북관관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平壤=韓東完기자·韓6日】

남북회담 대표단 10명(남측 5명, 북측 5명)이 22일 오후 1시 30분 평壤에서 첫 공개회담을 가졌다. 남측 대표단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담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장인 김성조는 “남북회담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자”고 강조했다.

남북회담 대표단 10명(남측 5명, 북측 5명)이 22일 오후 1시 30분 평壤에서 첫 공개회담을 가졌다. 남측 대표단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담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장인 김성조는 “남북회담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자”고 강조했다.

남북회담 대표단 10명(남측 5명, 북측 5명)이 22일 오후 1시 30분 평壤에서 첫 공개회담을 가졌다. 남측 대표단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담을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 대표단장인 김성조는 “남북회담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자”고 강조했다.

“分斷세습 막으러 왔다”

南北고위회담 鄭총리 만찬답사 대표단 平壤서 첫밤

“합의도중결로 민족에 선물”

延禧리 만찬사 오늘 1차회의의 公開로



鄭元植국무총리가 제 4차 南北고위급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낮 平壤 시내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 延禧默 北韓정무원총리(右)의 영접을 받고있다. <平壤=鄭楠泳특파원특보>

【平壤=宋永濤특파원】南北高위급회담이 22일 平壤 백화원 초대소에서 제 4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4박 5일간의 회담이 22일 밤 11시 30분경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평壤에서 개최된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평壤에서 개최된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평壤에서 개최된다.

延禧默은 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延禧默은 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延禧默은 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延禧默은 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延禧默은 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延禧默은 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北韓의 延禧默은 22일 平壤에서 南北高위급회담이 22일 平壤 백화원 초대소에서 제 4차 고위급회담을 개최하는 등 4박 5일간의 회담이 22일 밤 11시 30분경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간 평壤에서 개최된다.

延禧默은 회담이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가침-교류확대 일괄타결 제의

남한대표단 평양도착 오늘 4차고위급회담 1차회의

“평화체제 전환 합의 이루자” 정총리

“조국통일의 새 전기 마련을” 연총리

【평양=김성수 기자】남북한은 23일 오전 10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4차 고위급 회담 첫회의를 연다.
공개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형묵 북한 정무원총리는 각각 기초연설을 통해 남북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관련기사 2·3면>
정 총리는 기초연설에서 교류협력 방안 및 불가침 선언내용을 포괄하는 새로운 남북한 합의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 총리 등 대표 7명과 수행원 33명, 기자 50명 등 남측대표단 90명은 22일 오전 판문점을 거쳐 이날 오후 평양에 닿아 나흘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정 총리 일행은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에서 연 총리의 영접을 받은 뒤 회담장인 인민문화궁전을 둘러보고 목란관에서 연 총리가 배운 만찬에 참석했다.
연 총리는 이날 만찬연설을 통해 “우리 양쪽 대표들은 1년 가까이 서로 오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까닭에 자그마한 결실도 얻어내지 못하고 너무도 많은 것을

잃은 채 아직 출발점에서 있다”면서 “대표들은 건음을 다그치고 속도감을 높여 빨리 회담을 진전시키고 좋은 합의서를 만들어냄으로써 그사이 잃어버린 1년을 보상해야 하며 민족 앞에 훌륭한 선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합의서 도출을 강조했다.
연 총리는 또 “오늘날에 와서 조국통일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되돌려 세울 수 없는 민족적 대행진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역사의 호담은 조국통일의 평화적 전제를 마련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쌍방대표들에게 새로운 각성을 촉구하며 우리 회담을 빨리 진전시켜 좋은 결실을 가져올 것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담해연설에서 “남북한간 상호존중과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불가침선언에 합의하고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다각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남북한간에 서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직접 거래하고 상호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부자를 하나만 다면 민족전체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견지에서 최근 북쪽에서도 경제개방에 관심을 갖고 두만강 하구의 경제특구 개발과 관광자원의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평양회담에서

야말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어 온 거래에 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측 대표단의 이동북대변인은 백화원초대소 도착 직후 발표한 도착 성명에서 “우리 대표단은 이번 제4차 회담이 남북고위급회담의 진전에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제 남과 북이 함께 유엔에 가입한 만큼 남북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공존·공영을 도모하면서 평화통일의 여건을 성숙시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침선언 채택 거듭 강조 북한 국제담당비서

【도쿄=연합】김용순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21일 남북고위급회담의 전망에 대해 “더이상 공전은 허용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불가침 선언이 채택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통일에 유리한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는 이날 평양에서 가진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회견에서 유엔 가입 뒤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의 전망과 관련해 “남한쪽이 제안한 쌍방의 왕래·교류는 부정하지 않고 있으나 먼저 군사대결을 그만두고 불가침 선언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고위급회담 오늘 일정**
- ◇10:00 제1일 회담(인민문화궁전)
 - ◇15:30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참관
 - ◇18:00 음악·무용 공연 관람(만수대예술극장)
 - ◇21:30 영화 관람(숙소)



남북대표단 기념촬영

22일하오 남북대표단의 숙소인 평壤백화원 초대소의 로비에서 금강산그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양측의 대표단과 수행원. 양측 왼쪽부터 남북의 宋漢虎통일위원장, 宋廣發합참본부제1차장, 金榮輝외과대외교안보보좌관, 鄭元植국무총리, 北측의 延亨默총리, 安炳洙組平統부위원장, 金光鎭인민무력부부장, 南俊祖平統서기국장, 右측 왼쪽부터 남북의 金勇煥최인연타관, 한사람건너 廣春植총리비서실장, 姜贊旭기획위원장, 林東淵외교안보연구원장, 李東龍대변인, 北측의 崔宇錫외교부순회대사, 金正學대의경제사업부부장, 金英燮인민무력부부장, 崔連澤최인연타관.

〈平壤—鄭元植보좌관〉

아침에 나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transcription of text in the left column)

아침에 나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transcription of text in the right column)

아침에 나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transcription of text in the left column)

아침에 나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transcription of text in the right column)

鄭元植 만찬사 의지

양측 대표단과의 만찬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단은 친목을 다지고... (transcription of text in the left column)

양측 대표단과의 만찬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 대표단은 친목을 다지고... (transcription of text in the right column)

이번엔 꼭 결실맺자 南北총리 和答

平壤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인사부 부총장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관공인장에서의 평壤공연이 끝난뒤 鄭元龍국무총리가 무대위로 올라가 한 여성공연자와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平壤=金東俊특파원)

“올안서울여성악적”에 “가악적” 응답 “남인류東歐등과 어떻게 보느냐” 물기도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관공인장에서의 평壤공연이 끝난뒤 鄭元龍국무총리가 무대위로 올라가 한 여성공연자와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平壤=金東俊특파원)

양산도·고향의 봄 연주에 “한마음 박수” 南北韓총리, 무대 올라가 公演者들 격려 통일신보위원 “軍費 줄이면 南北모두 잘살것”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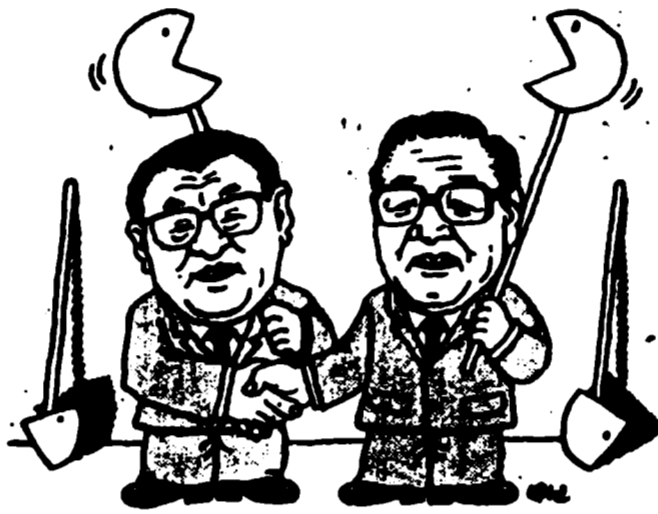
○...평양의 우리代表團이 모처럼 평壤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壤에서 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수원

오늘 아침엔 남북한 동포들의 눈길이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 쏠려가 있을 법하다. 총리회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크기 때문일 것이다. 전에는 한두달 간격으로 열리던 회담이 열달로 늘어졌대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남북 양쪽이 안팎으로 겪은 변화가 너무도 깊고 커서 그것에 상응하는 저마다의 다짐들이 결코 만만치 않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의 과녁이 한반도의 '평화 만들기'에 있음은 예나 이제나 다를 바 없다. 아직은 분단상황이 남과 북의 법률과 제도 속에 시퍼렇게



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전쟁 위협의 우선제거에서 출발하여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불사용, 그리고 군비감축으로 이어지는 길고도 힘든 도정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도정에서 축적된 신뢰의 바탕 위에서, 평화의 제도화와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의 다져가는 '평화 만들기'를 남북 어느 쪽도 마달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북이 평화로 가는 길을 놓고 끈질기게 맞서온 생각의 차이는, 실은 총리회담에서 양쪽이 제안한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와 '불가침선언' 정도의 거리였다. 예초 남쪽은 남북의 관계개선을 위한 공동의 합의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기본적인 관계를 가능하면 공식적이고 구속력있는 불속에 단단히 규율하려 들었다. 그런 다음에 교류와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자는 생각에서였다. 반면 북쪽은 기본외제 토의에 필요한 공방의 기초로서

불가침선언을 최우선과제로 고집했었다. 그러나 3차회담에서 양쪽이 고쳐 내놓은, 즉 북쪽의 '북남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과 남쪽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정신은 누구의 눈에 도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남쪽이 합의내용을 보

남북회담과 평화 만들기

살아 있고 휴전선의 총칼 대치 또한 한치도 수그러들지 않은 현실에서 모처럼의 남북대화에 평화의 제도화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자칫 공허하게 비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는 한 불가침과 교류협력, 이산가족의 재회, 나아가서 민족의 자주적 재통합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도 이 평화의 틀이 아니고는 녹여낼 길이 없음에라. 그럼에도 평화를 만들고 이를 제도적 장치에 묶어 안정시키는 방법에 대한 양쪽의 구체적 입장은 서로에게 좀체 진실되게 전달되지 않는 모양이다.

그동안 새차례의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이 그림자 명칭을 달아 내놓은 여러가지 제안 속에는 신뢰를 '구축'하거나 '조성'할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고루 담겨 있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역설한 선언도 어김없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서로에게 신뢰 구축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불신' 탓에 평화를 향한 그 어떤 합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남과 북이 평화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리라고는 결코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평화란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만

장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나 합의서 채택 절차와 같은 실질적 방안에 좀더 고심한 정도였다.

이제 나라 안팎의 엄청난 변화를 딛고 열달 만에 만나는 남북의 회담 대표단은 또다시 제안의 명칭 따위에 얽매이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양쪽이 다 지난번의 수정제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상대방 제안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한다. 가령 남쪽이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내용을 좇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내용은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미리 못박는다면 포괄적 합의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쪽 또한 선언적으로 내세우는 원칙과 방향에 계속 매달리는 한 실질적인 협의의 문턱을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평화를 만드는 일이 본질 문제의 해결원칙을 선언하는 현란한 수사로 진척될 수는 없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만들기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올해는 서울과 평양이 반드시 '관계개선이 됐건' '불가침'이 됐건 '실질'로 성큼 들어서는 그야말로 '본질'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어느새 분단 46년이 가고 있다. <논설위원>

南北核 대립

1차 총리회담 양측 기조연설 주장 엇갈려

“무조건 査察응하라” “南北동시 사찰하자” — 延홍리

화해 不可侵 교류포괄합의서제의

【서울 23일 특파원 특보】 1차 남북 정상회담이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간 30분간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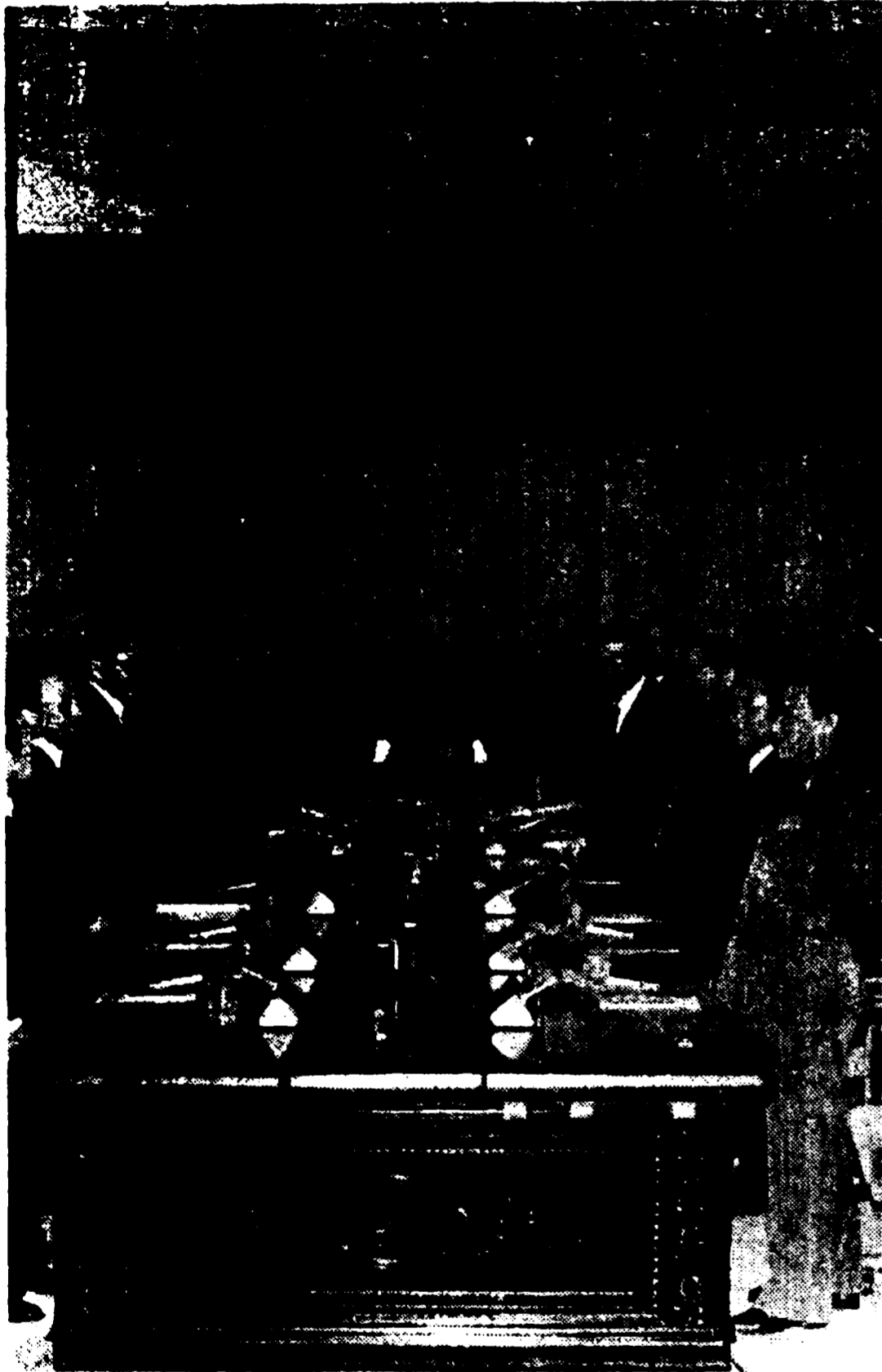
북측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韓國 不可侵-교류 단일案 제시 北韓 非核지대화案 전격제안



10개월만의 再開 10개월만에 재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첫날 공개회의가 23일 오전 10시 평壤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 鄭元植국무총리(左) 등 우리측 대표단이 회의개막에 앞서 延亨默북한정무원총리(右) 등 북측 대표들과 악수를 교환하고 있다. 【平壤=金周晚기자 駱駝】

南北 제안 명칭과 내용

구분	南	北
명칭	不可侵·교류·단일안	非核지대화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위협 제거 · 남북교류 증진 · 단일국가 건설 · 경제·문화·스포츠 교류 · 핵무기 개발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 보유 불가 · 핵실험 금지 · 핵무기 개발 중단 · 핵무기 보유 불가 · 핵실험 금지 · 핵무기 개발 중단
기타 제안	핵무기 개발 중단	보안협정 체결, 핵무기 보유 불가

3通委·상주대표부 설치 美軍核철수후 南北사찰

양측총리 첫기조연설

【평양=연합통신】북한은 23일 평壤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첫날 공개회의에서 양측총리(左·右)가 첫기조연설을 하였다. 양측총리는 회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延亨默북한정무원총리의 기조연설을 들었다. 새로운 양측총리 연설은 회에서 그 동안 남북관계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양측총리는 회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延亨默북한정무원총리의 기조연설을 들었다. 새로운 양측총리 연설은 회에서 그 동안 남북관계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비핵지대화안을 전격적으로 내놓아 회담전망이 밝아졌다. 양측총리가 제시한 3개조항은 16개조항으로 구성된 단일안에서 3개조항만 남기고, 「3通안」과 「3通안」의 내용을 담은 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총리는 회에서 鄭元植국무총리와 延亨默북한정무원총리의 기조연설을 들었다. 새로운 양측총리 연설은 회에서 그 동안 남북관계의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루어진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거두어먹고만 못하면 평양이 배민락

“새로운 목적지 함께 감시다”

鄭총리 “내고향 재령쌀밥 맛좋았다”

교예단 大田무역박람회서 공연하면 큰성과 거들것, 北측배포기조연실문 金주석 이름에만 고덕체사용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왼쪽)가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오른쪽)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총리는 “내고향 재령쌀밥 맛 좋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총리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왼쪽)가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오른쪽)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총리는 “내고향 재령쌀밥 맛 좋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총리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왼쪽)가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오른쪽)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총리는 “내고향 재령쌀밥 맛 좋았다”고 말했다.

이 무렵이 되었으며,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왼쪽)가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오른쪽)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총리는 “내고향 재령쌀밥 맛 좋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총리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왼쪽)가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오른쪽)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총리는 “내고향 재령쌀밥 맛 좋았다”고 말했다.



북한 무용수들이 22일 저녁 평양 목민관에서 열린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오른쪽)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총리는 “내고향 재령쌀밥 맛 좋았다”고 말했다.

이 무렵이 되었으며,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왼쪽)가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오른쪽)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총리는 “내고향 재령쌀밥 맛 좋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총리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왼쪽)가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오른쪽)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총리는 “내고향 재령쌀밥 맛 좋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총리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왼쪽)가 평양에서 열린 대동강 배민락 행사에 참가한 김대중 총리(오른쪽)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김대중 총리는 “내고향 재령쌀밥 맛 좋았다”고 말했다.

「화해-不可侵-교류」 단일案件 채택 합의

“核개발 포기 무조건 査察응하라” 鄭총리 한반도非核지대 선언 전격제안

南北총리 1차회담

【서울=연합통신기자】남북총리 1차회담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다. 양측은 회담이 24일 오후 12시 30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남북총리회담을 위해 서울로 들어오는 김대중 총리 (앞줄)와 김원웅 북한총리 (뒤줄)의 모습. 양측은 2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회담을 시작한다. (이-경-이-영-우-김-원-웅-김-대-중)

【서울=연합통신기자】남북총리 1차회담이 23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린다. 양측은 회담이 24일 오후 12시 30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남북총리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4대 원칙(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기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증진, 군사문제 해결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총리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4대 원칙(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기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증진, 군사문제 해결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총리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4대 원칙(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기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증진, 군사문제 해결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총리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4대 원칙(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기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증진, 군사문제 해결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총리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4대 원칙(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기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증진, 군사문제 해결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총리회담은 양측이 합의한 4대 원칙(화해·불가침·교류·협력)을 기본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증진, 군사문제 해결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南-北, 議題 단일화에 합의

「화해」「불가침」 文句 순서 싸고 심야 절충

언론 개방·가족 결합 포함

고통·통신 연결 등 21개 항목

平壤 고위급 회담

【평양 21일路透기자】南北
회담 23일 오전 평壤인
민회관에서 서제 4차 고



◇회담 전 인수

23일 오후 1시 남측 대표단인 양기승 대령이 남측 인사 10여명을 태운 차량이 북한 고위급 회담장에 도착했다. 남측 대표단 1차 중재회담(서제 4차)을 위해 평壤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남측 대표단 1차 중재회담장에 도착했다.

위급 회담의 1차 중재회담을 치러 남북 화해(중재)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화해(중재)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화해(중재)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화해(중재)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화해(중재)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회담은 남북 고위급 회담(중재)을 실시했다.

화해·불가침·교류협력 포괄

남북 '의제 단일화' 원칙 합의

4차 고위급회담 명칭·내용 오늘 계속 절충

북한, 비핵지대화 긴급제안

[평양-김성수 기자] 남북한은 23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4차 고위급회담 첫회의를 열어 남북 화해(정치적 신뢰구축), 불가침 및 교류협력 등 그동안 논의됐던 3개 안건을 하나로 묶어 단일 합의를 채택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에 따라 남북대표단 숙소인 백화위초대에서 이날 오후 6시부터 6인 실무대표 회담을 갖고 단일문건의 명칭과 세부 내용에 대한 절충을 벌였다.

<관련기사(2·3·4면)>

실무회담에는 남쪽에서 송한호 통일원차관·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이동복 대변인, 북쪽에서는 최우진 외교부 순회대사·백남준 조평통 서기국장·김영철 인민무력부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공개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와 연행목 정무원총리의 기초연설을 통해 각각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북남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이라는 포괄적 단일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그동안의 회담에서 제기돼온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에 대한 방안들을 단일 문건으로 만든다는 진전된 합의를 끌어냈으나, 북쪽이 이날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을 별도로 내놓아 양쪽의 합의안 내용을 절충해 채택하기까지는 상당

한 진통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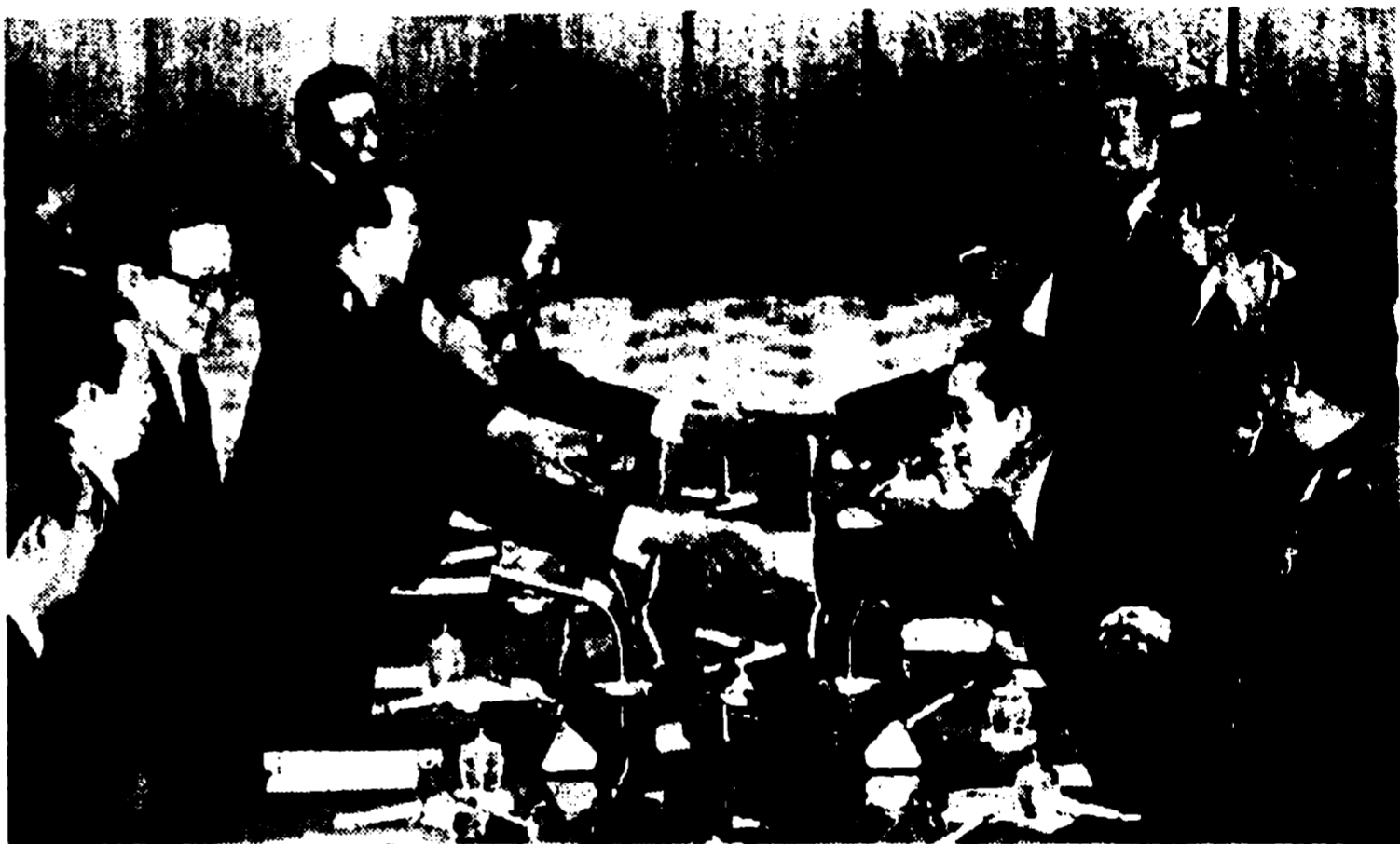
정원식 총리가 제시한 포괄적 단일 합의서 안은 언론매체의 상호 개방교류, 이산가족의 재결합, 휴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 남북 관계개선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 총리는 또 불가침 문제에서 △무력 불사용 △침략·파괴·전복행위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기본사항과 불가침 이행의 보장조치 7개항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연행목 북한 총리는 불가침의 기본조항과 상대방 파괴·전복행위 금지 등 화해 방안, 남북간 교통체신망 연결, 이산가족 교류해소대책 강구 등 모두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단일 합의안을 새로 제시했다.

연 총리는 이들 제안의 구체적 이행 대책을 합의하기 위해 남북 군사·정치·협력교류 등 3개분과위를 만들어 운영하자고 했다.

연 총리는 그러나 단일 합의안 제시에 앞서 긴급제안으로 9개항의 비핵지대화에 대한 선언안을 내어 △핵무기의 시험·생산·반입·소유·사용 금지 △한반도내에 핵무기 배치 및 핵무기 탑재 비행기·함선의 영공·영해통과와 착륙·기항 금지 △핵무기의 전개·저장 및 핵우산 협약의 체결 금지를 주장했다.

연 총리는 특히 미군 철수와 핵기지 철해, 미군 핵무기 철수



23일 오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첫날 공개회의에 들어가면서 양쪽 대표들이 악수하고 있다. **<평양-진정영 기자 전송>**

를 확인하기 위한 남북한 동시 핵사찰을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안은 미국과 한반도 주변 핵무기 소유국들의 핵위협 금지를 위한 대외적 조치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 구정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쪽 정 총리는 기초연설에서 "귀측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평화와 관련한 귀측의 제안이나 방안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대표들은 24일 오

전 10시 인민문화궁전에서 비공개 2차회의를 갖고 양쪽 수석대표의 기초연설을 통해 제시된 단일 합의서안 내용 및 6인 실무대표 접촉에서 논의된 내용을 절충한다.

고위급회담 오늘 일정

- ◇10:00 제2일 회담(인민문화궁전)
- ◇15:00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참관 및 관람
- ◇17:20 평양 제1백화점 참관
- ◇19:30 최고인민회의 의장 주최 연회(인민문화궁전)

社說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혁

대한공공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점 찾기 어렵다

—정당의 분규가 계속되고

社說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분명히 하고,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統一 統一 統一 統一 統一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대표하는 인물인 김일성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1制度·1政府」역전조성되면 실현가능 유엔동시加入은南北관계에 긍정적 기여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安熙洙 북한도피의 계명제하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은 主體的 역량으로 해결 不可侵 담보장치로 軍縮제안

북한은 통일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고위급회담 남북 제안



인민배우 문애봉과 만나 23일 오후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연행복 북한 총리의 안내로 평양 시내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방문한 정원식 총리가 인민배우 문애봉(왼쪽)씨와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 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남과 북은 무엇보다도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야 하며 특히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북의 동포에게 고통과 그 해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귀족이 '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말하면서 남북이 상이한 두 제도간의 평화공존을 언급한 것은 어느 정도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귀족이 말하는 '2제도 2정부'는 어디까지나 평화통일과 민주통일의 길을 닦아나가는 과도적인 것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간다. 쌍방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경쟁 지양 및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제7조: 쌍방은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

보전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9조: 쌍방은 자유로운 통행·통신과 통상 및 경제협력을 지원 보장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쌍방은 국제무대에서 의 경쟁과 대결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이익과 자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1조: 쌍방은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제12조: 쌍방은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남북정치군사분과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본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 해결한다.

제13조: 본 합의서는 쌍방이 이미 각기 체결하여 발효중인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이나 협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수정할 수 있다.

제15조: 본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쌍방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상호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안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아시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북과 남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다.

제2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영내에서 핵무기의 배치, 시험, 제조, 가공, 운반, 사용, 폐기, 처분 등을 금지하며 핵무기를 적재했거나 적재할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또는 영해 통과, 착륙 및 기항을 금지한다.

제3조: 북과 남은 자기지역의 핵무기의 전개, 저장, 운송, 폐기, 처분, 핵무기의 제공을 받는 그 어떤 협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하지 않는다.

제4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영내에서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정한 일체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

제5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기지를 철폐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한다.

제6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수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국제조약 상 요구에 기초한 핵 동시 사찰의무를 이행하며 비핵지대화선언을 내외에 공포한다.

제7조: 북과 남은 미국과 조선반도 주변의 핵무기 보유국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조선반도 비핵지대의 지위증명을 위한 대외적 조치를 취한다.

제8조: 북과 남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를 빠른 시일 안에 만든다.

제9조: 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북남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안

1. 북남 불가침 제1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범하지 않는다.

제2조: 북과 남은 의견상의 이분설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지금까지 고위급회담을 순조롭게 진척시켜고 서로의 의견차이를 근시시시 못한 데는 가지 주. 객관적인 원인으로 여기에는 '팀 퍼리트' 합동군사연습 같은 불안요인과 회담하는 잘못된 입장과 세와 같은 깊은 요인 작용하고 있다.

북쪽 연총리

체제가 바탕으로부터 너졌다'고 하면서 유행어처럼 되풀이되는 귀족의 현 정세에도 부합되지 않고 관계를 공존과 동반자적이라고 한 귀족의 선언도 배치되는 매우 시오적이고 자가당착적 것이라는 데 대하여 스텁하게 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상사람들에게 큰 격을 준 지난 4월12일 귀족 군사당국자의 '선제타격' 발언은 그에서도 우리에게 대한 부담증만 도발이었다. 상대방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발언은 단순히 대결을 조장하는 데는 것이 아니라 전전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

비핵지대화 및 불가침

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6조: 북과 남은 불가침의 약속을 이행하며 군사대치상태 해소대책을 협의 체결 군사공동위원회를 선언, 발표하고 2개월안에 성, 운영한다.

제7조: 북과 남은 불가침을 존중하기 위한 대외적 조치를 강구한다.

2. 북남 화해 제8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 존중한다.

제9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10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지한다.

제11조: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각계 인사들과 동포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 95년 통일元年 되도록 ◆

북한은 95년 통일元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95년이 통일元年 되도록"

平壤총리의 회담이 먼저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北제의 실무회담과 한때舌戰 한배 탔으니 새목적지 함께 가자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영화촬영소 방문 23일 하오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후 鄭元植총리가 延孝欽북한총리와 함께 평壤 시내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방문, 인민배우 文赫赫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平壤거리의 나뭇꾼 外貨법이 득려구호, 北韓의 어려운 외환사정을 엿보게 해준다. <平壤=鄭補泳 攝>

고향 寧 살로 아침 잘 먹어

移動매마다 鄭·延총리 동승 「즉석 단독회담」 눈길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북한은 95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리의 슈머마켓에 해당하는 주변의 한식으로 판매대(가게)에서 평壤주부들이 물건들 사고 안경을 쓴 신사의 모습이 이채롭다. 【平壤—崔東完기자】



우리측대표단이 23일하오 평壤형제사수구에 있는 조선예술문화공연소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平壤—崔東完기자】

한국의 예술공연은 양쪽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문화교류의 창구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을 통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친선과 우애의 정이 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두總理 승용차 즉석 단독회

양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두 정상은 승용차를 타고 즉석에서 단독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부채춤 공연 23일 하오 우리대표단을 위해 평壤민수대에 있는 공연장에서 열린 합창 및 무용공연에서 북한무용수들이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다.

鄭“새목적지까지 같이 가자” 延“95년이 통일元年 되도록”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과 통일에 대한 공동 의지를 밝혔다. 양측은 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민들 사이에 친선과 우애의 정이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국민들 사이에 친선과 우애의 정이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4차 고위급회담 1차회의 안팎

악수하며 회의 시작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1차 회의는 23일 오전 10시 정각 양쪽 대표단이 회담장인 인민문화궁전 대회의실 북쪽 문과 남쪽 문으로 동시에 입장해 회담장 중앙 탁자 앞에서 악수를 나누면서 공개리에 시작했다.

양쪽 수석대표들의 인사말과 환담을 거쳐 오전 10시10분께 정식 논의에 들어간 1차 회담은 북쪽 연행목 총리의 1시간20분에 걸친 기조연설과 40분 동안의 남쪽 정원식 총리의 기조연설 모습 이 폐회회를 통해 회담장 각 방에 중계됐다.

정 총리=강 전 총리는 그가 갈 목적지까지는 다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까지 같이 가도록 합시다.

연 총리=세번의 회담이 성과 없이 아까운 1년을 허비했습니다. 분열을 반세기나 끌지 맙시다. 95년이 민족통일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정 총리=1·2·3차 회담이 가시적 성과가 없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담에 임합시다.

연 총리=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합시다. 회담을 시작합시다. 관계에 따라 내가 사회를 맡고 앞서 발언하겠습니다.

단이 평양에 도착이란 두줄 제목의 기사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이 기사에서 남쪽대표단의 평양도착 사실과 도착성명 내용만을 간단하게 취급했다. <로동신문>은 또 북쪽 대표단의 이름과 직함을 모두 소개했으나 남쪽대표단은 정원식 총리만 '총리' 호칭을 댄 채 소개했을 뿐 나머지 대표단은 아예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남쪽대표 도착사실 보도

정무원 기관지 <민주조선>도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인용해 2면 오른쪽 중간에 3단 크

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모시고 통일의 광장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가 문씨에게 "통일을 위해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문씨는 "그런데 남한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군요. 학생들을 석망치로 때리고 임수정을 가렸으며 국방장관인가 뭔가 하는 사람은 폭공대를 보내 복을 치겠다니..."라고 되받았다.

이에 정 총리는 "그들이 구속된 것은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연 총리에게 통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부탁해 보라"고 당부했다.

문씨가 말꼬리를 계속 잇자 북쪽 안내원이 문씨에게 "정 총리 선생이 인사를 하시겠다니 반갑다"고 제지해 가까스로 말문을 막았다.

"도중에 내리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갑시다"

두 총리 촬영소 방문길 '즉석회담' 눈길 문예봉씨, 정총리에 남한쪽 구속자 따져

◇...양쪽 수석대표들은 기조연설에 앞서 약 10분간 공해문제와 회담에 임하는 각오 등을 화제로 환담했다.

아까운 1년 허비

연 총리=어젯밤 편안히 쉬셨습니까.

정 총리=북쪽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밤이 하도 좋아 어디 쌀로 지었느냐고 물었더니 재령쌀이라고 합니다. 내 고향이 바로 그 재령인데 그 쌀이 예전부터 워낙 좋죠. 평양의 첫 밤은 싸늘한 밤이었습니다.

연 총리=한마음 한뜻으로 잘해 나갑시다. 강영훈 전 총리는 지난번에 나하고 약속한 것을 어겼습니다. 도중에 내리지 말고 목적지까지 같이 가자고 했는데 도중에 내려버렸습니다. 정 선생은 나하고 한배를 탔으니 끝까지 같은 방향으로 함께 노 저어 갑시다.

◇...이날 회담장에는 남북한 기자 1백여명과 중국·일본 등의 신기자 20여명도 취재했다.

취재진은 양쪽 대표단을 중심으로 남쪽 기자들이 북쪽 대표단 방향에, 북쪽기자 및 평양주재 외신기자들이 남한대표단쪽에 각각 자리잡았는데 이는 최봉춘 북쪽 책임연락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남북 연설문 함께 배포

한편 양쪽 대표단은 수석대표들의 기조연설문 배포 시점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는데 양쪽은 첫 기조연설자인 연행목 북한 총리와 발언이 시작된 오전 10시 20분쯤부터 일제히 배포했다. 북쪽이 배포한 연 총리 기조연설 유인물 가운데 김일성 주석 이름만은 모두 고딕체를 사용했다.

◇...23일자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1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가로 3단 크기의 '제4차 남북 고위급회담에 참가할 남쪽 대표

기 제목을 달아 남쪽 대표단의 평양도착 사실과 연 총리 주최 만찬소식을 보도했다. <민주조선>은 그러나 정 총리의 만찬사 답사 내용은 소개하지 않고 연 총리의 인사내용만 보도했다.

북쪽 안내원 말문 제지

◇...고위급회담 1차회의가 끝난 뒤 정 총리를 비롯한 남쪽 대표단 일행은 연 총리 등 북쪽 대표단과 이날 오후 평양시내 형제산구역에 있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를 방문했다.

정 총리는 일본 거리를 재현해 놓은 세트장에서 마침 <민족의 운명>이란 영화에 출연중인 북한 인민배우 문예봉(79·여)씨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환담했다.

6·25 전에 월북한 문씨를 소개받은 정 총리가 "아직도 현역이 시군요"라고 인사를 건네자 문씨는 정 총리에게 "난 평생 절절한 소원이 하나 있지요. 남조선 동포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

정 총리는 촬영소 관람을 마친 뒤 늘어서 있던 영화 <꽃피는 처녀>의 주인공인 인민배우 홍영희씨와 김영민, 김정화씨 등과도 악수를 나누고 잠시 환담했다.

북한쪽은 그러나 성균관대, 고려대 등 남한 대학가의 건물을 재현해 놓은 세트 거리는 안내하지 않았다.

이날 촬영소 관람 때는 이동할 때마다 정 총리와 연 총리가 같은 차에 타고 '즉석 단독회담'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야외세트장 관람을 마친 정 총리 등 남쪽 대표단 일행은 이어 만수대 예술극장으로 직행해 1시간20분 동안 평양예술인들의 합창과 무용을 참관했다.

공훈배우인 소프라노 조혜경씨가 <통일아, 통일아>를 독창할 때는 실내를 가득 채운 북한 관중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평양=김성수 기자>

平壤 總理의 成果와 전망

북한의 수석장관인 영남 박 4차 대북회담을 통해 합의된 4차 대북회담을 통해 영남 박 합의 의정서를 통해 북·남은 합의 의정서를 합의했다.

영남 박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 북한측이 영남을 통해 합의된 4차 대북회담을 통해 영남 박 합의 의정서를 통해 북·남은 합의 의정서를 합의했다.

북한측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北의 核문제 제기는 "물씨" 생산적 結實 기대 회의적

남북 기본視角差 극복이 과제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議題」 합의로 일단 進一步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측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영남의 합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總理기정진에게 3항기「南北 합의 영지」

南北 합의서 형식은 일치 내용엔 異見

양측 합의서 합의서... (Vertical text on the left margin)

정진에게 3항기... (Text block on the right side, top)



제4차 남북회담공동성명... (Caption for Kim Jong-il)



김대중은 합의서... (Text block on the left side, top)

하가... (Text block on the right side, middle)

不可侵보장장치등 北언급 없어 北의 3개항 先決조건도 걸림돌

「單一文件」본격토의 기본여건 마련-관계개선 진일보

김대중은 합의서... (Text block on the left side, middle)

의 주역한... (Text block on the right side, bottom)

우선 「불가침」부분과... (Main body text at the bottom)

「議題한두음」 진전... 근본視角差 여전

南北 「단일무기선 채택」 원칙 합의 배경-적망

제4차 남북회담이 23일 평壤에서 개막한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단일무기선 채택」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제적으로 언제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북측은 23일 평壤에서 열린 회담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원칙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 양측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형식」 타결로 「실명」 북이 발판 마련 北核 이슈화... 불가침보장책이 회피

남측은 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북측은 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합의는 남북 양측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公演관람 鄭元植총리등 남측 대표단이 23일 저녁 평壤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북한 예술인들의 음악 및 무용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鄭총리 옆은 북한 인민무력부 金光鎭부부장. 【平壤=林賢燦기자특보】

남측은 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 합의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이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핵문제가 남북회담 “핵” 부각

고위급회담 쟁점 분석

23일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제1차 회의를 통해 제시된 남북한의 기본입장은 양측이 합의문건을 단일안으로 정리하는 등 형식면에서의 진전을 제외하면 불가침선언에 대한 상반된 논리를 중전대로 고수하고 있는 데다 예상대로 북한측이 비핵지대화 선언안을 들고 나오므로써 회담의 성과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북한의 연행목 총리가 이날 기조연설에서 긴급 의제로 제시한 한반도 비핵지대화 문제는 북한측이 지난 7월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제안한 이래 자신의 핵무기 개발과 국제적 핵사찰 거부를 위한 방어책으로 줄곧 주장해온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은 특히 한반도 비핵지대화 선언안을 불가침선언 및 화해·교류 협력안 합의에 앞서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면서도 "최대 급선무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실질적인 면에서는 전제조건임을 분명히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이 교류·협력을 우선하자 는 남측의 기능주의적 접근에 대해 독일식으로 흡수통일하려 한다며 계속 거부감을 보이면서 오히려 남측과 그 동맹국인 미국을 핵문제로 역공하려는 이 2

중전락은 이번 회담의 전망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북한측의 비핵지대화 요구에 대한 남한측의 입장이 '선 핵사찰 수용, 후 핵문제 논의'라는

기존의 방침에서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남측은 북측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종래부터 재기해온 불가침 선언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불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불가침선언의 저의가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휴전협정의 폐기와 북한-미국의 평화협정체결 및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있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지대화안도 미군철수 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고 국제적 핵사찰을 완벽하게 수용한 이후에도, 단지 한반도에 핵무기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핵화'에 관해서만 남북한 협의에 응할 수 있다는 내부적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 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 전체를 비핵화하고 장래에도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비

핵지대화'는 거론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앞으로 공중핵무기를 포함한 주한 미군의 남한 핵이 완전히 철수한 이후에도 미국 핵무기의 영공·영해 통과 및 영토 기차,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보호장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당분간

제안도 남측의 그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남측은 이에 대해 "불가침 합의에 급급하고 이를 대미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 및 핵 철수 등으로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가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쌍방간의 기본적인 신뢰의 토대가 마련돼야 하고 아울러

‘비핵화’ ‘비핵지대화’ 팽팽히 맞서 불가침선언 형식·명칭 일단 접근

변화의 조짐은 희박하다.

결국 한반도 비핵지대화 혹은 비핵화 문제는 이번 회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고위급 회담에서도 최대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불가침선언과 관련된 남북한의 입장도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찾아보기 힘들다. 남측이 1·2·3차 회담에서와는 달리 불가침선언을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단일안 속에 포함해 일괄 타결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형식과 명분면에서 북측에 양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역시 내용 면에서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는 남측의 주장을 감안해 "군사대치상태의 해소대책을 협의할 군사공동위원회를 불가침선언 후 2개월 안에 구성·운영하자"는 식으로 진전을 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러 확고한 보장장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역시 "남조선에서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고 미군이 철수돼야 하며 우리와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거듭 밝힘으로써 남북한 모두 본질적인 면에서의 양보 및 타협의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가침선언 문제와 관련해 이

날 원칙적 의견접근을 본 형식과 명칭 등 기술적 사항에서의 접근이 실질 내용으로까지 확대·발전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북측은 교류협력 분야에 이산가족들을 위한 인도적 대책과 함께 북남협력교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진전된 제안을 하고 있어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등 회담의 합의사항도 출이 기대되고 있다.

연 총리는 또한 불가침선언 및 화해와 협력교류 기본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들 안을 토의와 합의 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채택·서명할 수 있다는 문건 채택원칙과 방법을 제시해 최소한

이 문제를 놓고도 남북한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다는 점도 이번 회담에서 눈에 띄는 성과로 꼽을 수 있겠다. 남북한은 이러한 절차문제에서의 합의를 바

탕으로 6인 실무회담을 따로 열고 단일안의 명칭과 내용에 대해 절충을 시도함으로써 형식과 절차를 둘러싼 오랜 명분 다툼의 짐에서 일단 벗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남북한 직교역 동경제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이 24일 있을 비공개 2차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날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박종문 기자)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제안 내용 비교

구분	남한	북한
명칭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화해·불가침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북남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교류에 관한 선언안
명칭표기순서	화해→불가침→교류·협력	불가침→화해→협력·교류
화해	△상호체제 존중·비방 중지 △내부문제 불간섭 △언론매체의 상호개방과 교류 △이산가족 재결합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상주 연락 대표부 설치	△상호 사상 제도 존중·비방 중지 △내부문제 불간섭 △각계인사 자유 내왕 접촉 보장 △상대방 파괴·전복행위 중지 △북남 정치분과위 구성
불가침	△침략·파괴·전복행위 금지 △분쟁의 대화·협상 해결 △군비경쟁 중지·군사적 신뢰 구축 △현장점중·상주 감시체제 운영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군비경쟁 중지·군속 실현 △대외적 조치 강구
교류·협력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 △육로·해로·공로 개설 △남북통행위·통신위 등 구성	△과학기술 등 성과와 경험 교환 △철도·도로 연결 및 채신망 연결 △출어진가족·친척 고향예스대책
기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체포·부육된 통일인사의 석방 △박성희양 등 무사귀환 보장

南北 화해-불가침-교류 계속논의

板門店 실무접촉 갖기로

「단일文件」명칭·형식·합의의

核·팀스피리트싸고 거듭 논란

平壤측 「단일文件」 명칭에

【단일文件】에 대한 남측의 반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측은 「단일文件」 대신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남측은 「단일文件」이란 명칭이 남북간의 대립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측은 「단일文件」이란 명칭이 남북간의 대립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측은 「단일文件」이란 명칭이 남북간의 대립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북간 실무접촉을 위한 회담 장면. 남측은 「단일文件」 대신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한 합의사항

- ① 남북간 합의서는 단일문건으로 한다
- ② 명칭은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한다
- ③ 단일합의서는
 - △서론
 - △남북화해
 - △남북불가침
 - △남북교류협력
 - △발효조항 등 5개 부분으로 구성한다
- ④ 합의서 내용은 4차 회담이 끝난 뒤 판문점 남북간 대표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을 담는다

남측은 「단일文件」이란 명칭이 남북간의 대립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측은 「단일文件」이란 명칭이 남북간의 대립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平壤총리회담이모처럼



23일 오후 평壤 조선인민혁명군사령관부를 방문한 우리측 대표단의 鄭元勳 총리가 평壤총리회담이던 北韓인민보우 文德善씨(女·79)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北韓의 鄭元勳총리. [주필=한겨레기자홍영민]

약속총리 한후타고 즉석회담

1. 평壤에서 열린 鄭元勳 총리 회담은... 2. 鄭元勳 총리는... 3. 鄭元勳 총리는... 4. 鄭元勳 총리는...

南北 새변기 시까지 실무회담의

평壤회담, 인민평화협약인민평화협약인민평화협약

「평양에서 열린 남북 새변기 시까지 실무회담의...」

「평양에서 열린 남북 새변기 시까지 실무회담의...」

「평양에서 열린 남북 새변기 시까지 실무회담의...」

形式합의 성과...내용엔 아직 거리

南北 실천적 선언적

남북 실무회담은... 1. 鄭元勳 총리는... 2. 鄭元勳 총리는... 3. 鄭元勳 총리는...

판문점 실무접촉서 합의 도출 기대

남북 실무회담은... 1. 鄭元勳 총리는... 2. 鄭元勳 총리는... 3. 鄭元勳 총리는...

【주필=한겨레기자홍영민】

南北평화회담 4개항합의 합의

북·남은 10월20일 평양의 평양호텔에서 4개항 합의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1.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2. 남북교류와 협력의 증진, 3.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4. 남북문화·체육교류의 활성화 등이다.

남측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합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남측은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합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남측은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식의 고비는 넘겼다

양쪽 한발씩 양보로 대화 돌파구 내용 어떻게 담느냐가 남측 과제

남측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합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남측은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합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남측은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합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남측은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합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남측은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합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남측은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합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남측은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합의에 대해 "북측이 합의에 동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남측은 합의가 남북관계의 개선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회담前 「합의서」 절충

南北총리 2차회의 곧 板門店서 실무접촉갖기로

남북聯合體구성 강조 美軍철수·非核化 주장

5차회담 12월 10~13일 서울서
우리 대표단 오늘 平壤출발 귀환

【서울 24일 특파원 기보】 남북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인 5차 회담이 24일 오전 평양에서 한가운데 달렸지만, 「합의서」를 둘러싼 4차회담 제5차 실무접촉에서 美軍철수와 북측의 「합의서」에 대한 불가한 합의에 관해 남측이 주장하는 「합의서」의 「합의서」 5차회담 합의였다.



◇5차회담 이전 북측 대표단(왼쪽)과 남측 대표단(오른쪽)이 24일 서울에서 5차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 (왼쪽=북측대표단)

남측 합의서의 명칭과 합의서 내용을 둘러싼 4차회담 제5차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합의서」에 대한 불가한 합의에 관해 남측이 주장하는 「합의서」의 「합의서」 5차회담 합의였다.

남측 합의서의 명칭과 합의서 내용을 둘러싼 4차회담 제5차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합의서」에 대한 불가한 합의에 관해 남측이 주장하는 「합의서」의 「합의서」 5차회담 합의였다.

◇총리회담 공동발표문

남과 북은 1991년 10월 23일에서 24일 기간중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시문제에 대해 합의의 진행을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한 단임기간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분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 구성을 서면-비공식화-비공식화한 남북고위급회담 수정된 합의서로 중간 제4차 실무접촉을 통한 내용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합의서의 내용 및 인간적 교류를 위한 대표정통을 통해 시인간의 단합과 평화의 진과 통일각에서 편입이 개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서울 24일 특파원 기보】 남북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인 5차 회담이 24일 오전 평양에서 한가운데 달렸지만, 「합의서」를 둘러싼 4차회담 제5차 실무접촉에서 美軍철수와 북측의 「합의서」에 대한 불가한 합의에 관해 남측이 주장하는 「합의서」의 「합의서」 5차회담 합의였다.

남측 합의서의 명칭과 합의서 내용을 둘러싼 4차회담 제5차 실무접촉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합의서」에 대한 불가한 합의에 관해 남측이 주장하는 「합의서」의 「합의서」 5차회담 합의였다.

社說

북한 회담의 조기 합의 결과

북한 회담의 조기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 회담의 조기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 회담의 조기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회담의 조기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회담의 조기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회담의 조기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회담의 조기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社說

북한 회담 초기의 합의

북한 회담 초기의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회담 초기의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회담 초기의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회담 초기의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회담 초기의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북한 회담 초기의 합의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계기이다.

【주요뉴스】 1. 김대중 대통령이 25일 서울에서 열린 '91년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다. 2. 서울 지하철 1호선 13개 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 서울대 교수가 '9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4. 서울대 교수가 '9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5. 서울대 교수가 '9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金正宇 北韓대외경제사업副部長 일본인명인

북한외무부 차관인 김정우(金正宇)가 25일 서울에서 열린 '91년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북한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김정우는 북한대외경제사업부 부장인 명인(明仁)의 남동생이다.

— 김정우 부장은 "북한경제는 개방을 통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우는 "북한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先鋒무역지구, 韓國투자 환영

◇ 해외투자 유치 노력
인천광역시와 인천국제공항이 '91년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했다. 인천시는 이번 포럼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외국기업에 관세면제-果實송금 보장
日경협, 修交前이라도 받아들일 용의**

— 한국-일본 무역협정 체결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91년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미국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미국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일본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일본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대한민국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대한민국경제의 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북구도 불우학교

북구도 불우학교... 4월 24일... 4월 24일... 4월 24일...

북구도 불우학교... 4월 24일... 4월 24일... 4월 24일...

심심한 밤에 불우학교

북구도 불우학교

북구도 불우학교... 4월 24일... 4월 24일... 4월 24일...

북구도 불우학교... 4월 24일... 4월 24일... 4월 24일...



大同江邊의 회고... 元祐閣국무총리가 24일...

북구도 불우학교... 4월 24일... 4월 24일... 4월 24일...

7시간 深夜회담서 합의 도출

가톨릭회의 머루酒 서로 권하며 만찬 향토원

북구도 불우학교... 4월 24일... 4월 24일... 4월 24일...

북구도 불우학교... 4월 24일... 4월 24일... 4월 24일...

시민들 '통일' 판박이 이법

대표단·취재진 平壤시가 나들이



북한 대표단과 취재진 10여명이 평壤시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본보=김영환기자특약>

북한 대표단과 취재진이 평壤시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본보=김영환기자특약>

북한 대표단과 취재진이 평壤시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본보=김영환기자특약>

북한 대표단과 취재진이 평壤시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본보=김영환기자특약>

북한 대표단과 취재진이 평壤시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본보=김영환기자특약>

북한 대표단과 취재진이 평壤시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본보=김영환기자특약>

북한 대표단과 취재진이 평壤시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본보=김영환기자특약>

시간 5분뿐, 빨리 질문하라 독촉 주민들 '暴言'에 안내원이 제지도

경남 부산시에서 열린 통일문제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발언권을 요구하며 소리치고 있다. <본보=김영환기자특약>

북한 대표단과 취재진이 평壤시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본보=김영환기자특약>

“홍수통영이었다”에 북 기대표시

南北 청년회담...平壤표정

북 4차 남북청년회담이 24일 평壤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담은 1989년 12월 10일부터 1991년 1월 10일까지 2주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 대표로 김대중, 김기춘, 김기현, 김기태, 김기영, 김기현, 김기태, 김기영 등이 참가한다.



◇ 평양백화점의 鄭총리 鄭元植총리가 24일 오후 북측 안내로 평양 제1백화점을 방문, 여직원에게 북한 가품을 물어보고 있다. 【平壤=林賢鏡기자】

“서울회담 지켜보자”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南北「역사적성과 거뒀다」만족

실무접촉선「와」「싸고」논란끝정회도

백화점방문 鄭총리에 「統一」실무공세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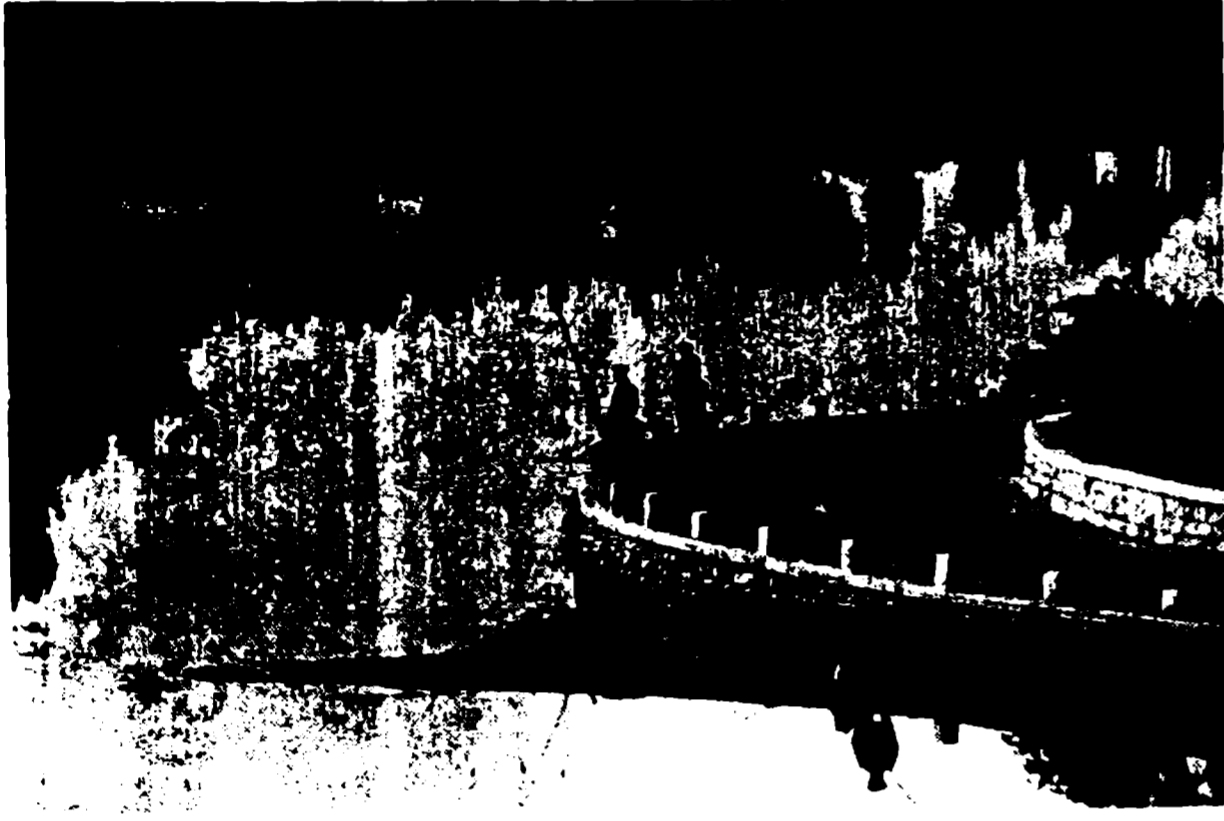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업 '겨우겨우' 마무리

수업이 끝났지만 교사는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업이 끝났지만 교사는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업이 끝났지만 교사는 수업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和氣 萬善장도 意合중소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 '和氣'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和氣'는 '화기'로, '화'는 '화합', '기'는 '기운'을 뜻한다. '萬善장도'는 '만선장도'로, '만'은 '만민', '선'은 '선민'을 뜻한다. '意合중소'는 '의합중소'로, '의'는 '의리', '합'은 '합일'을 뜻한다.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 '和氣'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和氣'는 '화기'로, '화'는 '화합', '기'는 '기운'을 뜻한다. '萬善장도'는 '만선장도'로, '만'은 '만민', '선'은 '선민'을 뜻한다. '意合중소'는 '의합중소'로, '의'는 '의리', '합'은 '합일'을 뜻한다.

鄭 '희망'을 얻었다, '延' '인민'을 '和氣'

秀卿 양, 풀이 주석, '延' '인민'을 '和氣'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 '和氣'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和氣'는 '화기'로, '화'는 '화합', '기'는 '기운'을 뜻한다. '萬善장도'는 '만선장도'로, '만'은 '만민', '선'은 '선민'을 뜻한다. '意合중소'는 '의합중소'로, '의'는 '의리', '합'은 '합일'을 뜻한다.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 '和氣'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和氣'는 '화기'로, '화'는 '화합', '기'는 '기운'을 뜻한다. '萬善장도'는 '만선장도'로, '만'은 '만민', '선'은 '선민'을 뜻한다. '意合중소'는 '의합중소'로, '의'는 '의리', '합'은 '합일'을 뜻한다.

한글로 된 글씨를 보면, '和氣'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和氣'는 '화기'로, '화'는 '화합', '기'는 '기운'을 뜻한다. '萬善장도'는 '만선장도'로, '만'은 '만민', '선'은 '선민'을 뜻한다. '意合중소'는 '의합중소'로, '의'는 '의리', '합'은 '합일'을 뜻한다.

平壤측이 핵문제에 합의의 진심

평안남도·서평양지방에 북한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北쪽 양보는 「변화」의 상징



합의서 작성까지 아직 난관

장기적으론 「核문제」에도 영향받을 듯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실험장 건설을 허가하는 데 합의했다.

제4차 南北총리회담 결산

제4차 南北총리회담이 24일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합의서들」 마련 "첫 可視성과"

北, 이례적 적극극성... 교착에 숨통

對日수교·對美접근 고려속 中·蘇중용 받았을수도

「내용」異夢, 본격 難関 이제부터

갔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순해만 보더라도 사안으로 간 공세 및 국제선전과 對美 주권 독립과 평화의대 한류정착을 위한 노력의대 거둔다는 것이다.



◇대동강변의 鄭총리 鄭元植국무총리가 24일 낮 평壤 유류관에서 오찬을 마친뒤 5·1경기장이 바라다 보이는 대동강변쪽으로 나와 손짓을 하며 주변 시선물들의 이쁨을 들어보고있다. 【平壤—林賢燦기자】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이 회담은 1991년 10월 24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5일간 열렸다.

「통수통일」이런데 「남북평화」에는

平壤 南北총리회담결산

북한은 남북총리회담이 22일 양 평양에서 10일만에 종료된 것을 환영하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회담은 22일 양 평양에서 10일만에 종료된 것을 환영하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회담은 22일 양 평양에서 10일만에 종료된 것을 환영하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북의 對日·對美 접근 필요성이 합의 축적된 單一案 합의까지 「非核시대화」등 장애 많은

북한은 남북총리회담이 22일 양 평양에서 10일만에 종료된 것을 환영하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회담은 22일 양 평양에서 10일만에 종료된 것을 환영하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회담은 22일 양 평양에서 10일만에 종료된 것을 환영하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북-일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회담은 22일 양 평양에서 10일만에 종료된 것을 환영하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북-일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회담은 22일 양 평양에서 10일만에 종료된 것을 환영하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평화가 한반도와 남북 대화에 열풍

북자세 변화조짐보인 高位級회담

제4차 남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한반도 정세는 한층 더 긴박해지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北측, 합의서 명칭 등 우리 제안 그대로 수용 「非核지대화」연계 않는다지만 결림돌 될 듯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측을 상대로 한 '高位級' 회담이라면서, 남측이 회담을 거부하면 회담을 취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루한 '명분싸움' 일단 벗어났다

고위급회담 '5개항 합의' 의미

남북한은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문건의 명칭과 형식 등 5개항에 관해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미있는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대표가 지난해 9월의 제1차 고위급회담 이래 지금까지 합의문건의 수와 명칭 및 채택순서 등 형식문제에 대달려 지루한 명분싸움을 벌여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다.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계속된 6일 실무대표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이렇듯나마 합의하게 된 데는 남북한 양쪽의 국내상황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쪽이 합의문건의 형식과 관련, '선언'이라는 주장을 철회해 남쪽이 내세운 '합의서'안에 동의해 주고, 아울러 법적·제도적 장애물이라고 폐지를 요구해온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철회한 것은 매우 중요한 양보로 보인다.

특히 북쪽은 23일의 연행록 총리 기조연설을 통해 긴급외교로 제시한 비핵지대와 선언안에 대해서도 예초 의제인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과 연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24일의 비공개회의 직후에 있는 기자회견에서 안병수 북쪽 대변인도 확인한 사항으로 고위급회담 진전의 최대걸림돌이 되리라는 남쪽의 우려를 일단은 해소해 준 것이다.

이러한 북쪽의 성의와 양보는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희망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담에 참석한 남쪽 대표의 분석이다. 북한 지도부는 일본과의 수교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남북대화에서 융통성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의 경우만 하더라도 '남북대화'의 의미 있는 진전'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교섭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양보와 성의있는 자세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지도 하다. 반면에 남쪽은 불가침부분을 단일안에 포함시키고 통행·통신·통상과 관련해 '3통'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합의서안을 내놓은 것 말고는 회담과정에서 새롭게 양보한 것이 거의 없었다.

남쪽은 또 이번 회담에서 12월 10일 서울에서 열기로 한 5차회담 이전에 평화의 집(남쪽)과 통일각(북쪽)에서 번갈아 합의서 내용과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협상을 갖기로 했으며, 이 협상에서의 문안합의 여부를 5차회담 개최와 연계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5차회담 개최일정을 확실히 못박아 두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의 절차·형식문제에 관한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하고 합의서 채택까지는



고위급회담 이틀째 회의를 마친 정원식 총리가 24일 오후 평양시내 제1백화점을 방문해 옷가게에서 옷감을 만지며 점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평양=진정영 기자 전송 연합>

북쪽 대폭양보로 돌파구 마련 '비핵지대화' 걸림돌 우려 해소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합의서의 실질내용만 해도 남북한은 입장과 기본자세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합의서 내용 가운데 화해부분을 보면 남쪽은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등 언론매체의 개방과 상주대표부 교환설치 그리고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 구체적인 비중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의 인정 및 존중 등 일반사안을 중시하고 있다. 남쪽이 북한의 개

방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필수 불가침을 억제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자신의 체제·이념을 지켜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불가침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쪽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조항을 비롯해 △군사정보 상호교환 및 군인사 상호교류, 훈련참관단 초청 △현장검증과 상주감시체계 교환운영 △군사적 경쟁 중지 및 군축실현 등의 선

연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교류협력부문에서는 남쪽이 통행·통신·통상 및 경제협력 지원 보장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북쪽은 과학·기술·교육 등 각 분야의 성과와 경험, 교환협력 및 국제무대 경쟁지양과 공동대의진출을 제시하고 있다.

불가침 등 3개 부문에 걸친 남북의 제안내용이 이렇게 격차를 보이고 있는 데는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서로의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드러났듯이 북쪽은 남쪽의

통일방식에 대해 이를 독일식 흡수통일 시도로 인식하면서 우려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우선해야 한다는 북쪽의 종전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고 남쪽이 흡수통일에 대한 북쪽의 우려를 불식시켜주지 않는 한 5차 고위급회담에서도 획기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북쪽이 이번엔 제외한 내용 가운데는 남쪽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항목이 상당히 많아 몇가지 부분에서는 의의 합의도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산가족문제의 경우 남쪽이 제시한 대로 자유왕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된 수준에서의 고향방문 정도는 합의가 기대되며 군당국자간 직통전화 개설, 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해의진출, 군축분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군축회담 개최 등에서도 의견집단이 기대된다. <박종문 기자>

신통成果향한 계기」 마련

4차 총리회담 결산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4차 남북 총리회담이 24일 서울에서 4일째인 24일 오후 12시 30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은 2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과 23일 하루 24시간씩 진행됐다. 회담은 24일 오후 12시 30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은 2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과 23일 하루 24시간씩 진행됐다. 회담은 24일 오후 12시 30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은 2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과 23일 하루 24시간씩 진행됐다.

회담은 24일 오후 12시 30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은 2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과 23일 하루 24시간씩 진행됐다. 회담은 24일 오후 12시 30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은 2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과 23일 하루 24시간씩 진행됐다. 회담은 24일 오후 12시 30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은 2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과 23일 하루 24시간씩 진행됐다.

北對日수교절박 분위 조성 「形式」해결불구 「內容」엔먼저리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4차 남북 총리회담이 24일 서울에서 4일째인 24일 오후 12시 30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은 2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과 23일 하루 24시간씩 진행됐다. 회담은 24일 오후 12시 30분 종료됐다. 이번 회담은 2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시작됐으며, 22일과 23일 하루 24시간씩 진행됐다.

◇대표접촉에서의 南北입장 대비

	우 리 측	북 측
화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남방체제 존중 ▲신남방 라디오·TV 송출 ▲신남방 체제 존중 ▲신남방 체제 존중 ▲신남방 체제 존중 ▲신남방 체제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신남방 사상제도 인정

時論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4월 25일 『조선일보』에 실린 「북한이 평양의 변혁을 기대한다」는 기사를 읽고 평壤 4차南北총리의담을 보고

이런 점에서 평양의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양의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양의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북이 평양의 변혁을 기대한다

平壤 4차南北총리의담을 보고

廉仁德



【서울 24일 특파원 특보】 4월 25일 『조선일보』에 실린 「북한이 평양의 변혁을 기대한다」는 기사를 읽고 평壤 4차南北총리의담을 보고

이런 점에서 평양의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양의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양의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다.

<특파원특보>



南北건배 24일 저녁 평壤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楊亨燮 北韓최고회의 인민회의 의장 주최 만찬에서 鄭元植총리(左)와 北韓의 延亨默총리가 건배하고 있다. 중앙은 白仁俊 北韓최고인민회의 부의장. <平壤=金事万기자>

總理의 남북회담대표단 歸京

오늘 오전

“南北 첫 합의 이뤄 기쁘다”

【平壤=黃在弘·板門店=朴濟均기자】平壤서 열린 제4차 南北고위급회담에 참석했던 鄭元植부총리 등 회담대표 7명 수행원 기자 등 南측대표단 90명이 25일 板門店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9일 회담장기사>
 鄭元植 부총리 등 南측대표단 90명 등 南측대표단 90명이 25일 板門店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鄭元植 부총리 등 南측대표단 90명 등 南측대표단 90명이 25일 板門店을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이날 회담에서는 △고위급회담에서 채택한 합의서의 명칭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하고 △합의서를 29일부로 발효하며 △합의서 1항을 1항으로 하는 등 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협의했다.

또 이번 회담에서는 南측이 북한에 대한 「북한인」 미해치대화 선언(합의서)과 「고위급회담사상 처음으로 韓半島 핵무체가 본격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南측이 추진했던 金日成북한부총리와 鄭元植의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회담은 진지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졌다. 「우리는 南측대표단 대표를 비롯한 수석대표와 함께 합의서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鄭元植 부총리는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축하하며, 이번 회담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어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북부지방의 갯벌의

社說

북부지방의 갯벌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경지로서, 특히 쌀 생산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갯벌의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염분 농도의 증가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부지방의 갯벌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경지로서, 특히 쌀 생산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갯벌의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염분 농도의 증가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부지방의 갯벌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경지로서, 특히 쌀 생산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갯벌의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염분 농도의 증가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부지방의 갯벌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경지로서, 특히 쌀 생산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갯벌의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염분 농도의 증가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부지방의 갯벌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경지로서, 특히 쌀 생산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갯벌의 면적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가 높아져서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염분 농도의 증가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갯벌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는 갯벌의 염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양리 이례적 평壤驛전승



24일저녁 평壤인민문화공전에서의 만찬이 끝난후 鄭元禧총리(중)가 양원자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平壤=金華萬기자촬영>

평양리 이례적 평壤驛 전승

평양리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저녁 8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서울서도 잘해보자” 웃음띤 자별

平壤문화점 방문 鄭총리의 「統一」 건담귀국

평양리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저녁 8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평양리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저녁 8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평양리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저녁 8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평양리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저녁 8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평양리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저녁 8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평양리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저녁 8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평양리에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이 24일 저녁 8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양측 대표단은 24일 오후 11시 30분경 평壤驛에서 1시간 30분간 열렸다.

"성과 거뒀다" 南北 한목소리

남북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남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이 합의는 남북 양측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남북 양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왼쪽)과 남한 최고지도자 김영삼(오른쪽)이 1991년 10월 25일 평壤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목적지까지 멈추지 말아야... 핵무기 개발 중단

남북 양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제적으로 이행되려면 양측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특히 북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제적으로 이행되려면 양측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남북한 제안의 주요내용

분야	남	북
핵무기	▲인간-합인간-14개항 ▲인간-합인간-14개항 ▲인간-합인간-14개항	▲상대방 사정에도 인정 ▲상대방 사정에도 인정 ▲상대방 사정에도 인정
군사	▲군사행위 전면 중단 ▲군사행위 전면 중단 ▲군사행위 전면 중단	▲군사행위 전면 중단 ▲군사행위 전면 중단 ▲군사행위 전면 중단
외교	▲외교행위 전면 중단 ▲외교행위 전면 중단 ▲외교행위 전면 중단	▲외교행위 전면 중단 ▲외교행위 전면 중단 ▲외교행위 전면 중단
경제	▲경제협력 전면 중단 ▲경제협력 전면 중단 ▲경제협력 전면 중단	▲경제협력 전면 중단 ▲경제협력 전면 중단 ▲경제협력 전면 중단
문화	▲문화협력 전면 중단 ▲문화협력 전면 중단 ▲문화협력 전면 중단	▲문화협력 전면 중단 ▲문화협력 전면 중단 ▲문화협력 전면 중단
기타	▲기타협력 전면 중단 ▲기타협력 전면 중단 ▲기타협력 전면 중단	▲기타협력 전면 중단 ▲기타협력 전면 중단 ▲기타협력 전면 중단

남북 양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제적으로 이행되려면 양측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특히 북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제적으로 이행되려면 양측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남북 양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제적으로 이행되려면 양측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특히 북측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제적으로 이행되려면 양측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평화협상을 추진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4차南北총리회담 결산·전망

○ 4차 남북총리회담이 24일 서울에서 24일째로 막을 내렸다. 이번 회담은 1991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15일간 열렸다.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제부터 「實質」長征



“화합을 위하여...” 鄭元勳총리와 延平默복한총리가 24일 저녁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의장부 회 인민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주최=金澤統報파워>

○ 이번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완전한 타결위해 核문제 해결 필수

남의 「우연」·북의 「적극」이 結實추진

○ 이번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담은 4차 남북총리회담의 결산과 5차 남북총리회담의 전망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합의서 絶충 첫 成果

제 4차 南北총리회담 결산

남북 4차 총리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남북 4차 총리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남북 4차 총리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남북 4차 총리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남북 4차 총리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北측 日-美수교 거부 주장 근거

보안법 철폐 필요 주장 약행서

관문점철북선 3通등 거양차고 北관동장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북측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4차 회담은 24일 12시 30분경에 이르러 4차 회담이 막을 내렸다.

<속보>



‘잘 다녀왔습니다.’ 제4차 南北고위급회담 평壤회담에 참석했던 鄭元植 국무총리동 남측 대표단이 25일 오후 板門店 남측 지역의 ‘평화의 집’에 도착, 꽃다발을 증정받고 귀환인사를 하고 있다. <板門店=兪光善기자>

이젠統一위한 본격적 대비를

總理회담대표단 어제 歸京

제4차 南北고위급회담 평壤회담을 마친 鄭元植 국무총리동 남측 대표 7명, 수행원 기자 등 25일 오전 9시 平壤을 출발, 이날 오후 1시 10분 板門店을 통해 귀환했다. 李東敏 평壤회담 板門店 도착선명 의석 우리 대표단 이번 平壤방문은 평화의 집 한 방도 평화의 집 있다는 화시

구했다며, “우리는 이제 통일을 위해 본격적인 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점의 와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案件 채택 합의 기대한다 화 김영삼 盧대통령 盧대통령은 25일 오후 4차 南北고위급회담 대표단으로부터 이번 平壤 회담의 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 12월 5차 서울회담

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연성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盧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의 해소와 교류·협력실시문제에 대해 단일案件이라 합의서를 채택키로 합의한 것이 남북대화의 진원지를 가진 것이라 평가했다.

北韓과의 감지 鄭총리 T-V회담 鄭元植 국무총리는 25일 이번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북측의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鄭총리가 이날 저녁 KBS TV의 특집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이번 회담에서 합의서의 명칭과 구성 등 관해 합의한 것 이외의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의 평화적 인 자세와 북측의 변화가 용합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회담前 非核化선언 검토

盧대통령 구체結實있게 유연성 당부

“南北합의사항평가할만 統一첫걸음되게 노력하라”

서울회담 대표단 報告인사

【서울 25일 AP통신】 서울에서 열린 남북회담 대표단 간담회에서 양측 대표단은 25일 서울에서 회담을 마치고 각자 본국으로 귀국했다. 양측 대표단은 회담 기간 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냈으며, 특히 핵무기 문제에서 양측이 상호 이해와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회담은 양측이 12월의 제5차 서울회담에서 더욱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盧泰愚 대통령이 25일 하오 鄭元植국무총리 등 제 4차 南北고위급회담 우리 측 대표단을 접견, 12월의 제 5차 서울회담에서 더욱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회담은 양측이 12월의 제5차 서울회담에서 더욱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양측이 12월의 제5차 서울회담에서 더욱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양측이 12월의 제5차 서울회담에서 더욱 진전된 협의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社說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형식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형식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형식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형식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형식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形式보다 내용이 먼저다.

서울신문(1991. 10. 26)

南北회담이 언제까지

남북회담이 언제까지. 南北회담이 언제까지. 南北회담이 언제까지.

남북회담이 언제까지. 南北회담이 언제까지. 南北회담이 언제까지.

남북회담이 언제까지. 南北회담이 언제까지. 南北회담이 언제까지.

남북회담이 언제까지. 南北회담이 언제까지. 南北회담이 언제까지.

사설

‘화해와 불가침’ 향한 한걸음

남북회담의 작은 성과 더 키우도록

남과 북은 네번째 고위급회담에서 지금까지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기본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한걸음 나아갔다. 회담의 의제대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화해와 불가침’으로 밀쳐버리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자는 것이 그 한걸음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 양쪽은 합의해서 이행할 내용은 뒤로 미루고 우선 그 내용을 규정하는 명칭과, 부분별로 나누어 설정하는 내용의 구성에 합의했다. 답을 내놓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마련한 형상이지만 그럼에도 이번 회담의 작은 성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긴 명칭과 함께 내용 구성에 합의한 사실은 곧, 양쪽이 그간 여러가지 명칭으로 내놓은 제안들만으로도 합의서의 내용과 문안 다듬기를 위한 실무협상에 착수하기에 충분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양쪽이 내놓은 것은 거의 다 내놓은 셈이다. 실제로 남쪽이 이번 회담에서 제안한 ‘화해·불가침·교류협력 합의서’는 3차회담에서 제의한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전문 부분에서 남북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점과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군사위원회와 3통위원회란 고위급회담 테두리 바깥에 구성해 운용할 시기란 명시한 정도가 다름 뿐이다. 북쪽 또한 이번 회담의 제안이 3차회담 때의 제안과 큰 차이가 없다. ‘비핵지대화 선언안’을 새로 들고나왔지만 3차회담의 제안과 차이가 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파괴·진북행위 금지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강구, 고위급회담 테두리 안밖의 군사공동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시기를 밝힌 점 정도이다.

따라서 남과 북은 5차회담 때까지 한달만동안 판문점에서 가질 실무대표 접촉에서 주로 이번 회담의 제안을 바탕으로 ‘합의서’의 내용과 분안 조정에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양쪽이 이번 회담에서 어리가지 명칭의 기구를 어느 시기에 구성할 것인가를 명시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고위급회담의 테두리 안밖에서 운영될 이 조직들은 ‘합의서’가

채택될 경우 그에 바탕해서 정치·군사·교류와 관련된 남북간의 다양한 현안을 협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그야말로 실질적인 협의기구 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과 함께 구성·운영 시기를 이번 회담에서 제시한 것은 판문점의 실무대표 협상과 나아가 고위급회담의 진전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또하나 주목되는 것은 정 원식 총리가 24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 주최 의 만찬에서 ‘남북 연합’의 구성을 강조한 점이다. 노태우 대통령도 9월말 멕시코 방문길에 ‘남북 연합’을 지칭하는 국가연합 형태에서 연방으로 진척되고 다시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는 통일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 남쪽이 앞으로 타 결하고자 하는 ‘합의서’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4차회담에서 이 정도나마 눈에 보이는 합의틀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양쪽이 맞고 있는 나라 안팎의 사정이 영향을 주었음직하다. 남쪽으로는 북방외교의 마지막 결실을 평양에서 따고,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그 화려한 정점으로 삼으려는 의욕을 숨기지 않았던 만큼 내년 선거의 해를 앞둔 지금까지 1년여 이상 고위급회담 이 공전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쪽으로서도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나 정상화를 진척시키고 체제 보전과 경제난 해소라는 현실적 요구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극도의 소모적 대결과 이산가족의 고통이 배어 있는 민족의 문제가 ‘대화’란 이름으로 양쪽의 체제 유지에 이용된 사례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의 작은 성과가 그런 형태로 유린되지 않도록 경계하고자 한다. 또한 해가 바뀌고 봄철을 앞두고 대화의 진전이 오래 정체되거나 유실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남쪽이 남북 쌍방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판문점의 실무대표 접촉에서 그 내용을 채울 ‘합의서’가 분단의 고착화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남북의 합의된 관계를 규율할 수 있기를 바란다.

Two Koreas' First Agreement

South and North Korea have reached an agreement on how to draft a document providing steps to improve their relations. The agreement announced at the fourth round of the two Koreas' high-level talks in Pyongyang Thursday only involves procedural matters but its significance lies in its showing that the two sides have begun to move in a constructive direction.

The prime ministers of South and North Korea ended their two-day sessions agreeing to produce a joint agreement on political reconciliation, military non-aggression, economic cooperation and personal exchanges. The working-level committee will take up this task at Panmunjom shortly, combining proposals from both sides into a unified version so that a draft agreement can be forwarded for adoption at the fifth round of the premiers' talks slated for Dec. 10-13 in Seoul.

Although the agreement does not guarantee meaningful or substantial results will be produced, both sides formally expressed satisfaction with it. The spokesman for the North even stated that the accord demonstrated that the two sides could achieve substantial results in the next round of talks.

Many keen observers seem to agree at least that the results from the current talks were rather surprising, and that the North was eager to achieve something which may indicate an earnest position toward the talks. Probably Kim Il-sung's recent trip to China and international pressure as well as domestic needs influenced the North's rare flexibility this time.

We all know that the North is most anxious at the moment for a speedy normalization of its relations with Japan and a proper channel through which to approach the United States. However, meaningful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has been one prior condition set by the Western powers for a change of their policy toward Pyongyang, along with the North's opening of its nuclear facilities to international inspection.

It is, however, clearly noted that the two sides failed to narrow differences on the nuclear issue. While the South again called on North Korea to immediately sign the nuclear safeguards accord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open its nuclear facilities, the North repeatedly argued that the entire Korean peninsula should be declared a nuclear-free zone and simultaneous inspections should be made of nuclear facilitie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ook a meaningful step forward at the current talks,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agreements on substantive matters which may affect positively the relationship of the two countries have yet to be reached. We noticed that many people on Pyongyang streets who were interviewed by reporters from the South all repeated nothing but the same well-orchestrated message call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motherland. It was disheartening to see that nothing really has changed there.

We have waited for so long that now we should be able to be patient in dealing with the North, but the one thing we can not hide is our frustration. It is still too early to predict any fruit from the task which the working committee is to tackle. They are to fill in the substance in the frame which was agreed this time at Pyongyang. We all hope that there will be more of practical substance discussed in the coming sessions.

If there is any sector in which we can hope and expect tha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flower, it is likely to be in the field of economic investment and trade. While there was still excitement in the air from the results of the high-level talks, a high North Korean official told South Korean reporters that Pyongyang is studying a substantial economic relationship with Seoul.

The North Korean official of the External Economic Department, who had participated in previous high-level talks as a delegate, expressed a somewhat optimistic view on the matter. It must be noted that such official statements are rare. As he stated the progress of the cooperation will depend on the outcome of the high-level talks, he suggested that South Korean firms could provide loans for or make investments in a special economic zone planned along the Tumen River basin.

For study of the economic zone along the river which forms the North Korean-Chinese-Soviet bord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committed some funds throug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s. We hope this first economic agreement ever will be only the beginning of many more to come between the two countries.

Editorial

An advance in dialogue

The result produced by the latest round of talks between the prime ministers of South and North Korea might be modest in light of the fervent wishes of the Korean people for speedy and substantial progress in the bid for Korean unification. It, however, could well be rated above par in view of the usually torturous and futile nature of negotiations with our Communist partners.

An agreement to hammer out a single accord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reached at the Pyongyang meeting this week is an evident breakthrough in the long stalemated inter-Korean dialogue. For its eventual materialization more would depend on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onsensus than on the difficulties which have been encountered and narrowly resolved so far.

In addition to the global climate favorable to detente and rapport on this peninsula, the patience and earnesty on the part of both negotiating parties paid off in the form of the accord to be finalized through further give-and-take by working-level officials at Panmunjom, hopefully before the next meeting of the prime ministers here in Seoul in December.

The talks in Pyongyang, encouragingly, featured less rhetoric, and North Koreans this time came out in a more open and practical frame of mind to respond to Seoul's realistic and accommodating overture. Our sustained and constructive effort to set back the propaganda aspect of inter-Korean dialogue to reap genuinely meaningful fruit prevailed.

The issue of denuclearizing Korea about which the northern delegation made much ado was hardly relevant to the ongoing inter-Korean talks. If anything, Pyongyang should begin by adhering to the required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Neither should be condition upon which the high-level talks could proceed or stumble. The Pyongyang meeting did well to sidestep the subjects in search of broader concord on the fundamental theme.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pleads for our stoic approach. Neither wishful thinking nor excessive skepticism will serve the country. In formulating the proposed document, maximum pragmatism and feasibility should be the primary consideration. North Korea is supposed to step forward in this direction.

平壤회담 중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서울 25일 특파원 리영환 기자】 평壤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이르러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會談엔 합의문에 도장 누름시다

鄭종익 「합의 그릇」 만들고 와 흘가분」 北韓側대표 6명, 판문점까지 전송

“實務회담 간단치만 인양을 첫 우리측 우려도

【서울 25일 특파원 리영환 기자】 서울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25일 특파원 리영환 기자】 서울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平壤회담 종료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25일 특파원 리영환 기자】 서울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25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시작되어 3시간 30분을 경과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비관적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회담이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리(정리)가 피정(정리)이 되다

정리(정리)가 피정(정리)이 되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정리)가 피정(정리)이 되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정리)가 피정(정리)이 되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정리)가 피정(정리)이 되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정리)가 피정(정리)이 되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정리)가 피정(정리)이 되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정리는 정리를 정리하는 정리(정리)이다.

5次만남선 도장만 찍도록하자

鄭성과거투가변운발길, 작별인사 北도표 "비관적"民心 일관적"합력"

韓半島의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노천정명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와 남한의 인권 문제는 대화의 핵심 쟁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남한은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남북 양측 모두에게 던져져야 한다. 우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평화의 길은 험난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단호하게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이다. 우리는 끈기 있게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와 남한의 인권 문제는 대화의 핵심 쟁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남한은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남북 양측 모두에게 던져져야 한다. 우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평화의 길은 험난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단호하게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이다. 우리는 끈기 있게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95년에 이르면 통일이라는 말을 접시같이 믿고 있었다. 주제가 곳곳에서 「통일된 조선인민만세」 등의 구호를 쉽게 볼 수 있다. [주요 = 韓東莞기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양측의 대화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와 남한의 인권 문제는 대화의 핵심 쟁점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남한은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남북 양측 모두에게 던져져야 한다. 우리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평화의 길은 험난하지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는 단호하게 평화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의 길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이다. 우리는 끈기 있게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朴奉植 (서울대교수·국제정치학)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정리』 서거기이아니겠나

정인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우리 정치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정지창

하느니 마느니, 끊어 질듯 이어져 내려온 남북고위급회담이 네번째로 평양에서 열려 합의문의 명칭과 형식 등 5개항에 합의했다고 한다. 말이 합의지 통일이라는 목표에는 아직도 까마득히 머나먼 길을 남겨둔 채 길 떠날 준비를 하자고 다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막연한 다짐이라도 하게 된 것이 한번 다행스럽고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파란곡절과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생각하면 아득하고 답답할 뿐이다.



호원이 환자가 되고, 환자가 의사나 간호원의 구실을 맡아 연극을 꾸며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백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실감 있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어 의사나 간호원이 환자들에게 전보다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준다고 한다. 얼마 전에 장애인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상인들이 하룻동안 장애인 노릇을 한 것도 바로 이러한 역할바꾸기의 한 예가 될 것이다. 대학가에서 비롯된 '야자 타임'도 선후배와 사제간의 역할을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본뜻이 있다.

대폿집에 앉아 있으면 "그래, 내 자네 입장 다 이해해!"하는 말을 가장 많이 듣게 된다고 한다. 사실 우리가 친구나 직장동료들, 거래처 사람들과 치열하게 술을 마셔대는 것은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가 아닌가. 우리가 술기운을 빌리지 않고 맨정신으로 "그래, 내 자네 입장 다 이해해!"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분쟁과 분열과 이혼은 훨씬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남북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문득 남북의 고위급 대표들이 일종의 역할바꾸기 연극놀이를 해보든가, 대폿집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면서 "그래, 내 자네 입장 다 이해해!"

남북회담과 역할 바꾸기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세가지 항목이 다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믿음이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만 가능하므로 우선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대화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한쪽 입장만을 고집하여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관철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가령 남쪽은 남쪽의 핵무기는 내버려둔 채 '엔데베식 기습작전'설을 흘리면서 북쪽에 핵사찰을 강요한다든가, 북쪽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론을 거론하는 식으로 '강자의 논리'를 펴고, 북쪽은 북쪽대로 소련의 군사 쿠데타나 남쪽의 반정부 데모에 기대를 걸고 콜레라를 구실로 남북회담을 미루는 식으로 상호불신을 쌓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상호 이해와 신뢰를 쌓기 위한 연극놀이 가운데 '역할바꾸기'라는 것이 있다. 가령 의사나 간

라는 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물론 남북간의 문제가 하루저녁의 연극놀이나 술자리로 풀릴 만큼 간단하지야 않겠지만 통일을 바라는 남북의 7천만 겨레는 남북한 당국자들이 좀 더 시원하고 멋들어진 화해의 장면을 보여주기 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앞으로 판문점에서 실무급 회담이 계속되고 12월에는 서울에서 5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린다고 하니 올해 안에 무언가 눈에 띄는 진전이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든다. 가령 남쪽에서는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를 비롯한 방북인사들을 석방하고 북쪽에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남북간의 믿음이 두터워짐은 물론이고, 부부·형제간에 서로 혈통고 싸움질만 하는 모습으로 비치던 우리 겨레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의젓한 모습으로 유엔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겠는가.

<영남대 교수·독문학>

한 '원칙' 지키며 '변화' 택할듯

남북고위급 회담을 앞둔 김남식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성훈 통일원 제2정책관이 24일 서울에서 회담을 가졌다. (김남식 기자)

급회담 결산 대담

김남식 (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성훈 (통일원 제2정책관)

이번 회담은 남북이 단교된 후 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전혀 성과없는 각종 회담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남북이 단교된 후 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전혀 성과없는 각종 회담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남북이 단교된 후 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전혀 성과없는 각종 회담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 규정지를 때는 항상 기조연설이 기준이 되는데, 지금까지 3차례 걸친 회담의 남북대표 기조연설은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공통점을 보였던 반면 접근하는 입장·시각은 뚜렷한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북쪽은 정치·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을, 남쪽은 교류협력과 기본합의서 채택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기조연설에서 나타난 특징은 양쪽이 무엇인가 합의를 보겠다는 의지를 보

였습니다. △김=한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고위급회담은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있어 그야말로 고위급회담입니다. 흔히 북한의 경우 제안내용이 선언적·일반적이라고 하고 남한은 실천적이라고 구별적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만 남북한은 합의문 도출 이후에 분과위원회를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 총리의 기조연

론은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겠지만 대남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사회를 미국에 예속된 비자주적 사회로 보고 있으며, 민족자주 회복을 제1차과제로 삼아오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의 철수 및 남한에 배치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핵무기 철수 등에 관해서 북한은 남북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합의과정에서 이



김남식 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왼쪽)과 박성훈 통일원 제2정책관이 남북고위급회담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임완호 기자)



3박4일간의 평양체류 일정을 마치고 25일 오후 판문점에 도착한 정형식 총리 등 회담대표단이 환영을 받는다. (김남식 기자)

밝은 귀환 3박4일간의 평양체류 일정을 마치고 25일 오후 판문점에 도착한 정형식 총리 등 회담대표단이 환영을 받는다. (김남식 기자) △박=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담은 남북이 단교된 후 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전혀 성과없는 각종 회담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남북이 단교된 후 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지금까지 전혀 성과없는 각종 회담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방제 수용뜻 보이면 정상회담 가능 11월 한미팀스피리트 걸림돌 될 우려 미군철수 비핵지대화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였고,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까지 발표돼 양쪽이 회담과정중 봉쇄 노력하면 이번 회담을 도출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우선순위로 발표했으나 이 문제가 고위급회담의 주된 토의사항이 아니었다는 면에서 나머지 의제와 연계할 수 있는 등 합리적 입장유 추구하고 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박=예전에 비해 회담에 위하는 북한의 자세와 분위기가 무드러워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외제문제에서만 하더라도 한반도 핵문제를 제기했다가 선결과제는 아닌 것으로 유연성 유 보였고, 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 등에 관해서도 단일안으로 준비하는 등 무엇인가 약간의 서두른다는 인상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내용면에서는 정치선언적·상징적 효과를 겨냥하고 실천성이 부족한 것이 특징이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회담에서 흡수통합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대단히 경계하는 눈치를 보

였습니다. △김=한가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고위급회담은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있어 그야말로 고위급회담입니다. 흔히 북한의 경우 제안내용이 선언적·일반적이라고 하고 남한은 실천적이라고 구별적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도 가능하지만 남북한은 합의문 도출 이후에 분과위원회를 통해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 총리의 기조연

한이 많은 대화를 가졌으나 그동안 써다룬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유는 남과 북에 각각 두 개의 정부가 실제로 엄연히 존재하는데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대화 자체가 생산적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이 각각 연방제식과 연합방식으로 달랐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냉전 구조여서 중국과 소련이 남한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아 통일 접근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가운데 세번째 문제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해소되고 있고 첫째와 둘째문제에 관해 이전의 폭을 줄이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김=이번 북한 연방제 총리의 기조연설에는 유연가입에 따라 이제 유연무대에서도 한반도분쟁을 거론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유연 가입 사령부 해제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

국가보안법 철폐, 방북인사 석방 등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대남정책과 남한과의 대화를 신중성있게 해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박=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남북한 대화의 진전을 가능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측면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개혁·개방을 하긴 해야 하는데 체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결정을 못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혁·개방이 불가피함을 인식한 것 같고, 다만 주민들에게 미칠 충격에 대한 면역성을 기르면서 대단히 느린 속도로 개혁·개방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앞으로 남북고위급회담은 판문점에서의 실무회담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회담에서 물론 5차회담의 난파까지 합의물 보긴 했지만, 5차회담은 상황 변화에 따라 일정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월 실시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팀스피리트훈련 문제도 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5차회담 개최에 또 다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박=판문점에서의 실무접촉에 비중을 둘 것이라는 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총리가 서울과 평양을 번갈아 방문하는 것도 통일을 촉진하는 데 큰 실질적·상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김=북한은 인적 교류를 당분간 피하려는 입장인 동시에 총리회담을 지속시키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이념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팀스피리트훈련이 또다시 문제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는 것이지요. (정리)

그들 역시 남한에서... (Introductory text for the article)

평壤을 평壤을 평壤을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평壤을 평壤을 평壤을'.

効用없는 北韓의 핵카드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効用없는 北韓의 핵카드'.

그 나라의 핵 카드는... (Introductory text for the article)

Main body text of the article '効用없는 北韓의 핵카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개혁론

社說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인종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사회개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인종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사회개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인종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사회개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인종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사회개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인종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사회개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인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여전히 인종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사회개혁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기고

우리는 1987년 6월 29일 5월 29일... (Introductory text for the article)

이제야 우리는... (Opening paragraph of the main article)



김덕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개방과 경쟁 - 우리의 길목

이제야 우리는...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이제야 우리는...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이제야 우리는...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이제야 우리는...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이제야 우리는...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이제야 우리는...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이제야 우리는...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이 28일 밝혔다. 북한은 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이 28일 밝혔다.

社說

북한이 핵무기 「양적」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이 28일 밝혔다. 북한은 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이 28일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이 28일 밝혔다. 북한은 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이 28일 밝혔다.

北韓측의 總理회담 자세 변화

核우산 보호차 단속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이 28일 밝혔다. 북한은 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북한이 28일 밝혔다.

4차총리회담서 또 "남침"...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
남침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측을 위협하는 발언을
다 쏟아냈다

【서울 29일 특파원 특보】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29일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침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측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남측이 남침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북측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北측 이산가족 물레상봉 주선

이산가족을 위한 물레상봉을 주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북한측은 이산가족을 위한 물레상봉을 주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북한측은 이산가족을 위한 물레상봉을 주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는 29일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침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측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남측이 남침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북측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열차에 南측 記者 3명 탑승시켜 약속 어기고 또 "우연이다" 시치미 신뢰성 흔들... 對南工作 시도 인상

북측은 29일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침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측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남측이 남침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북측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29일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침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측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남측이 남침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북측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29일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침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측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남측이 남침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북측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29일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침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측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남측이 남침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북측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북측은 29일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총리회담에서 남침을 계속할 것이라며 남측을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남측이 남침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북측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만나서 더 아픈 離散

公開상봉요구하자, 그런일 없다. 약점잡아 이용, 불수의 노리려

지난번 總理회담 귀환列車서 책동

남녘記者 북녘叔父 北서 密會 공작



시치미 지난 25일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대표단 일행을 태운 평양~개성간 특 별열차안에서 국방일보 金顯基(右)가 북측의 崔善福(崔善福)에게 작은 아버지들의 비밀 상봉사실을 알리며 공개상봉을 요구하고 있다. 젊은 송기자의 작은 아버지가 열차에 탔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대표단 일행을 태운 평양~개성간 특 별열차안에서 국방일보 金顯基(右)가 북측의 崔善福(崔善福)에게 작은 아버지들의 비밀 상봉사실을 알리며 공개상봉을 요구하고 있다. 젊은 송기자의 작은 아버지가 열차에 탔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대표단 일행을 태운 평양~개성간 특 별열차안에서 국방일보 金顯基(右)가 북측의 崔善福(崔善福)에게 작은 아버지들의 비밀 상봉사실을 알리며 공개상봉을 요구하고 있다. 젊은 송기자의 작은 아버지가 열차에 탔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대표단 일행을 태운 평양~개성간 특 별열차안에서 국방일보 金顯基(右)가 북측의 崔善福(崔善福)에게 작은 아버지들의 비밀 상봉사실을 알리며 공개상봉을 요구하고 있다. 젊은 송기자의 작은 아버지가 열차에 탔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북측이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대표단 일행을 태운 평양~개성간 특 별열차안에서 국방일보 金顯基(右)가 북측의 崔善福(崔善福)에게 작은 아버지들의 비밀 상봉사실을 알리며 공개상봉을 요구하고 있다. 젊은 송기자의 작은 아버지가 열차에 탔을리가 없다고 말했다.

Unification: illusion vs. reality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Kwang-soo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qualified to expound Korean unification as is evidenced by his career. In addition to his stint as foreign minister in 1986-88, Choi developed his expertise in defense, a vital issue related to unification, as assistant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then vic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e was also appointed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in New York, a venue of international debate on Korean affairs. In the following guest column, he shows what options South Korea has in its pursuit of unification with the North after explaining Vietnamese, Yemenite and German models. Choi is currently chairman of the Hyundai Research Institute in Seoul. — Ed.

By Choi Kwang-soo

Unification is undoubtedly one of the foremost subjects for public debate in Korea. Especially in recent months, the admission of both Koreas to the United Nations and the fourth round of high-level talks in Pyongyang have drawn more attention to this subject.



There are three logical ways by which a divided territory may become a united entity: conquest, agreement, and absorption. Incidentally, recent history has vividly shown us how all three can be applied in reality.

Vietnam was unified by military conquest; Yemen by mutual agreement; and Germany by absorption following the self-induced dissolution of one party.

Korea's case has defied all of these three scenarios to remain divided. Why? And which one is Pyongyang's option and, more importantly, our choice?

Vietnam

Notwithstanding North Korea's rhetoric on achieving unification through negotiation, a careful observation of its words and deeds leads us to conclude that Pyongyang has always had the Vietnamese option in mind.

Vietnam succeeded in negotiating pea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obtaine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Vietnam; then its army marched into the South and conquered it, all the while having orchestrated subversive activities in the South.

The core of North Korea's unification strategy has followed the same lines: terrorism and subversion in the South;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the South.

The on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that Pyongyang's strategy has now become anachronistic. Unification by force has become impractical given the geostrategic posi-



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alance of power prevailing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Either side cannot be conquered within a reasonable range of costs. The remarkable consistency in Pyongyang's unification policy has paradoxically created an impasse for it. Because of the rigidity inherent in its monolithic regime, North Korea does not seem to be able to formulate any reasonable unification policy.

Yemen

Second, Yemen-style negotiated unification, which North Korea has outwardly been presenting as its real aim, is on the surface very idealistic. A deeper analysis, however, reveals that Korea's unification cannot be achieved in the unique Yemeni context.

North and South Yemen were more like tribal communities, the social fabric of which was incomparably looser than those of both Koreas. Human nature would never allow two long-entrenched power centers to merge into one through "mutual agreement."

Yet some valuable lessons can be learned from Yemen's process. If and when North Korea abandons its irredentist posture, Seoul may draw Pyongyang into real and meaningful negotiations to remove the

most hermetic division line in the world. In such an event, Korea's case would be more similar to Yemen's than to Germany's where the

Soviet's consent was the condition *sine qua non* for unification.

Germany

The German example and its applicability to Korea are widely talked about these days. Muddled arguments as to whether "absorption" is a desirable policy often do not consider the fact that the unilateral collapse of East Germany was of its own making rather than instigated by West Germany.

Absorption describes the state of a virtually finished game, not a strategy for winning the game. We need to balance emotional enthusiasm with logical ratiocination. The German solution can not constitute our policy or option. It is only something that we should be prepared for in the event that it becomes a re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s choice

Our analysis of the three examples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we must exhibit patience and wait for changes to take place in North Korea. The changes can happen in two ways: unilateral collapse or voluntary modification of its archaic unification policy.

There being practically nothing that

we can do about the unilateral collapse of North Korea, our policy and choice should be to help Pyongyang to voluntarily change its fundamental posture toward the South. This means the opening of Pyongyang to the outside world; a North Korean glasnost.

The daunting question is how we can help this process to proceed. Pressure may accelerate the process of social transition but we may well risk provoking Pyongyang into dangerous adventurism, to the loss of all the Korean people.

Appeasement may also help them to adopt a certain degree of flexibility, but history cruelly demonstrates that from good intentions may come tragic results, especially when dealing with forces that are far from benign. We must remember that it was our strength, and not their goodwill, which brought the North to the negotiating table at the United Nation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olicy that the ROK government pursues vis-a-vis inter-Korean relations is basically on the right track: principles before expediency, accommodation short of appeasement, and persuasion rather than pressure or provocation.

However, one very important factor which seems to be missing in our arduous debate on unification is what we can do and have to do on a daily basis in view of attaining this long-cherished goal.

Our society has yet to become one in which 70 million Koreans wish to lead their lives. There's no doubt that ours is far better than the North's, but that is not enough. While the North reforms their anachronistic and inhumane social system, we should make ours a happier and safer place to live in and also be prepared to offer it with pride as the only and the best alternative that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orth can turn to when they finally decide to embark upon a new way of life.

Ultimately, unification depends not so much upon external unification policy as on inter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



이
뉴스

“南北회담 대폭양보는 와전”

18년여만에 북한땅을 다시 밟은 李東靄 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의 감회는 남달랐다.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대변인 자격으로 지난 22~25일 평양을 다녀온 그는 「커다란 건물들이 새로 들어선 것만큼은 아니지만 북한도 이미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갖게됐다」며 북한의 변화가

南北고위급회담
李東靄 대변인



「현재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남북조절위 대변인직을 맡아 72년 11월과 73년 3월 평양을 방문한적이 있는 李대변인은 또 「평양시가지가 깨끗해진 것 만큼 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 착잡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제1차 고위급회담(서울)이후 洪性澈 林東源 대표에 이어 세번째로 대변인을 맡은 그는 이번 제4차 회담에서 북한의 「말꾼」 安炳洙 대변인(順平統부위원장)을 능가하는 기지와 재치를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지난 23일 첫날회의를 끝낸 직후 인민문화궁전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흡수통일 포기」를 확인하려는 북측기자들을 향해 「흡수통일정책은 애당초 없었기 때문에 포기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盧泰愚 대통령도 흡수통일을 지시한적이 없다」는 식으로 능란하게 받아 넘겼다.

李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의 「합의서 명칭」 합의와 관련, 「과소평가해서도, 그렇다고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며 평가 자체에 신중했다.

「그릇을 만들어 거기에 담을

알맹이를 결정토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소중한 디딤돌이 마련된건 사실」이라고 그는 말했다.

李대변인은 그러나 「일이 잘 돼 가다가도 돌연 망쳐지는 경우가 허다한게 남북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예측불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오는 12월 제5차 회담 전망이 그리 밝은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5차회담에 앞선 관문점 실무대표접촉대책과 관련, 李대변인은 「앞으로의 남북관계를 규

정한 중요한 문제에서 이견을 보인 부분이 적지않다」며 우리측이 대폭 양보키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盧泰愚 대통령이 지난 25일 유연한 자세를 갖고 실무대표접촉및 5차회담에 임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우리가 지킬것은 반드시 지키고 관찰할것은 관찰하면서 가급적 합의를 이루도록 유연하게 대처하라고 말한것이 「양보」 하겠다는 뜻으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李대변인은 언론계 관계 재계등을 두루 거친 才士형으로 남북문제에 손을 댈지 올해로 20년째다.

72년부터 80년까지 남북조절위 대변인을 지낸 그는 80~82년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장을 맡아 총리회담준비를 위한 실무대표로 참석하기도 했다.

82년부터 수년간 三星그룹 내에서 기업경영에 참여하기도 한 그는 88년 4·26총선당시 민정당 서초乙지구당을 맡아 출마했으나 金德龍의원(민자)에게 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총선후 金在淳국회의장 재직시 의장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14대국회 출마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직을 천직으로 삼아 남북문제 및 통일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로 부인했다.

상황관단 능력이 뛰어나고

南北고위급회담 남측 「말꾼」 李東靄 대변인. 평양 체류동안 대변인의 역할을 무난히 소화해낸 李대변인은 「北측은 현재 변화중」이라고 강조했다.

“주요異見 관철시키며 유연대처, 를 오해 이번회담 관계개선 디딤돌...樂觀은 금물”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強性的 李대변인이 앞으로 빈번해질 남북접촉에서 얼마나 돋보이는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成書翕기자>

No Hurry for S-N Treaty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impatient about reaching a comprehensive agreement on bas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 cap its Nordpolitik. It hailed the achievement produced at the recent fourth round of inter-Korean premiers' talks but it has wisely since toned down its remarks on the talks, presumably in consideration of the prevalent public opinion calling for a cautious approach to the North Korean regime in future negotiations.

The two Koreas reached an accord to adopt a basic treaty of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cooperation at the Pyongyang talks, combining rival goals from the two sides: Pyongyang's military nonaggression versus Seoul's political reconcili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personnel exchanges.

Terming the talks' outcome a breakthrough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government presented a euphoric picture to the public and the officials involved seemed to be anxious to wrap up the treaty in the coming premiers' talks slated for Dec. 10-13 in Seoul, and continue the pace of the so-far successful Northern Policy.

The mutual accord on the treaty title is significant, as it paved the way for the two sides to continue their dialogue at future premiers' talks. But whether this dialogue will result in any tangible results remains to be seen. The primary reason for this skepticism is Pyongyang's failure to change its basic policy.

It is ironically to be noted that the Pyongyang regime has played up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latest premiers' talks with the apparent scheme of enlisting world opin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on the shared assumption that progress in the South-North talks will serve the purpose of improving relations with these major industrialist countries.

Therefore, the Seoul government should be wise enough not to be taken in by Pyongyang's propaganda and expedite the North's political maneuvering. Salient evidence indicating Pyongyang's immutable strategy is its obstinate refusal to sign the Nuclear Safeguards Accord and open up its nuclear facilities for international inspection.

The Pyongyang leadership is almost certainly developing nuclear weapons secretly despite mounting international condemnation at the same time as it is seeking to improve ties with the U.S. and Japan in an effort to save its collapsing economy with the latter's aid. The on-and-off talks between Pyongyang and Tokyo are in a large degree staked on the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one hand and Pyongyang's acceptance of international nuclear supervision on the other.

The North's insidious tactics to go nuclear under the disguise of peace should not be accommodated by Seoul and the family of nations. Increased international pressure to compel Pyongyang to accept international nuclear inspection is necessary, as in the case of Iraq where U.N. inspectors are engaged in seeking out nuclear weapons facilities with the mandate to prevent, halt and destroy weapons programs.

President Roh Tae-woo recently instructed Prime Minister Chung Won-shik to take a flexible posture in the inter-Korean talks and accordingly government officials concerned are busy working on some compromise terms for the next session. The government, of course, needs to do its best to promote a fruitful dialogue, notably with regard to Seoul's initiatives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personnel exchanges, mainly of trade, communications and travel.

However, the North Korean proposal for nonaggression should be given a very cautious consideration, in connection with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hich will, if realized, pose an unparalleled threat to the South and other nations in Southeast Asia. The proposed mutual arms reduction proposal and the conclusion of a related nonaggression pact are virtually meaningless, unless the North's nuclear arsenal bid is rendered to naught.

지정된 77시... 4차... 1...

경제협력 정상회담

그동안... 10월 2차... 1...

서울칼럼



平壤회담과 금방 회귀 있었다

평양회담의 태도... 1...

해결책으로... 1...

우리 회재자들이... 1...

수정식만큼... 1...

이런도... 1...

도 모른다... 1...

우익에게... 1...

이렇게... 1...

기도... 1...

해운제와... 1...

이상의... 1...

이렇게... 1...



〈편집부국장〉

體制 변화 막지 못할지

비록 이번... 1...

北韓, 核협정 체결 통보

정부소식통 순회大使 빈, IAEA 방문 방침전달

내달 협상팀과 견실 실무교섭 9월경 중립국 명 일정까지 제시

【서울 9일 특파원 특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보장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경우와 관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7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IAEA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양 9일 3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보장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경우와 관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7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IAEA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북한은 IAEA의 안전보장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경우와 관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7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IAEA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IAEA의 안전보장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경우와 관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7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IAEA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IAEA의 안전보장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경우와 관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7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IAEA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IAEA의 안전보장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경우와 관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7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IAEA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IAEA의 안전보장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경우와 관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7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IAEA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핵무기 보유 포기
【서울 9일 특파원 특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보장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경우와 관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7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IAEA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 핵무기 보유 포기
【서울 9일 특파원 특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보장협정(SAFEGUARDS)을 체결할 경우와 관련,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7일 평양에서 열린 IAEA 총회 개막식에 참석하면서 IAEA에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北核협정 체결 수락표명 배경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국제壓力 모면위한 苦肉策

美·日 등 관계 개선 장애물 판단 核개발 완전포기 여부 未知數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서울신문(1991. 6. 9)

北韓 "核협정 체결, 표명 배경"

外交 장애물 核압력 탈피 겨냥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對美·日 관계 개선의 길트기 속셈 UN加入 앞두고 支持기반 확보도 고려 "IAEA理事會의 對北제재 결의 모면" 분석도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북한은 핵협정 체결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의 압력을 받게 된다.

北 전체 조국면목기여부 불투명

「核安全협정 체결통보」 분석



북한의 핵안전협정 체결통보에 대한 국제적 반응을 분석한다. 핵안전협정 체결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국제적糾彈 「일단 피해가기」인상 약속대로 쉽게 뉘그러지 미지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역사

社說

북한은 1991년 6월 10일(1991년 6월 10일) 통일역사(1)를 펴냈다. 통일역사는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1년 6월 10일(1991년 6월 10일) 통일역사(1)를 펴냈다. 통일역사는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남한은 1991년 6월 10일(1991년 6월 10일) 통일역사(1)를 펴냈다. 통일역사는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전략

북한은 1991년 6월 10일(1991년 6월 10일) 통일역사(1)를 펴냈다. 통일역사는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1년 6월 10일(1991년 6월 10일) 통일역사(1)를 펴냈다. 통일역사는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은 통일운동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다.

北韓 核안전협정 서명 용의

陳忠圖, IAEA연설 9월 理事會 협정안제출 동의

내달 10일 대표단 파견, 字句 수정

“美軍核철수” 사실상 철회

韓國등 긍정평가, 對北결의안 상정유보

【인=서울14일路透】국제 원자력기구(IAEA)이 13일(현지시간) 북핵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핵 안전보장조약의 서명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IAEA의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9월 10일부터 5일간 북핵 대표단 파견을 위한 협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인=서울14일路透】국제 원자력기구(IAEA)이 13일(현지시간) 북핵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핵 안전보장조약의 서명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IAEA의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9월 10일부터 5일간 북핵 대표단 파견을 위한 협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인=서울14일路透】국제 원자력기구(IAEA)이 13일(현지시간) 북핵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핵 안전보장조약의 서명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IAEA의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9월 10일부터 5일간 북핵 대표단 파견을 위한 협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인=서울14일路透】국제 원자력기구(IAEA)이 13일(현지시간) 북핵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핵 안전보장조약의 서명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IAEA의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9월 10일부터 5일간 북핵 대표단 파견을 위한 협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인=서울14일路透】국제 원자력기구(IAEA)이 13일(현지시간) 북핵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핵 안전보장조약의 서명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IAEA의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9월 10일부터 5일간 북핵 대표단 파견을 위한 협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인=서울14일路透】국제 원자력기구(IAEA)이 13일(현지시간) 북핵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북핵 안전보장조약의 서명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IAEA의 안전보장조약에 서명할 수 있는 9월 10일부터 5일간 북핵 대표단 파견을 위한 협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북한 핵개발이냐」야미 - 1991년 6월 14일

北韓 의사존중 강경후퇴

서명시기없어 일방수선의구심 對美협상 카미러 핵개발이구심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지 여부에 따라 남북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1991. 6. 19)

美北韓核서명맹관개신

우리정부에 불려 北京접촉 大使級적상키로

전방위적-동맹적적기권 영향일자리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개발이 없는 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美「對北방침」의 배경과 의미

미국은 1991년 6월 19일 북한을 향해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침략'을 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침략'을 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바짝 다가온 美-北 관계개선

미국은 1991년 6월 19일 북한을 향해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침략'을 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미국은 1991년 6월 19일 북한을 향해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침략'을 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오랜 접촉끝 「北측변화」인정 빗장풀어 不信은 여전히... 속도조절 韓美협의 필요

미국은 1991년 6월 19일 북한을 향해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침략'을 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미국은 1991년 6월 19일 북한을 향해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침략'을 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美核철폐...不使用보장까지 北韓「核사찰거부」

【서울 19일 특파원 특보】 미국은 1991년 6월 19일 북한을 향해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침략'을 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미국은 1991년 6월 19일 북한을 향해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침략'을 가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對北방침'을 선언했다.

북한은 1991년 7월 16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北「核協定」확정 합의 이후 문제

이사회와 북핵의 합의... 핵협정 체결 후 남북 정상회담이...

『核사찰』 불러야 내년

오장동 핵실험 시설... 핵사찰을 통해 핵무기 보유 여부를...

9월 이사회-總會 거쳐 협정 서명
국내 비준절차 밟아야 효력 발생

90일 이내 다시 부속約定書체결후 사찰팀 파견

북한은 핵협정 체결 후 9월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협정을 서명할 것으로...

북한은 핵협정 체결 후 9월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협정을 서명할 것으로...

北韓「核協定」이행의 誠意

북한은 핵협정 체결 후 이행을 위한诚意을 보여준다는...

오장동 핵실험 시설... 핵사찰을 통해 핵무기 보유 여부를...

북한은 핵협정 체결 후 이행을 위한诚意을 보여준다는...

북의 「非核무용선언」제의 입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을 둘러싸고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는 커져가고 있다. ... (text continues)

북한은 9월 10일 북·미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 (text continues)

주한 美軍核 쟁점화 속셈



주한 미군 핵무기 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다. ... (text continues)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둘러싸고 ... (text continues)

對美문제서 南北韓 문제로 전환 유엔총회 앞두고 국제여론환기 노력

북한은 유엔총회 개최를 앞두고 ... (text continues)

북한은 핵무기 보유 선언을 둘러싸고 ... (text continues)

北 「非核무용선언」제의

내담까지 美·蘇·中 핵위협 제거 보장해야

【북경=연합】북한이 핵무기 보유 선언을 둘러싸고 ... (text continues)

경향신문(1991. 7. 31)

〈특파원특보〉

정부「南北核 직접협의를 위한」백경

정부가 1일 남북핵협상을 위한 백경...

北韓核 완전차단 "유도"

정부는 1일 남북핵협상을 위한 백경... (North Korea nuclear complete blockade 'gui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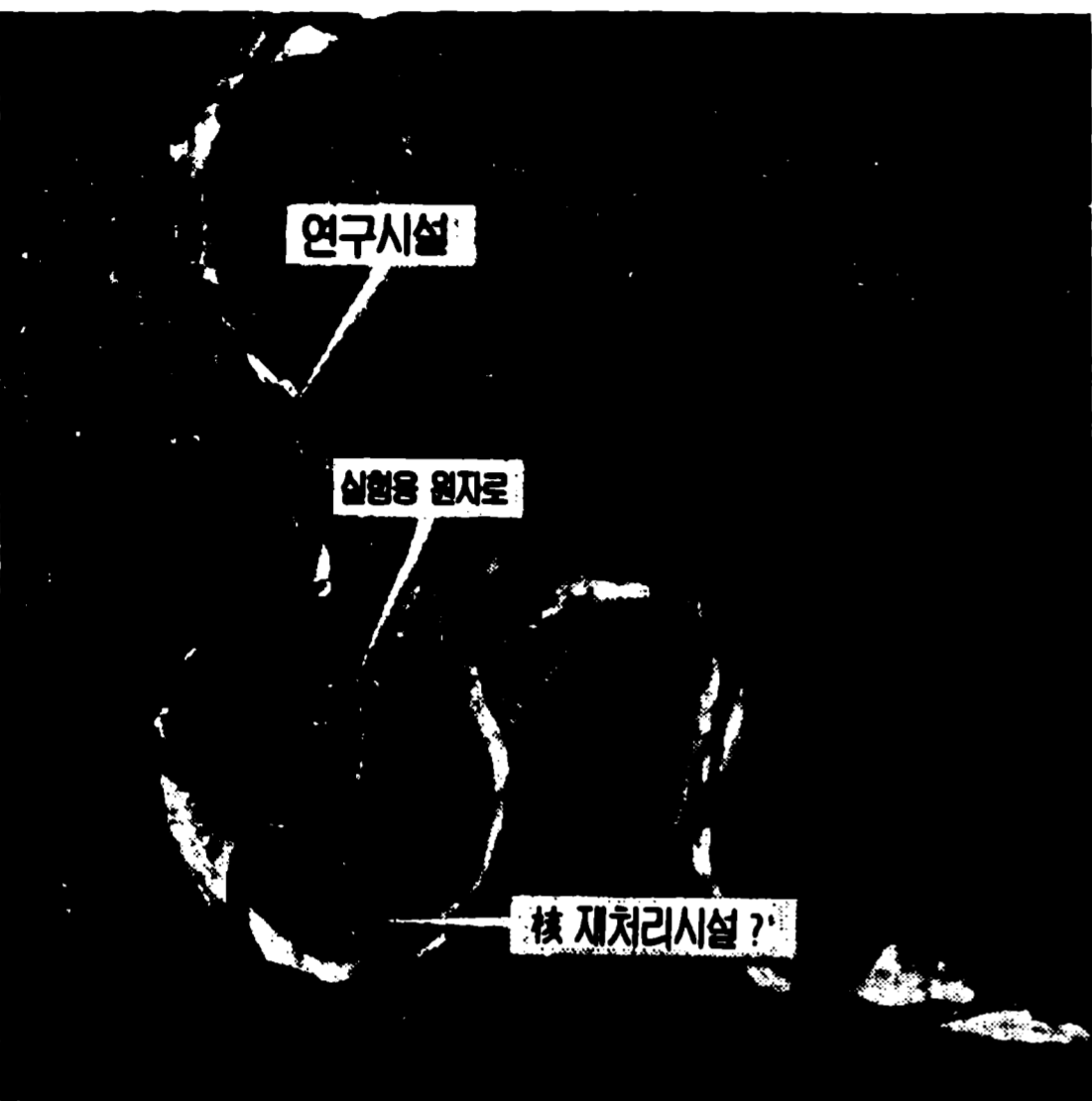
북의 禁忌視서 "정면대응" 전환
美측과 「사전」의 전접근」있음

정부는 1일 남북핵협상을 위한 백경... (North's taboo view 'frontal response' transition)

정부는 1일 남북핵협상을 위한 백경... (Government's stance on nuclear talks)

정부는 1일 남북핵협상을 위한 백경... (Government's stance on nuclear talks)

정부는 1일 남북핵협상을 위한 백경... (Government's stance on nuclear talks)



북한 평양에서 촬영된 핵 시설의 위성사진. 연구시설, 실험용 원자로, 핵 재처리시설이 보인다.

정부는 1일 남북핵협상을 위한 백경... (Government's stance on nuclear talks)

정부는 1일 남북핵협상을 위한 백경... (Government's stance on nuclear talks)

정부는 1일 남북핵협상을 위한 백경... (Government's stance on nuclear talks)

北韓, 수년내 핵무장 가능

美CIA관계자 來韓 설명회... 첫 공식 확인

전략불균형 초래, 東北亞안정 위협 攻撃전술 전환, 軍事力 휴저선 집중

국회의원 정부고위관료 등 8명 참석

美CIA관계자 10명, 北 2명, 韓 1명 등 총 13명 참가한 설명회

국회의원 정부고위관료 등 8명 참석
美CIA관계자 10명, 北 2명, 韓 1명 등 총 13명 참가한 설명회
북한은 수년내 핵무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미국 CIA 관계자들이 4일 서울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밝혔다. CIA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격 전술을 전환하고 군사력을 휴저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1991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CIA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격 전술을 전환하고 군사력을 휴저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1991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북한은 수년내 핵무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미국 CIA 관계자들이 4일 서울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밝혔다. CIA 관계자들은 북한이 핵무장을 통해 전략적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격 전술을 전환하고 군사력을 휴저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1991년 9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美CIA「核정보 비리정」하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파악했다고 밝혔다. CIA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같이 보도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파악했다고 밝혔다. CIA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같이 보도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北核사찰 지연戰術에 쐐기

위협실체공개공동대처整地작업 韓國의核협상주도지원효과도



북한 핵실험 현장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파악했다고 밝혔다. CIA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같이 보도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파악했다고 밝혔다. CIA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같이 보도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파악했다고 밝혔다. CIA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같이 보도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IA는 핵실험이 성공하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北韓 核협정 서명 거부

IAEA 이행 촉구 決議案에 반발

駐韓美軍 核 먼저 철수해야

결의안 채택은 主權 침해

對北서명결의안 27개국 찬성...쿠바만 반대

【연세대학교 특파원】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의 27개국은 12일 북한과 IAEA가 합의한 핵협정 서명 거부 결의안을 찬성투표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측은 이 결의안을 거부하고, 핵협정 이행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은 IAEA가 핵협정 이행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은 27개국 중 쿠바가 유일하게 반대했다.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핵협정 서명 거부 결의안을 찬성투표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美·日·캐나다 등 9개국 동맹국들은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고, 핵협정 이행에 찬성하는 18개국은 핵협정 이행에 찬성했다.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이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이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결의안 채택은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 핵협정 이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시사한다.

북한, 核協定 왜 거부하나

社說

북한이 또 다시 국제사회의 그 어떤 신랄한 비평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무조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A)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1991. 9. 14)

核사찰 거부한 北韓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北韓 核 강제사찰 추진

국제 원자력機構회의 韓美蘇등 23국서 결의안 제출

구체방안 來2月까지 마련 이라크도 安保理연계 규제

【단=서울특파원기자】국제 원자력機構(IAEA)이 19일 북한을 강제사찰할 것을 결의하고, 이라크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이날 제40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봉 제조를 위한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제사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이라크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강제사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원자력機構(IAEA)이 19일 북한을 강제사찰할 것을 결의하고, 이라크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이날 제40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봉 제조를 위한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제사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이라크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강제사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1991. 9. 20)

국제 원자력機構(IAEA)이 19일 북한을 강제사찰할 것을 결의하고, 이라크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이날 제40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봉 제조를 위한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제사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이라크도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한 강제사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核강제사찰 決議의 의미

社說

北朝鮮의 핵무기 보유가 (IAEA)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것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北韓核유원 원근焦點과

一 聯合의 發展의 前途에 對한 考察

社說

北朝鮮의 핵무기 보유가 (IAEA)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것만으로도,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보유를 위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단거리核 폐기 선언

지상核국한... 해상核은 철수 전략폭격기 공중경제 해제

부시 어제 TV연설

【워싱턴=합중통신사】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한국시간) 지



◇부시 대통령이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획기적인 핵무기 감축안을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합중통신사】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28일 50분가량의 핵무기정책

개시 후 가장 획기적인 핵무기 감축안을 발표, 「미국의 보루」라고 있는 모든 지상미 해상핵사, 단거리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선언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핵전쟁의 예방과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蘇「부시 선언」 환영

고르비 회견 외무차관 "2천년까지 핵전면폐기"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8일 부시 대통령의 단거리 핵무기 감축제안이 '긍정적이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모스크바=합중통신사】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28일 오전 9시(한국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을 환영하며, "소련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감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감축을 지지한다.

東北亞 모든核 제거 촉구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소련 등 모든 핵 보유국이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감축을 지지한다.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핵실험을 강력히 반대하며, 북한은 핵실험을 정당화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북한 핵실험 효과 북한 핵실험의 효과

蘇 防費감축 압력 작용... 폐기시기·충명 과제로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미국 해군 항공모함 USS Kitty Hawk (CV-63)에서 발사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이 미사일은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다.

北사찰수용·한반도 非核化 발판

남북軍縮 진전·北·日美관계 돌파구 될수도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韓半島 미·중 핵감각도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구분	사명/부	비고
1	B28/B61	중거리 폭탄
2	M-108 (1500)	중거리 미사일
3	M-109 (1500)	중거리 미사일
4	M-110 (2000)	중거리 미사일
5	110	중거리 미사일
6	2500	중거리 미사일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국 유지속 제3세계 핵무장 '썰기'

군축선언 배경·의미

1천여발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소련의 상용하는 조치와 함께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뒤이은 대규모 핵군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탄 등 이동식 다관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계획의 포기 등이 있으나 MX와 미지트론 개발 계획의 경우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포기 포병이 큰 의미는 없다. 이러한 일방적 조치와 함께 부시 대통령은 소련에 △모든 다관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전폐기

격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이 제안은 전략핵무기 추가감축을 위한 START II 협상을 상정하고 있으며 ABM의 수정 또는 폐기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는 사실상 소련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전략핵무기의 추가감축이 소련이 우위를 보

고려적이며 B-2 스텔스 전략방위구상에 대한 지속적인 부차 △미국이 우위를 보이는 전략핵무기 수합 등 신뢰할 만한 핵억제력의 유지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의 연설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핵군축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술핵분야에서의 부분적 양보를 통해 유일한 핵 강대국으로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구축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도가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술핵무기의 일방적 폐기를 추진하는 데는 걸프전에서 확인되었듯이 전술핵무기의 군사적 가치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첨단 전자상비품 장착한 제대식 무기라도 전술핵무기와 같



군사적 가치 퇴색 전술핵 양보로 군축 주도권 부각 미 방위전략 SDI 중심 전환 예고

부시 대통령의 이번 연설내용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국이 일방적으로 취할 조치다. 부시 대통령은 소련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일의 필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부시는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 분야에서 소련에 대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걸프전에서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한 최신예 해상발사 순항미사일인 토머호크에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이 이번 부시 연설 중에 소련에 제시한 가장 중요한 양보조치로 보고 있다.

이밖에 부시가 밝힌 일방적 조치는 △전략 핵무기의 24시간 비상경계태세의 해제 △MX, 미

를 위한 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과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하면서 이 탄도미사일 공격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요격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2가지 주요한 제안을 하고 있다. 다만 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소련이 전략핵무기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보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분야이다. 또 탄도미사일 요격방위체계 배치는 지난 72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 금지 협정(ABM)에 의해 배치가 엄

고 있는 분야에 한정돼 있고 ABM의 경우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의 추진을 우려한 소련이 수정 또는 폐지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시 대통령은 연설의 후반부에서 이번 핵감축계획이 냉전 이후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대응하는 미국의 국방 전략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하고 있다.

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즉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의 지적처럼 이번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에서 군축을 강조하고 있으나 미국의 전략이 SDI를 중심으로 한 방위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로렌스 코브 전 미국 방위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연설로 단거리핵무기의 감축은 이뤄지겠지만 전략핵무기 분야에서의 추가감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소련은 미국이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전략핵무기 수합과 전략핵무기 분야에 대한 감축없이 소련이 우위를 보이는 단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토머호크의 폐기에 대해

서는 언급 핵탄두를 고만 밝히 부시 대통령 전력의 비은 일방적 의의는 반 이와 함 인정하고 방비의 감지 않는다. 에 대한 다분히 정 일부에서는 무엇보다도 구하고 미 큰 타격이 오고 있는 있다. 한미 막대한 군로 사용되 의 도를 따르다는 게 평가다.

한반도에 미칠 파장

부시 미 대통령이 28일 밝힌 일방폐기대상 전술핵무기는 유럽 뿐 아니라 한반도에 배치돼 있는 핵을 당연히 포함함으로써 주한 미군의 핵무기 철수는 이제 시간만 남겨두게 됐다. 한반도 전술핵무기철수 시점은

반 등을 철거하고 폐기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경제외지와 소련의 대응에 따라서는 좀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유럽에서의 핵무기감축 시간표가 한반도에도 그대로 반영될

한 핵무기 철수 사실을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대신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해 왔다. 이런 주장과 제안은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전술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함으로써 본래 의도와는 약간 거리가 있게 됐지만 결국은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된 실득력 있는 구상이었음이 입증됐다. 앞으로 철수하게 될 남

서 일차적으로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며,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경우 북한을 격퇴해 승리를 담보하는 것 외에 재래식 전력에서 열세인 남한의 군사력을 보강해준다는 다목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평가였다. 그러나 이제 핵무기가 곧 철수되게 돼 이로 인한 억지력 상실과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와해가 빚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

의 핵철수를 끝낸 뒤에도 전폭기를 이용한 공중발사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핵무산보호를 계속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급격한 한반도에서의 힘의 공백을 우려한 때문이다. 한편 남한 배치 핵무기 철수는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비핵화주장에 큰 파장을 줄 것이 불림없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국제 핵사찰을 끝낸 거부해은 북한으로서의 일단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은 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일단

철수된 핵일이 없도록 마련해 수 있다"고 자력기구의 협정의무 더 발전적 을 것"이라 아무는 한 배치 핵로 북한 점에 옮겨 상래에 더 화 논의가 됐다.

북한 핵개발 포기 압력 높일듯

남북 국방정책 큰 영향...비핵화 논의 기대

미국과 정적이지 및 유럽에 배치돼 있는 다수의 전술핵무기 철수 시점과 맞물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무부의 군축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 일방 폐기 방침은 그 초점을 유럽배치 핵에 두고 있어 수천기에 이르는 전술 핵무기 운반수단과 핵탄두·핵포

것이라며 따르면 1년 안에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한 배치 미군 핵무기 철수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스타라피노 박사 등은 그동안 여러차례 전략적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으로서는 핵무기 존재에 대해 '북인도 부인도 없는(NCND)'정책상 직접 남

한 배치 핵무기는 일차적으로 핵 스미사일에 장착될 수 있는 핵탄두와 일반포로 발사가 가능한 핵포탄 등 많게는 1천여개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함께 전방지역에서 운용되는 사정거리 1백25km의 펜스미사일 1개 대대의 해제가 관심을 모으는데, 지대지미사일인 펜스는 재래식 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점에서 비핵전력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 남한 배치 핵무기 철수 시점이 단계적인 5년간의 철수에 상 시강표와는 달리 예초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앞당겨짐에 따라 남북한의 군사구조와 우리의 국방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핵무기는 안보·군사면에

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평가에서는 관점과 논자에 따라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안보·국방관계자들이 남한을 열세라고 판단하는 한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 수 없다. 이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이 주목되는데, 현재와 같은 세계적 군축 분위기와 남북한 관계호전 조짐이 지속된다면 급격한 국방정책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형 전력구조와 군비증강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핵개발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래전력의 대폭 증강 및 무기 현대화 주장과 입상이 지남보다 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남한에서

美核정책, 南北韓관계 轉機로

社 說

대한민국은 1991년 9월 30일 현재 남북한 간의 핵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부시의 「核공포解放」 선언

社 說

부시 대통령의 「核공포解放」 선언은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의 「核공포解放」 선언은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정책 변화는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특히 미국의 핵정책이 '전략적 모호성'에서 '확고한 억제력'으로 바뀌면, 남북한 간의 핵무기 경쟁은 줄어들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정당화해 왔지만, 최근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핵무기 보유를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보유를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보유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보유를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보유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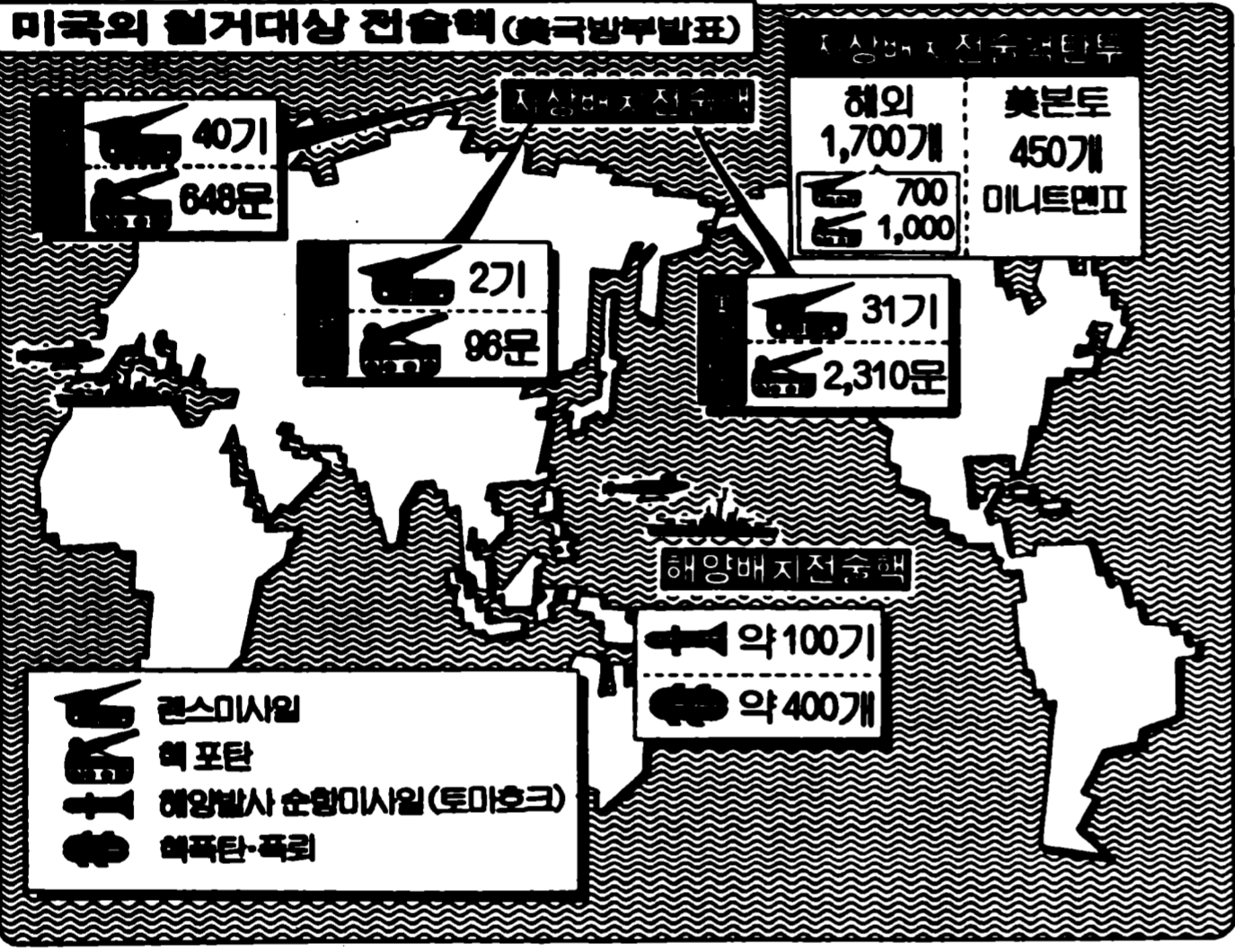
한반도非核化 "길이 보인다"

駐韓核철폐수이후 時機선택 北핵포기 보장여부도 變數

부시宣言 계기로 본 美구상

駐韓美軍의 핵무기 철수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관문이다. 특히 핵무기 철수가 종전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보유를 철폐하는 것이 한반도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는 동인이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는 동인이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는 동인이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의 관문이다. 특히 핵무기 철수가 종전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보유를 철폐하는 것이 한반도의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는 동인이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는 동인이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수 있는 동인이다.



蘇-中國도 북한 핵개발 저지압력

美일포위망치로 남차관, 부시선언배경, 회견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며, 중국은 '중립' 정책을 펼치며,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합수였다. 부시 대통령의 이그서



北은 핵보유야 심버리는게 좋아 美의 위협 알고 세계 추세 따라야

—부시와 김정은 회견
미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며, 중국은 '중립' 정책을 펼치며,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합수였다. 부시 대통령의 이그서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며, 중국은 '중립' 정책을 펼치며,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며, 중국은 '중립' 정책을 펼치며,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며, 중국은 '중립' 정책을 펼치며,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며, 중국은 '중립' 정책을 펼치며,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며, 중국은 '중립' 정책을 펼치며,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 후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며, 중국은 '중립' 정책을 펼치며, 양국은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원 신 언 = 金 炳 武 著 金 炳 武 著

핵심협 1년정지·軍70萬감축

海上·重폭격기 核제거... 중앙통제 미사일 개발중지·核潛 6척 퇴역

【워싱턴 7일 특보】

【워싱턴 7일 특보】 미국과 소련이 1년정지 핵협정(START)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고, 중거리 폭격기와 미사일을 퇴역시키며, 핵잠수함을 6척 퇴역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는 핵무기 보유량 감축, 중거리 폭격기 및 미사일 퇴역, 핵잠수함 퇴역, 핵무기 제조 시설 폐쇄 등이 포함된다. 이 협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워싱턴 7일 특보】 미국과 소련이 1년정지 핵협정(START)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고, 중거리 폭격기와 미사일을 퇴역시키며, 핵잠수함을 6척 퇴역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는 핵무기 보유량 감축, 중거리 폭격기 및 미사일 퇴역, 핵잠수함 퇴역, 핵무기 제조 시설 폐쇄 등이 포함된다. 이 협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협정 체결을 축하하는 미국 국무장관인 매튜 아츠벨트

【워싱턴 7일 특보】 미국과 소련이 1년정지 핵협정(START)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고, 중거리 폭격기와 미사일을 퇴역시키며, 핵잠수함을 6척 퇴역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는 핵무기 보유량 감축, 중거리 폭격기 및 미사일 퇴역, 핵잠수함 퇴역, 핵무기 제조 시설 폐쇄 등이 포함된다. 이 협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워싱턴 7일 특보】 미국과 소련이 1년정지 핵협정(START)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핵무기 보유량을 감축하고, 중거리 폭격기와 미사일을 퇴역시키며, 핵잠수함을 6척 퇴역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에는 핵무기 보유량 감축, 중거리 폭격기 및 미사일 퇴역, 핵잠수함 퇴역, 핵무기 제조 시설 폐쇄 등이 포함된다. 이 협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시 취임

【워싱턴 7일 특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부시 당선인은 취임사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당선인은 1989년 1월 13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고리바초프 핵감축선언 배경·전망

러시아의 핵감축선언은 1991년 10월 8일 고리바초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발표한 것이다. 이 선언은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을 종식시키고,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핵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국제안보를 증진하겠다는 취지였다.

蘇 平和 이미지 · 經援 노린 포석

전술핵보다 美 SDD-1 制動 겨냥
「공중핵」포함 「核우산無力化」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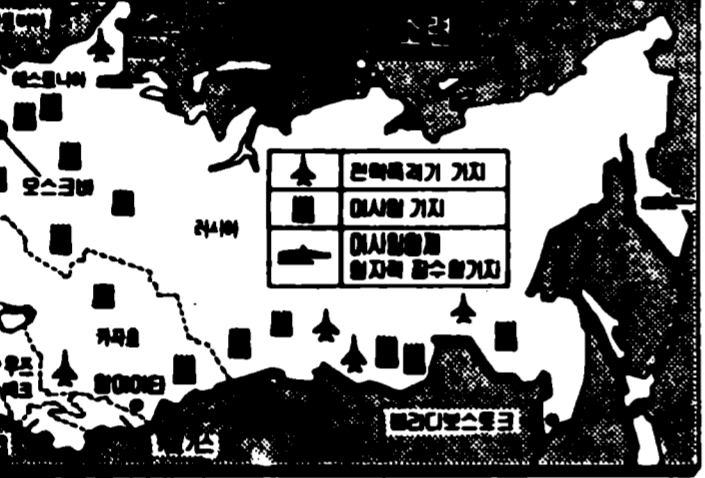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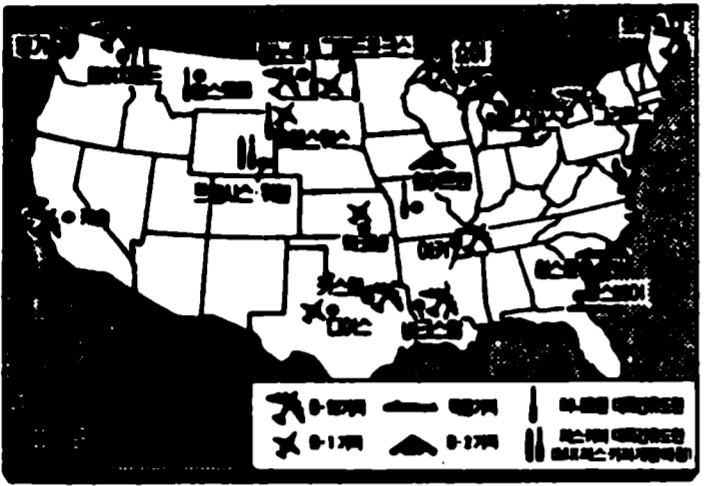
美·蘇 모두 「優位부분」인 과잉 핵 실험縮까지 「險路」

미국은 고리바초프의 핵감축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선언이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을 종식시키고,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고리바초프의 핵감축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선언이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을 종식시키고,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고리바초프의 핵감축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선언이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을 종식시키고,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고리바초프의 핵감축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선언이 냉전시대의 핵무기 경쟁을 종식시키고,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핵무기 보유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美·蘇 군축제안 비교

구분	미국	소련
핵무기 보유량	24,000	45,000
전략핵무기 보유량	10,000	20,000
전술핵무기 보유량	14,000	25,000
핵무기 보유기간	30년	50년
핵무기 보유목적	방위	공격
핵무기 보유위치	미국 본토	유럽, 아시아
핵무기 보유비용	100억 달러	150억 달러
핵무기 보유기술	고급	중급
핵무기 보유정책	제한	확대

【歐米대사관】

美蘇軍縮세계로 확산을

美蘇의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세계 각국은 이 협정이 자신들의 군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군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안보협력체(Euro-Atlant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안보협력체(Asia-Pacif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美蘇의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세계 각국은 이 협정이 자신들의 군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군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안보협력체(Euro-Atlant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안보협력체(Asia-Pacif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美蘇의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세계 각국은 이 협정이 자신들의 군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군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안보협력체(Euro-Atlant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안보협력체(Asia-Pacif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軍備경쟁서 軍縮時代로

社說

美蘇의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세계 각국은 이 협정이 자신들의 군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군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안보협력체(Euro-Atlant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안보협력체(Asia-Pacif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美蘇의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세계 각국은 이 협정이 자신들의 군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군축협정이 체결된 후 군축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안보협력체(Euro-Atlant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안보협력체(Asia-Pacific Partnership Talks)가 군축협정의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社 說

美蘇의 軍縮과 韓半島

美蘇의 軍縮은 美蘇전쟁의 終結과 美蘇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다. 그러나 美蘇의 軍縮은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아니다.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있다.

美蘇의 軍縮은 美蘇전쟁의 終結과 美蘇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다. 그러나 美蘇의 軍縮은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아니다.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있다.

美蘇의 軍縮은 美蘇전쟁의 終結과 美蘇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다. 그러나 美蘇의 軍縮은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아니다.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있다.

美蘇의 軍縮은 美蘇전쟁의 終結과 美蘇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다. 그러나 美蘇의 軍縮은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아니다.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있다.

이러한 平和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있다. 그러나 美蘇의 軍縮은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아니다.

이러한 平和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있다. 그러나 美蘇의 軍縮은 韓半島의 平和를 實現하는 必要의 條件이 아니다.

社 說

고려비의 核감축 선언

미국을 제외한 9.8%의 核감축을 선언한 고려비는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다. 그러나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더라도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9.8%의 核감축을 선언한 고려비는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다. 그러나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더라도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9.8%의 核감축을 선언한 고려비는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다. 그러나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더라도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 아니다.

미국을 제외한 9.8%의 核감축을 선언한 고려비는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다. 그러나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더라도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 아니다.

그러나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더라도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 아니다. 그러나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더라도 核감축을 선언한 唯一의 國家이 아니다.

평등하기 위한 남북 핵 논의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 남한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 남한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남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 북한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남·북 핵화 방침

南北韓 보유만 배제

北 비핵시대화

외부서 반입도 금지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 남한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 남한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남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 북한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남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 북한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남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 북한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남한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경우 북한도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북 핵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핵없는 한반도」 접근방법은 視角差

南北核정책 어떻게 다를까

「핵없는 한반도」의 접근방법은 「핵없는 한반도」의 접근방법과 북한의 「非核化」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핵없는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의 접근방법과 북한의 「非核化」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핵없는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의 접근방법과 북한의 「非核化」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 「핵없는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의 접근방법과 북한의 「非核化」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핵없는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의 접근방법과 북한의 「非核化」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 남북한 핵정책 비교

구분	남한(非核化정책)	북한(비핵지대화案)
非核원칙	△제조 보유 저장 △배출 사용금지 △핵에너지의 평화 △최사용	△실험 생산 반입 소유 사용금지
핵통행권	△국제적 「無差通行권」 보장원칙에 입각한 핵무기의 자유로운 이동	△핵탑재가 가능한 항공기-함정의 기함, 영공-영해 통과 금지
핵무기 보유	△계속유지	△폐기요구
핵무기 선제발사 (잠재능력)	△포기 무기 제조에 이 △핵무기 제조에 이 △핵무기 제조에 이 △핵무기 제조에 이	△언급없음

우리측 「핵우산」 유지할 통행권 보장 바라 북측은 핵탑재 가능한 수송수단 통행 반대

「핵없는 한반도」의 접근방법과 북한의 「非核化」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핵없는 한반도」는 「핵없는 한반도」의 접근방법과 북한의 「非核化」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참조기사〉

이젠 北韓이 非核化 할 차례

社說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

社說

이동호, 김대중, 노태우, 김영삼, 최민식...
 이러한 인물들은...
 ...

이러한 인물들은...
 ...

핵심·미안 양보안

이러한 인물들은...
 ...

핵영기 기 핵우행

핵심·미안 양보안

이러한 인물들은...
 ...

이러한 인물들은...
 ...

이러한 인물들은...
 ...

社說

「非核化」와 「非核地帶化」 사이

— 北은 무조건 핵사찰 수용해야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1.8선언」 이행에 실패하는가

북한은 11월 8일 평양에서 발표한 「11.8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며 핵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11월 8일 평양에서 발표한 「11.8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며 핵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北韓실득-壓力 양면戰略



북한은 11월 8일 평양에서 발표한 「11.8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며 핵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頂上채널 가동모색 經協등 보장 美-유엔에 核사찰단 파견등 요구

북한은 11월 8일 평양에서 발표한 「11.8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며 핵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11월 8일 평양에서 발표한 「11.8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며 핵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11월 8일 평양에서 발표한 「11.8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며 핵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11월 8일 평양에서 발표한 「11.8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며 핵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11월 8일 평양에서 발표한 「11.8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며 핵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11월 8일 평양에서 발표한 「11.8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선언문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시설을 폐쇄하며 핵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통신>

“사형이냐” “북핵선언” “부티기가”

북핵선언에 대한 비핵화선언이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
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
할 것이라고 북한은
선언했다.

盧대통령 非核化선언

이대통령은 11월 9일
남한에서 열린
비핵화선언
발표식에서
북한에
비핵화선언을
촉구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대통령은 11월 9일
남한에서 열린
비핵화선언
발표식에서
북한에
비핵화선언을
촉구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대통령은 11월 9일
남한에서 열린
비핵화선언
발표식에서
북한에
비핵화선언을
촉구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대통령은 11월 9일
남한에서 열린
비핵화선언
발표식에서
북한에
비핵화선언을
촉구했다.

북의 핵개발 동향에 대한 배수진 주변국 영미일법 끌어들여 사전포석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대통령은 11월 9일
남한에서 열린
비핵화선언
발표식에서
북한에
비핵화선언을
촉구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대통령은 11월 9일
남한에서 열린
비핵화선언
발표식에서
북한에
비핵화선언을
촉구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포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대통령은 11월 9일
남한에서 열린
비핵화선언
발표식에서
북한에
비핵화선언을
촉구했다.

韓半島에서 核제조·보유하지 말자

核안전協定 준수·국제査察 수용 北은 이젠 核사찰 거부 名分 없어

盧태령명 '平和구축위한 非核化선언'

盧泰령대통령은 8일 무기개발을 포기하라고 강령을 촉구했다. 「우리반핵무기제조·보유·저장·配備·사용하지 않겠다」 「韓半島 非核化를 위한 발의안」 「한반도의 비핵화」 「北의 核개발을 위한 平和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盧泰령대통령이 8일 靑瓦臺에서 「韓半島의 非核化와 平和구축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金允燦기자>

盧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발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발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非核化정책「선언」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발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발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발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北 核시설 폐기 단정적 기법 개발

北은 핵시설을 폐기하고 단정적 기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駐韓美軍核 있다면 주위 철수

韓·美 구체협약 완료되면 "無核 실현" 선언

核우산 보호公約 불변, 高位당국자

駐韓美軍核이 있다면 주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南北 고위會談서 核문제 해결하자

북한정부는 7일 서울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성명서는 남북 양측이 합의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이다.

남측은 이 성명서를 환영하며,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양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 성명서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양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 성명서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양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 성명서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양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남북회담 합의문 채택한 뒤 핵문제 해결

남북 고위급 회담이 7일 서울에서 끝났습니다. 회담은 6일 밤부터 7일 오전까지 진행됐으며, 양측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남측은 이 성명서를 환영하며,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양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 성명서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양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 성명서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양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남측은 이 성명서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남북 양측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核제거 길 뚫었다

盧대통령 非核·非生化學 선언의미

盧대통령은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 선언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 선언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盧대통령은 8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北核개발 저지 위해 일방선언

국제 軍縮조류 동참...南北신뢰 구축

「반입」 일방선언 北수영영부 미지수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일시	내용	비고
▲68.12.26	핵무기금지조약(NPT) 가입	
▲75.6.12	朴正熙대통령, 「美韓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	
▲75.11.11	핵안정협정체결	
▲77.5.26	朴정희대통령, 핵무기개발금지법 제정	
▲77.6.29	朴정희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	
▲77.8.29	朴정희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	
▲79.8.1	외무부대변인 성명, 北韓의 비핵지대화 주장에 핵사찰을 반대할 수 없다고 핵무기개발을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	
▲79.9.24	盧泰우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	
▲79.11.8	盧대통령, 비핵지대화 선언	
▲76.8	「한국문제 긴급 東亞국 회의」에서 「非核의 비핵지대화」를 주장	
▲80.10.10	제6차 韓대회에서 제 1차 韓北회담의 10대 시정방안 중의 하나로 비핵지대화제시	
▲85.12	핵무기금지조약(NPT) 가입	
▲86.6.23	정부성명, 비핵지대화를 공신제의 일환으로 추진	
▲87.7.13	외교부성명, 비핵지대화를 위한 노력	
▲90.5.31	「非核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노력」을 위한 노력	
▲91.7.30	외교부성명, 비핵지대화를 위한 노력	
▲91.8.26	외교부성명, 비핵지대화를 위한 노력	
▲91.9.28	외교부성명, 비핵지대화를 위한 노력	
▲91.10.23	4차외교회담에서 延平島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발표	

이 선언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선언이다.

美「核우산」방위 차질없



미국은 핵우산 방위 차질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우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에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핵발전부산물 플루토늄으로 5개국만 보유 고난도기술... 개도국 핵 실험권 핵합성 기항-飛越權... 비핵지대

미국은 핵우산 방위 차질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우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에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핵발전부산물 플루토늄으로 5개국만 보유 고난도기술... 개도국 핵 실험권 핵합성 기항-飛越權... 비핵지대

유사시엔 태평양중추선 美軍 증시 출동 「戰時협정」도 곧 서명...對北경계 더 강화

미국은 유사시엔 태평양중추선 美軍 증시 출동 「戰時협정」도 곧 서명...對北경계 더 강화

미국은 유사시엔 태평양중추선 美軍 증시 출동 「戰時협정」도 곧 서명...對北경계 더 강화

北韓「核」실험-「飛越權」강제사찰 검토

北韓 「核」 실험-「飛越權」 강제사찰 검토

北韓 「核」 실험-「飛越權」 강제사찰 검토

미국은 핵우산 방위 차질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우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에 안전을 보장해 주는 핵발전부산물 플루토늄으로 5개국만 보유 고난도기술... 개도국 핵 실험권 핵합성 기항-飛越權... 비핵지대

3원칙」國是로...「반일」대처는 「美」

3원칙」國是로...「반일」대처는 「美」

3원칙」國是로...「반일」대처는 「美」

北선언,美반응과 日「非核」정책

北선언,美반응과 日「非核」정책

北선언,美반응과 日「非核」정책

Ⅲ. 南北韓 UN 同時加入

對南정책 유연성 "신호"

양정기법 정착과 북한의 정책 변화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남한에 대해 '양정기법 정착'을 강조하며, 이는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정기법의 정착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安保理·總會 통과돼야 北 정세불리 판단... 선회 결정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남한에 대해 '양정기법 정착'을 강조하며, 이는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정기법의 정착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남한에 대해 '양정기법 정착'을 강조하며, 이는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정기법의 정착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北韓어권 「양정기법」 적용

북한은 최근 몇 년 동안 남한에 대해 '양정기법 정착'을 강조하며, 이는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양정기법의 정착은 북한의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 ▲ 49. 1. 19 = 기인신정 (처리안결)
- ▲ 51. 12. 22 = 기인신정 (처리안결)
- ▲ 61. 4. 21 = 기인신정 (처리안결)
- ▲ 75. 7. 29 = 기인신정 (처리안결)
- ▲ 75. 9. 21 = 기인신정 (처리안결)
- ▲ 49. 4. 8 = 自由中國, 안기인정 (처리안결)
- ▲ 57. 9. 6 = 美國, 北韓어권 (총회가결)
- ▲ 58. 12. 9 = 美國, 北韓어권 (총회가결)
- ▲ 49. 2. 9 = 기인신정 (처리안결)
- ▲ 52. 1. 2 = 기인신정 (처리안결)
- ▲ 57. 1. 24 = 蘇聯, 北韓어권 (총회가결)

▶ 편집

社 説

北韓의 UN加入결정. 환영

— 北南關係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

북한이 4월 2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UN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은 그동안 UN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UN에 가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이 UN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은 그동안 UN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UN에 가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이 UN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은 그동안 UN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UN에 가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이 UN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은 그동안 UN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UN에 가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이 UN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은 그동안 UN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UN에 가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이 UN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은 그동안 UN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UN에 가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이 UN에 가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북한은 그동안 UN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UN에 가입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南北韓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

남북은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安保理 결정→총회개막 첫날 박수통과

북은노 5월 17일 전 시정행방

남북은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5월 17일까지 變異



유엔가입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남북의 유엔가입을 놓고 5개 상임이사국의 전원이 찬성이 필요하다.

남북은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유엔회담을 5월 17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社 説

南北관계의 先과 後

우리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현상과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관계는 상당히 긴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北韓 유엔가 입단 촉구 신청

어제 金永南부총리 명의... 유엔사무국에

韓國은 내달 9일안에... 安保理事국인 화실시

【서울 9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유엔 사무국은 9일 북한으로부터 받은 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내달 9일 안보리에서 이 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사무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 북한은 유엔의 규약과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잇단 對北제의에 「先手신청」

北韓 유엔가입서 獨自 제출 배경

북한이 유엔 가입 신청서를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것은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 유엔 가입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가입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가입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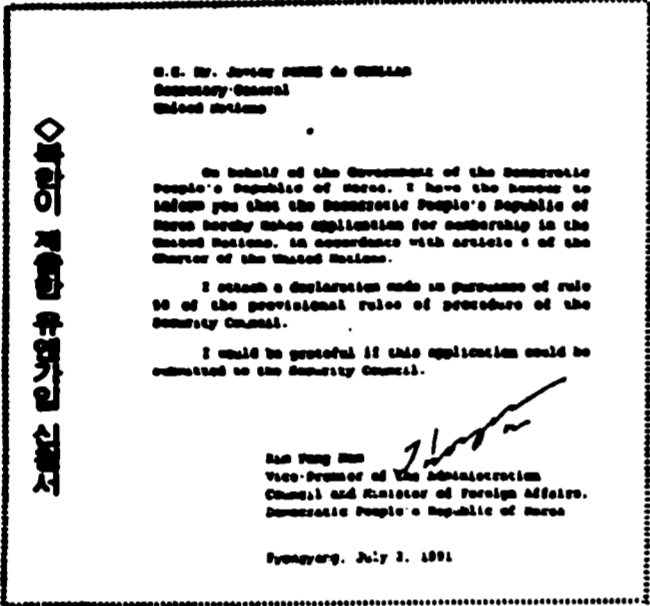
북한이 유엔 가입을 신청한 것은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남북한관계 적극성 과시 포석

심미 「단일」로... 동시가입 확실

쿠바가 7월 安保理의장국... 對北지원 고려한 듯

북한이 유엔 가입을 신청한 것은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 유엔 가입을 위한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

북한이 유엔 가입을 신청한 것은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유엔 가입을 위한 '先手'로 보인다.

社說

北의 유엔加入 신청과 責務

북한은 유엔 안전이사회에 유엔 가입을 신청한 이래로 남북한 분리를 전제로 유엔에 가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조선일보(1991. 7. 10)

북한의 처우원先手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남북한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유엔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엔이 냉전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이 남북한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유엔의 본질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유엔加入 오늘 새벽 신청

케아트르總長에 安保理 8일 「南北단일안」 처리

9월17일總會서 만장일치 통과 될 듯

유엔가입신청서 5월 31일 3시 30분(현지시간) 6월 4일 3시 30분(유엔사무국)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유엔가입신청서 5월 31일 3시 30분(현지시간) 6월 4일 3시 30분(유엔사무국)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유엔가입신청서 5월 31일 3시 30분(현지시간) 6월 4일 3시 30분(유엔사무국)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케아트르사무총장이 1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유엔 사무국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케아트르사무총장은 유엔가입신청서 제출 후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남북 단결과 평화의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엔가입신청서 5월 31일 3시 30분(현지시간) 6월 4일 3시 30분(유엔사무국)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유엔가입신청서 5월 31일 3시 30분(현지시간) 6월 4일 3시 30분(유엔사무국)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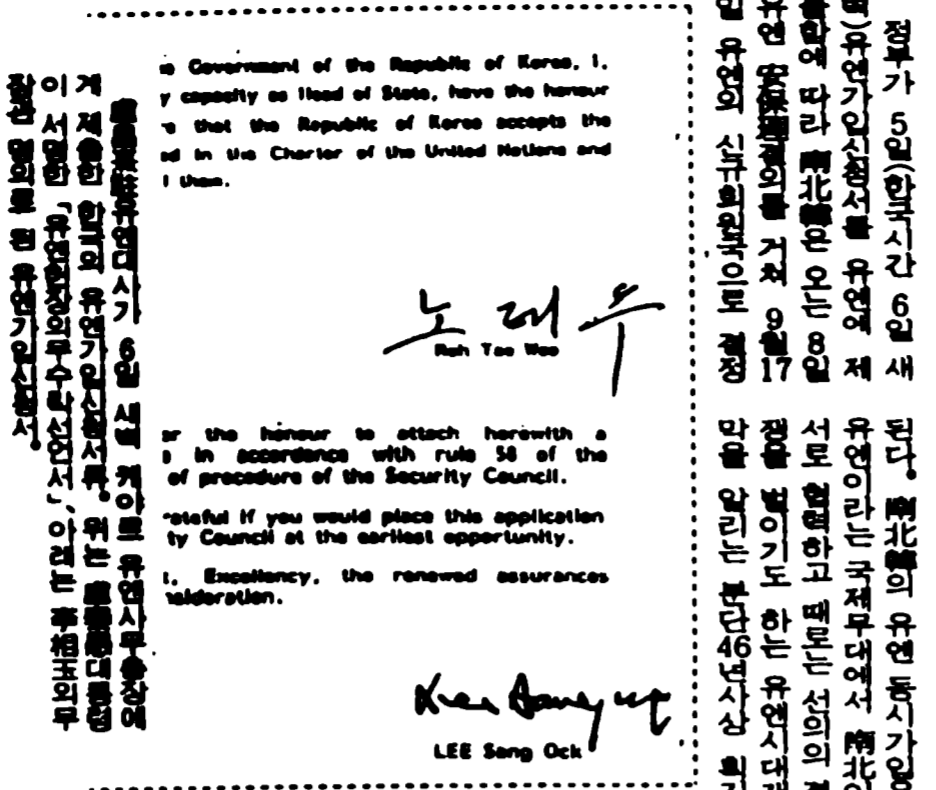
유엔가입신청서 5월 31일 3시 30분(현지시간) 6월 4일 3시 30분(유엔사무국)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유엔가입신청서 5월 31일 3시 30분(현지시간) 6월 4일 3시 30분(유엔사무국)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유엔가입신청서 5월 31일 3시 30분(현지시간) 6월 4일 3시 30분(유엔사무국)에 유엔가입신청서를 정식 제출했다.

南北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

政府, 가입신청서 제출의 의미



정부가 5일(한국시간 6일) 새 정부(김영삼 내각) 출범을 맞아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은 남북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은 남북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은 남북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정부는 5일(한국시간 6일) 새 정부(김영삼 내각) 출범을 맞아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은 남북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은 남북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은 남북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南北韓 유엔가입 관련 日誌

- ▲49. 1. 19=韓國, 高昌一의 무장관서리 명의로 가입신청(蘇聯의 거부권행사)
- ▲49. 2. 9=북한, 朴憲永의 교부장 명의로 가입신청 전문을 유엔사무총장에게 발송
- ▲49. 4. 8=자유중국, 韓國 가입권고 결의안 안보리제출(蘇聯 거부권행사)
- ▲49. 10. 31=蘇聯, 韓國등 9개국의 가입문제 안보리 재심 촉구 결의안 제출(총회에서 결의안 채택됐으나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안보리 불상정)
- ▲51. 12. 22=韓國, 張勉총리 명의로 가입신청서 제출(처리안됨)
- ▲52. 1. 2=北韓, 朴憲永의 교부장 명의로 가입신청 전문 발송(처리안됨)
- ▲54. 11. 11=美國, 아르헨티나등 3개국의 「10개국 가입권고」공동결의안에 한국과 베트남을 추가하는 수정안 총회 제출(표결 없음)
- ▲55. 12. 1~7=쿠바, 캐나다등 28개국의 18개국 가입권고 공동결의안에 대한 소련수정안에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 20개국으로 하는 재수정안을 총회 특별정치위에 제출(소련 수정안 철회)
- ▲55. 12. 10=자유중국, 韓國 가입권고결의안 안보리 제출(표결없음)
- ▲55. 12. 13=자유중국, 브라질과 뉴질랜드의 공동결의안중 가입신청국 명단에 韓國과 베트남을 추가하는 수정안 안보리에 제출(소련의 거부권행사)
- ▲57. 1. 22=美國등 13개국, 韓國유엔가입문제 재심 촉구 공동결의안 제출(총회에서 가결됐으나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안보리 불상정)
- ▲57. 1. 24=소련, 南北韓 南北베트남등 4개국 동시기가입 검토 안보리에 촉구하는 결의안 제출(특정위 부결)
- ▲57. 9. 6=미국등 8개국, 韓國유엔가입권고 공동결의안 안보리 제출(소련의 거부권행사)
- ▲57. 9. 9=소련, 미국등 8개국의 韓國가입권고 공동결의안에 北韓가입권고도 포함하는 수정안 안보리제출(안보리 부결)
- ▲58. 12. 9=미국등 4개국, 韓國가입권고 공동결의안 안보리 제출(소련 거부권행사)
- ▲58. 12. 9=蘇聯, 美國 등 4개국의 韓國가입권고 공동결의안에 北韓가입권고도 포함하는 수정안 안보리 제출(안보리 부결)
- ▲61. 4. 21=韓國, 鄭一후의 무장관 명의로 가입신청 재심 요청(처리안됨)
- ▲75. 7. 29=韓國, 金東祚의 무장관 명의로 가입신청 재심 요청(안보리 의제 채택 부결)
- ▲75. 9. 21=韓國, 金東祚의 무장관 명의로 가입신청 재심 요청 및 北韓가입 不反對 서한 제출(안보리 의제 채택 부결)
- ▲91. 4. 5=韓國, 연내 가입 의사를 밝히는 정부각서를 안보리 문서로 배포
- ▲91. 5. 28=北韓, 연내에 유엔가입 신청서를 제출기로 결정했다는 외교부 성명 발표
- ▲91. 7. 8=北韓, 유엔가입 신청서 제출
- ▲91. 8. 5=韓國, 유엔가입 신청서 제출

“協力과 경쟁”... 分斷史의 획기적 轉機

발언·투표권 가져 국제적地位 격상

정부는 5일(한국시간 6일) 새 정부(김영삼 내각) 출범을 맞아 유엔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은 남북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은 남북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유엔 가입신청서 제출은 남북이 함께 걸는 유엔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유엔가입절차 어떻게 되나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 될 수 있는가? 유엔 가입절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유엔 가입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南北「유엔」시대 개막序曲

7월 심사-8월 결의-9월17일 승인으로 '대단원',
정부, 北韓과 나란히 앉게 英文이니셜 변경 모색

북한도 유엔 가입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유엔 가입절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한겨레〉



유엔가입 신청서 제출
북한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북한 유엔가입신청서(오른쪽)가
서울에서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되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오른쪽)을
본다>

憲章정신 따라 世界평화 기여 기대 南北韓의 관계개선 대화 기대 커야

유엔加入신청 安保理회부

8일 南北韓인정리 나 17일 會見 申포

북한이 유엔가입신청서
를 6일(현지시간) 유엔사
신(상주)에 유엔 사무총
장에게 제출했다.

<3일의 관행>
북한은 유엔가입신청서
를 6일(현지시간) 유엔사
신(상주)에 유엔 사무총
장에게 제출했다.
북한은 유엔가입신청서
를 6일(현지시간) 유엔사
신(상주)에 유엔 사무총
장에게 제출했다.

북한이 유엔가입신청서
를 6일(현지시간) 유엔사
신(상주)에 유엔 사무총
장에게 제출했다.
북한은 유엔가입신청서
를 6일(현지시간) 유엔사
신(상주)에 유엔 사무총
장에게 제출했다.

社說

南北韓 통일시대의課題

통일시대가 다가오면 통일시대의 과제... 남북한은 통일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시대의 과제... 남북한은 통일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시대의 과제... 남북한은 통일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시대의 과제... 남북한은 통일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시대의 과제... 남북한은 통일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통일시대의 과제... 남북한은 통일시대를 맞이하며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서울신문(1991. 8. 7)

社說

유엔加入과韓半島情勢발전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한반도 정세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南北韓 유엔加入 확정

가일권교섭의안 安保理事 새벽 만장일치 통과

【유엔리브(루) 9일路透電】 유엔안보리 이사회의는 9일 8시 50분경에 이르러 유엔리브에서 3001차 회의록을 열었고 북韓 유엔가입의안과 결의안 3001차 회의록을 열었고 유엔리브에서 9월 17일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아니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유엔'에 두 나라의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유엔리브의 규정을 개정하고 유엔의 명칭과 목적을 강화 하기로 결정했다. 기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안보리 5대 이사회의는 9일 8시 50분경에 이르러 유엔리브에서 3001차 회의록을 열었고 북韓 유엔가입의안과 결의안 3001차 회의록을 열었고 유엔리브에서 9월 17일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리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일사천리... 8분만 영처리

유엔가담인정과 안보리표정

...북한의 영처리가 유엔가담인정과 안보리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북한의 영처리가 유엔가담인정과 안보리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북한의 영처리가 유엔가담인정과 안보리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40년 대결외교이젠 엇배기됐다

南北韓대사서로 축하하주소나누

40년 대결외교이젠 엇배기됐다. 남북한 대사가 서로 축하하주소 나누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40년 동안의 대결외교를 마감하고, 새로운 외교시대를 연다는 의미가 있다. 유엔가담인정과 안보리표정도 이와 관련이 깊다.

북한의 유엔가담 인정

安보리표정

북한의 유엔가담 인정은 안보리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안보리권거절의인 숙차

安보리표정

안보리권거절의인 숙차는 안보리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南北韓유엔가담」安보리의장성명全文

北韓의 유엔가담 인정은 안보리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유엔가담인정과 안보리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엔가담인정을 받은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가담인정을 받지 못한 북한은 안보리에서 영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양측의... (Introductory text about the article's focus on North-South Korean relations)

南北韓 외교史에 새지평

유엔 동시加入 확정 의미

유엔 동시加入... (Text discussing the significance of simultaneous UN membership for North and South Korea)

「두政府」공식화 正統시비 증식 統一 논의엔 兩者협력 필수적

「두政府」공식화... (Text discussing the formalization of two governments and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for unification)



盧鳳翼대사(가운데)가 9일새벽 南北韓 유엔가입권고 결의안이 安保理事 常任 委員로 통과되고나서 안보리 외장인 호세 아말라 라소 에파도르 대사로부터 축하를 받고있다. 왼쪽에서 3 번째는 차승호북한대사. 【MBC TV촬영】

한편 유엔 동시加入...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discussing international reactions and the path forward for unification)

社 說

유엔加入은 시작일 뿐

加-북한의 유엔가입이 비단종전
정국였다. 1954년 5월 8일 '유엔
가입문제'에 관해 유엔총회 제1048회
총회에서 유엔가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사회를 설치하고 유엔 가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유엔가입
문제에 대한 논의는 유엔총회 제1048
회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유엔가입
문제는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유엔가입은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
문제는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은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
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
문제는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은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
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
문제는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은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
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
문제는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은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
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
문제는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은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
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가입
문제는 유엔헌장 제42조 제2항에
규정된 유엔의 평화유지책임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유엔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南北韓 유엔加入案總會 제출

1백15개국서명 17일 만장일치 통과 예상

盧대통령, 23일 부시와 만날 듯

南北韓의 유엔가입안이 전체 1백59개 회원국중 1백15개국의 서명을 받아 14일 총회상정할 위해 유엔사무부에 정식 제출했다. 고 의무부가 이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일부터 유엔회원국들의 서명확보를 위해南北韓의 유엔가입안을美 英國 프랑스 蘇聯中國 동 안도리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서명했으며南北韓 駐유엔대사관 합의에 따라 유엔사무부에 정식 제출했다. 유엔총회 결의안 안의 제정되어야 한다. 이 결의안 제출은 韓半島분단이후 유일했던 유엔가입에 따른 제안 절차는 모두 끝났으며, 오는 17일 총회 개막일에 상정돼 관례대로 회원국 만장일치의 박수송에 통과되는 과정만 남게 된다.

이와관련 주미외무장관이 南北韓 유엔가입문제에 대해 16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상오 출국한다.

추장관은 17일 하오 3시(韓國시각 18일 상오 4시) 유엔총회에서 南北韓 유엔가입안이 1백59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된 뒤 강석주 北韓외교부 부장에 이어 유엔가입 수락연설을 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蘇聯으로부터 독립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3국과 미크로네시아 마셜도 등의 국가도 유엔에 가입, 회원국은 모두 1백66개국으로 늘어나게 된다.

추장관은 이어 총회 의장단 국가세양대에서 거행되는 신규회원국 국가계양식과 駐유엔 韓대대표부 현관식에 참석한다.

추장관은 이어 앞서 16일 상오 데마크 제45차 총회의장 및 케이트 사무총장을 예방, 그동안 우리의 유엔가입을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며 17일 상오 10시(韓國시각 18일 하오 11시) 총회 개막식에 참석한다.

18일에는 우크라이나공화국 및 잠비아외무장관들과 회담할 것으로 유엔내에서의 상호 협력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추장관은 또 귀국하지 않고 20일 시애틀에서 訪美하는 盧泰憲대통령을 영접, 盧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24일), 韓美정상회담 및 멕시코 공식방문 등을 수행한 뒤 뉴욕을 다시 방문한다.

추장관은 뉴욕 2차방문시 10월초 아세안 6개국을 주회하는 만찬에 참석하는 등 北韓을 비롯, 다국외무장관과 다각적인 접촉을 가질 예정이다.

유엔소식통발령

【뉴욕 15일】 조지 부시美 國대통령은 오는 23일 뉴욕에서 盧泰憲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韓國의 유엔 대표부 소식통들이 13일 말했다.

두 대통령의 회동이 이

번 총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南北韓의 유엔가입신청에 대한 승인이 있을지 여부를 이 후 어질 것이다.

소식통들은 또 남북한의 대표들의 만찬 가능성이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기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오늘 새벽 역사적 加入

續會만장일치

새 세계질서 형성에 적극 동참 韓半島 항구적平和체제 구축

무외
李수라

南北韓 유엔회원국 되다

【서울=사태(專電)】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이 1991년 유엔에 가입할 것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韓半島의 유엔가입안 통과에 따른 수리연설을 위해 총회장에 들어가기 직전 李相(右)과 盧副議長(左)이 유엔본부 건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유엔본부AP촬영>

政府, 韓半島 統一 政府, 韓半島 統一 政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유엔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엔 회원국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加入 實現인 北方의 統一 決心”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유엔의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엔 회원국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대외서 케아트 사무총장과 李장관·김부부장 등 7개 신구회담 대표단이 참석한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유엔은 이날 결의안에서 북한을 유엔의 151번째 회원국으로 인정했다.

南北 「유엔채널」 統一 향한 巨步

동시가입역사적의의와전망

동북한의 유엔가입이 동북한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되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되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되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되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되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되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되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게 된다.

주변 4강 교차승인 일정 단축 촉매역 한반도분단公認 동시에 극북轉機도

보편성원칙 창설 40여년만에 비로소 완성

유엔의 보편성원칙 창설 40여년만에 비로소 완성

유엔의 보편성원칙 창설 40여년만에 비로소 완성

유엔의 보편성원칙 창설 40여년만에 비로소 완성

유엔의 보편성원칙 창설 40여년만에 비로소 완성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한반도 전체가 유엔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되고, 유엔의 규범과 원칙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다.



남북韓 동시가입이 의결된 17일 유엔총회참석에 앞서 李相玉 외무장관이 朴定洙국회외무통일위원장, 朴煥鎧의원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KBS TV촬영)

유엔가입=차로 轉機의역

동시가입 總司令과 이의하 代表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南北韓 「유엔무대」 활짝 열렸다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脫냉전질서속 對話촉진 기대 多者외교돌입...長期전략 필요



17일 유엔총회 개막에 앞서 李相玉외무부 장관(왼쪽)과 盧鳳業 유엔주재 대사가 유엔본부 앞에 서있다. 【유엔본부=AP통신】

북한이 유엔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이다.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 유엔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1991년 9월 17일 유엔총회 개막을 앞두고이다.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한 통일위원회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남북한 통일위원회 회담에서 합의한'

社說

南北協力の 시단

南北協力 시단은 남북 협력이 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다. 남북 협력이 시단은 남북 협력이 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다. 남북 협력이 시단은 남북 협력이 시단이라는 이름으로 창간된다.

平和民主統一 추진

북한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남북협력을 위한 시단 창간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희망은 무엇인가.

統一外交의 20년

社說

1971년 9월 17일 밤중에 개막된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뉴욕시민들은 18일 아침 유엔 본부 광장에서 1백66개 회원국 국기들과 나란히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부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한이 다같이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남한은 세계 1백48개 나라와 수교를 해오고 있으며, 북한도 1백8개국과 수교를 해오고 있으나 정작 유엔 무대에서는 업저버로밖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런 일반론만으로도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지난 40여년간 남북한이 변했던 소모적인 정통성 싸움이 끝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듯 남한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48년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개의 정부가 국제법상 '실체'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설

남북한 유엔가입과 통일문제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뉴욕시민들은 18일 아침 유엔 본부 광장에서 1백66개 회원국 국기들과 나란히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부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한이 다같이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남한은 세계 1백48개 나라와 수교를 해오고 있으며, 북한도 1백8개국과 수교를 해오고 있으나 정작 유엔 무대에서는 업저버로밖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런 일반론만으로도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지난 40여년간 남북한이 변했던 소모적인 정통성 싸움이 끝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듯 남한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48년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개의 정부가 국제법상 '실체'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문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물론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가입 결의안 상정과정에서 남북한은 참사관급 또는 대사급 접촉을 빈번히 갖는 등 고무적인 현상도 있었다. 그러나 "유엔 가입이 통일의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남한 쪽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북한쪽이 "변도 가입은 일시적인 조치일뿐 유엔 의식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엔 무대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한국문제 불상정·불토의 원칙이 깨질 공산이 크다면 휴전체제의 조정문제, 유엔군사령부 존재문제, 핵문제 등 통일문제와 관련된 남북한의 현안에 대해 정부는 좀더 선향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일문제에는 '비켜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은 남북한이 다같이 국제사회에서 마땅히 차지해야 할 '자리'를 찾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남한은 세계 1백48개 나라와 수교를 해오고 있으며, 북한도 1백8개국과 수교를 해오고 있으나 정작 유엔 무대에서는 업저버로밖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런 일반론만으로도 민족적 차원에서 볼 때 남북한의 유엔 가입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지난 40여년간 남북한이 변했던 소모적인 정통성 싸움이 끝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우리 정부가 주장하듯 남한만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48년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개의 정부가 국제법상 '실체'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만장일치 同時가입통과

유엔總會

南北 마침내 '유엔악수'

冷戰청산 첫발... 統一 결의 굳혀 후외 부 세계平和·안전보장 적극 기여

【연합회 특파원 서울 17일 특보】 유엔총회 제46차 연례총회 개막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 제46차 연례총회 개막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 제46차 연례총회 개막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역사적 동반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오른)과 남한 최고지도자 김영삼(왼)이 17일 서울에서 만나 남북 정상회담을 성료시키기로 합의했다. (연합회 특보)

유엔총회 제46차 연례총회 개막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 제46차 연례총회 개막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총회 제46차 연례총회 개막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韓半島 평화 디딤돌 놓다



▲47. 11. 14 = 유엔, 남북간의 단독선거 실시결의.
▲48. 8. 15 = 유엔, 한국인사위원회(UNTCOK)의 감시하에 총선거 실시, 정부수립.
▲48. 12. 12 = 유엔,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49. 1. 19 = 한국정부, 최초로 유엔 가입 신청.
▲50. 6. 29 = 유엔안보리, 북한남침 격퇴하기 위해 참전결정.
▲50. 10. 7 =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설치.
▲51. 11. 6 = 한국정부, 뉴욕에 駐유엔을서버 대표부 설치.
▲53. 7. 27 = 휴전협정조인.
▲61. 4. 12 = 유엔, 한국문제토의에 남북대표 공동초청키로 결의.
▲68. 12. 20 = 한국문제의 年例 자동상정을 피하기 위한 「최종상정방식」 채택.
▲73. 11. 29 =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75. 9. 22 = 평화보장마련을 위한 한국측 결의안과 駐韓美軍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측결의안 총회에서 동시 통과.
▲83. 9. 2 = 蘇聯영내에서의 KAL기 격추사건문제 다루기 위한 유엔안보리 긴급소집.
▲88. 10. 18 =盧泰憲대통령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첫 유엔총회 연설.
▲91. 5. 27 = 北韓, 韓國과 유엔 동시 가입의사 표명.
▲91. 8. 8 = 유엔안보리, 남북 유엔가입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韓國과 UN 日誌

- ▲47. 11. 14 = 유엔, 남북간의 단독선거 실시결의.
- ▲48. 8. 15 = 유엔, 한국인사위원회(UNTCOK)의 감시하에 총선거 실시, 정부수립.
- ▲48. 12. 12 = 유엔,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 ▲49. 1. 19 = 한국정부, 최초로 유엔 가입 신청.
- ▲50. 6. 29 = 유엔안보리, 북한남침 격퇴하기 위해 참전결정.
- ▲50. 10. 7 =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설치.
- ▲51. 11. 6 = 한국정부, 뉴욕에 駐유엔을서버 대표부 설치.
- ▲53. 7. 27 = 휴전협정조인.
- ▲61. 4. 12 = 유엔, 한국문제토의에 남북대표 공동초청키로 결의.
- ▲68. 12. 20 = 한국문제의 年例 자동상정을 피하기 위한 「최종상정방식」 채택.
- ▲73. 11. 29 =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 ▲75. 9. 22 = 평화보장마련을 위한 한국측 결의안과 駐韓美軍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측결의안 총회에서 동시 통과.
- ▲83. 9. 2 = 蘇聯영내에서의 KAL기 격추사건문제 다루기 위한 유엔안보리 긴급소집.
- ▲88. 10. 18 =盧泰憲대통령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첫 유엔총회 연설.
- ▲91. 5. 27 = 北韓, 韓國과 유엔 동시 가입의사 표명.
- ▲91. 8. 8 = 유엔안보리, 남북 유엔가입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평화협정의 필요성

북한측은 유엔가입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엔가입은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가입은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가입의 의미와課題

소모적外交대결 청산 협력 절실

기본협정체결 시외회복이론대

북한측은 유엔가입의 새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유엔가입은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엔가입은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國防費등 삭감 「혜택」 국민에 나눠줘야

국방비 등 군사예산 삭감에 국민이 혜택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비 등 군사예산 삭감에 국민이 혜택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비 등 군사예산 삭감에 국민이 혜택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18일 특보】

유엔에 시부린 南北화해

동시 가입과 양이력의 과제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협력관계 다져야 統一 밀거름

성취감에 앞서 현실문제 신경쓸 때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신규이 원각국 (왼쪽)과 김성태 (오른쪽)가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1991년 10월 1일 유엔 가입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 1991년 10월 1일 유엔 가입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할 때 남한과 동시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南北韓의 영사관인 유영근은

社說

1991. 9. 18. 10월 18일

영사관인 유영근은 남북한이 서로 영사관을 교환하는 데 합의한 후 1991년 9월 18일 남한에 도착했다. 유영근은 남한에 도착한 후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갔다. 유영근은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간 후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갔다.

유영근은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간 후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갔다. 유영근은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간 후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갔다.

유영근은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간 후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갔다. 유영근은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간 후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갔다.

유영근은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간 후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갔다. 유영근은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간 후 남한 영사관 건물에 들어갔다.

社 説

유엔가입, 南北韓관계 轉機로

북한측의 유엔가입은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다.

유엔가입은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다.

유엔 가입은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다.

유엔 가입은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다.

유엔 가입은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다.

유엔 가입은 남북한 관계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유엔가입을 통해 남북한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공유하게 되고, 이는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필특필

유엔加入 이후의 南北韓

북한과 남한이 유엔에 가입하면 남북이 같은 유엔 회원국이 된다. 유엔은 1945년 창설된 이래 150여 개국이 가입해 있다. 유엔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들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인권과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에 가입하면 남북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국제법과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은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에 가입하면 남북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국제법과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은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에 가입하면 남북은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하게 된다.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국제법과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은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北韓의 지진력한 태너 편협함이 韓半島의 평화적 진보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경우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국제법과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은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경우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국제법과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은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경우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국제법과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은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경우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것이다.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국제법과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은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美조지 워싱턴대 명예교수 67세. 美국무부 東亞太담당차관보, 백안관 특별보좌관 역임.

개스턴 시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의 역할은 중요하다.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국제법과 인권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엔은 또한 회원국들이 국제사회의 이익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며, 환경 보호와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平和연설 28분 和峯의 기립박수



議長과 반가운 악수
議長의 演說에 둘러 인사를 나누며 잠시 禮答하고 있다.
(유엔본부=金允植특파원전송사진)

유엔총회 "유엔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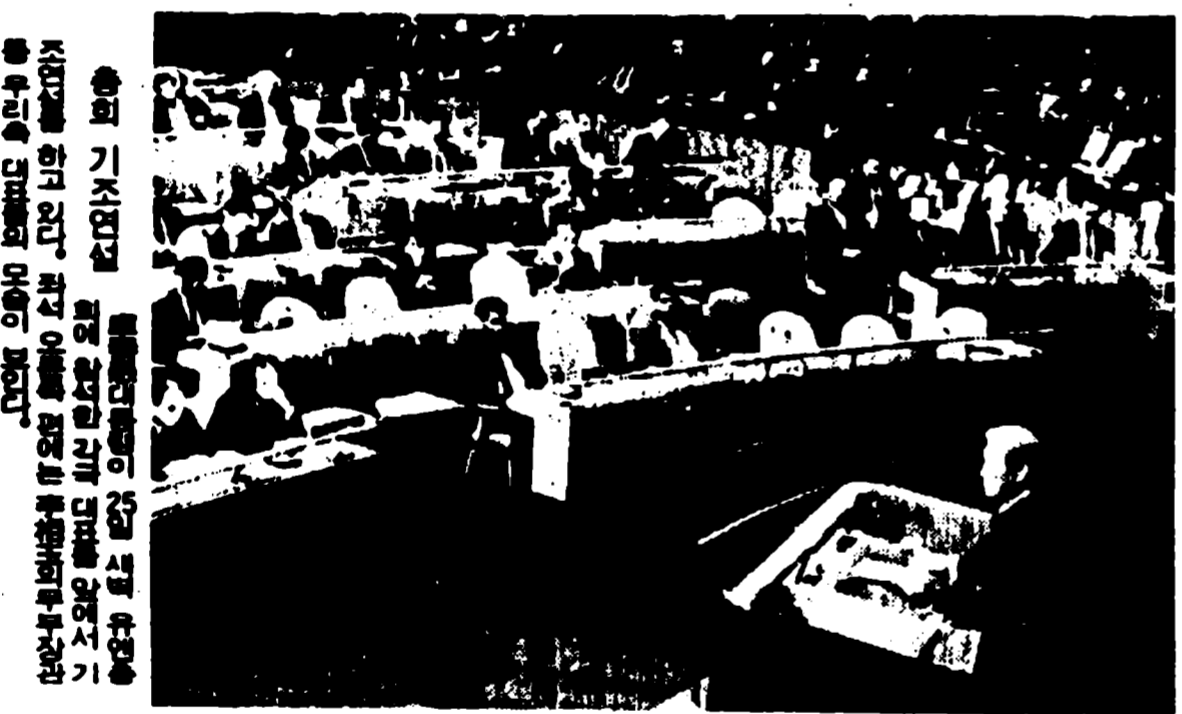
유엔의 미래

유엔총회 47차 연례회의가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28분간 열렸다. 유엔 사무총장 부처는 연설을 통해 "유엔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엔은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유엔은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총회 47차 연례회의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28분간 열렸다. 유엔 사무총장 부처는 연설을 통해 "유엔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엔은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유엔은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獨逸이 합치듯 「하나의南北」 멀지않아

英·佛語등 6개국어로 通譯, 진지하게 경청



독일과 프랑스의 합치는 것처럼, 하나의 남북은 멀지 않다. 유엔총회 47차 연례회의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28분간 열렸다. 유엔 사무총장 부처는 연설을 통해 "유엔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엔은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유엔은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에 의해 탄생한 나라. 이날 오기까지 42년8개월 기다렸다."

유엔총회 47차 연례회의는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28분간 열렸다. 유엔 사무총장 부처는 연설을 통해 "유엔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유엔은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유엔은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큼 환경오염도 심각해진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도 환경보존에 동참해야 한다.

환경보존의 필요성

환경보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환경오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환경보존에 동참해야 한다.

韓半島만이 냉전의 凍土로 남을수 없다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습 공격 예방 위해 常駐감시단일 교환
觀光 지하자원 共同개발 合作고장 추진
蘇개척 지원... 貧富國間 교량역 말겠다

民族문제등 世界분쟁 平和해결 희망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본방안의 태극장

한반도는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땅이다. 우리는 한반도를 냉전의 얼음덩어리가 아닌,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化學 무기 폐기條約」 체결면 早期가입... 유엔의 集團안보체제 強化 기대

화학무기 폐기 조약 체결은 국제평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유엔은 이 조약에 조기 가입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국제안보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중·일·미·소

북중회담 추진경과의 이모

북중회담 추진의 과정은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중회담 추진의 과정은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중회담 추진의 과정은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중회담 추진의 과정은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軍縮·非核化에 진취적 대응

통일위한 「새로운 상황 전개」 유도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중회담 추진의 과정은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북중회담 추진의 과정은 북중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上項=韓朝(北)회담>

북핵문제 야당정계 이데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북핵문제 야당정계 이데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冷戰청산... 統一로 가는 새출발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 평화統一 원칙등 6개부문 천명 』 『 北 핵개발 포기해야』 입장 확고히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이하) 羅維顯
정여준의 정여준(이하) 羅維顯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남한이 북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多者외교시대 진입 신호탄

세계懸案 우리 목소리 첫 表明 南北문제 등 前向의 자세 시사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전한 메시지는...

【北=북한, 南=남한】

통일문제 기존태도 재정리

노대통령 유엔연설 주요 내용과 의미

노태우 대통령의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은 새로운 유엔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연설내용은 새 회원국의 국가원수로서 정부의 앞으로의 대내외 정책의 기조를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원칙이나 입장 제시는 없으며 다만 기존의 방침들을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국제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정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연설의 전체적인 어조는 북방외교의 결실 및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의 개혁 등 전세계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기류의 형성에 힘입은 탓인지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 보인다.

노 대통령 스스로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당당한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세계정세에 대해서도 비전을 밝힐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 연설은 세계 곳곳의 지역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이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3년 전인 88년 1월 업저비 국가의 대표로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 남북한문제에 국한된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했던 때와는 큰 변화라 하겠다.

이번 연설은 특히 지난 75년 제30차 유엔총회 이후 한반도문제 북상정 방침에 따라 남북통일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홍보된 바가 없었음을 감안, 이에 대한 기

존의 입장유 정리해 밝혔다. 연설내용은 크게 국제문제와 남북한문제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남북한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자주·민주·평화적 봉일의 원칙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새가지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백70만의 밀집된 군사력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을 깨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위에서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의 전술핵을 철수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져야 핵사찰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군비감축과 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해 기존입장보다 적극적이고 전진적인 제안이 이번 연설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다소 실망스런 일로 받아들여진다.

남북한문제에 있어 주도적으로 신뢰회복에 나서기 위해서는 상

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수행 등을 밝히고 있다.

노 대통령이 소련의 개혁을 "냉전체제 붕괴를 비롯한 세계적 변혁의 바탕"으로 평가하면서 서방 선진국들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도 환경·태라·마약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엔활동의 출발점에서 노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앞으로 한국 외교의 기본방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니까 벌써부터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자신들의 입장에 대한 지지요청 등이 쇄도하고 있다고 호뭇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가 회원국인 유엔에 뒤늦게 남북한이 따로 가입한 것을 커다란 외교적 성과로 여기면서 만족해한다면 "유엔 가입이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일부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리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유엔가입을 계기로 과거 북한과의 외교적 소모전에서 의연하게 벗어날 때 비로소

노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유엔가입이 "통일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뉴욕=윤국한 특파원>

소련 지원등 세계문제 역할 확대 다짐 군축·핵관련 보다 유연한 자세 아쉬워

한 실질적 군비감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군사정보 교환 △기동훈련과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상주감시단의 상호과건 등 다소 구체적 사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이 부분에서 북한이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해 국제적 사찰을 받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래식 전력감축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사실 이런 입장은 이미 언급한 대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던 것이며 이에 대한 북한의 드러난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한 관계발전엔 별 효과가 없는 것임이 분명했다.

북한은 우선 남한내 주한미군

호이건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만을 거듭하기보다는 국제적 화해와 해빙 조류에 맞춰 우리측부터 실현가능한 일들을 먼저 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다.

사실 냉전시대의 사고틀 안에서 국내정치적 요인까지 감안해 늘 전제조건을 단 '주고받기식' 제안으로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음을 고려한다면 체제나 경제력 등 제반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남쪽의 사고전환은 노 대통령이 연설에서 거듭 촉구한 남북한의 자유로운 통행·통신·통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국제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냉전체제 종식과 소련에 대한 지원 △세계 분쟁지역의 평화적 해결 △선·후진국간의 남북문



노태우 대통령이 23일 오후(현지시각) 뉴욕 윌도프 아스토리아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앞서 부시 미 대통령에게 김영삼 민자당 대표, 이상욱 외무장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뉴욕=연합>

社說

분단된 땅이래 처음이슈가 없다

—盧大榮의 평의 유엔 평화메시지

분단된 땅이래 처음으로 유엔에서 평화메시지를 보냈다. 유엔에서 처음으로 분단된 땅이래 처음으로 유엔에서 평화메시지를 보냈다.

유엔에서 처음으로 분단된 땅이래 처음으로 유엔에서 평화메시지를 보냈다. 유엔에서 처음으로 분단된 땅이래 처음으로 유엔에서 평화메시지를 보냈다.

韓·美의 北韓核개발 공동저지

韓·美의 北韓核개발 공동저지. 韓·美의 北韓核개발 공동저지. 韓·美의 北韓核개발 공동저지.

韓·美의 北韓核개발 공동저지. 韓·美의 北韓核개발 공동저지. 韓·美의 北韓核개발 공동저지.

의 핵을 이유로 핵개발을 고집하고 있다. 北韓의 가늠하다면 핵무기를 갖

의 핵을 이유로 핵개발을 고집하고 있다. 北韓의 가늠하다면 핵무기를 갖

社說

統一 3原則 실현돼야

—— 南北평등유엔참관료인식에 부처

북한이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남북평등의 유엔참관료 인식을 무리대로 정당한 수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세계적 연명으로 새 세계 태어나고 있음
을 감동하였다. 이 시대 조류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추세의 蘇聯 및 東유럽
의사의 대화와 自由민주주의의 市場
제가 있을 때 새로운 文明을 받고 있는 사
실은 증명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의
사적 연명의 뜻을 볼 때 그들은 우리
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48년의 길, 30년의 한글 전
정그리고 이후의 경제부흥기간을 함께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
러나 한때는 유엔가입이 지지됐었기 때
후에 이 기구의 변두리에서 한반도와 관
련된 문제를 유엔사무에 의뢰하여도
의케 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었다. 그러
나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
다. 蘇聯이 한반도에 관심을 갖지 않
고 한국의 첫 발민자로 유엔총회 연대의
섰던 것이다.

盧두령의 統一原則선언

社說

盧두령총리의 통일 원칙 선언은 남북 양측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한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존엄성을 수호하는 기본 원칙이다. 이는 '타국에 종속된 민족'이라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大韓民國의 통일문제

— 통일문제의 역사적 배경 —

社 說

통일문제의 중심은 대립되는 두 개의 통치체제인 남한과 북한이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 두 체제는 서로 다른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간의 통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통일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延亨黙 유엔연설 내용 분석

北 입장 불변 「판박은 소리」 되풀이

그간 北의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연설에서는 한동안 피해방언이론이나 「문트리지트」의 주장을 인용하는 등 北 입장 불변의 입장을 나타내며 「판박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유엔연설에서도 「판박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북조선외무성장관 김영남이 22일 유엔총회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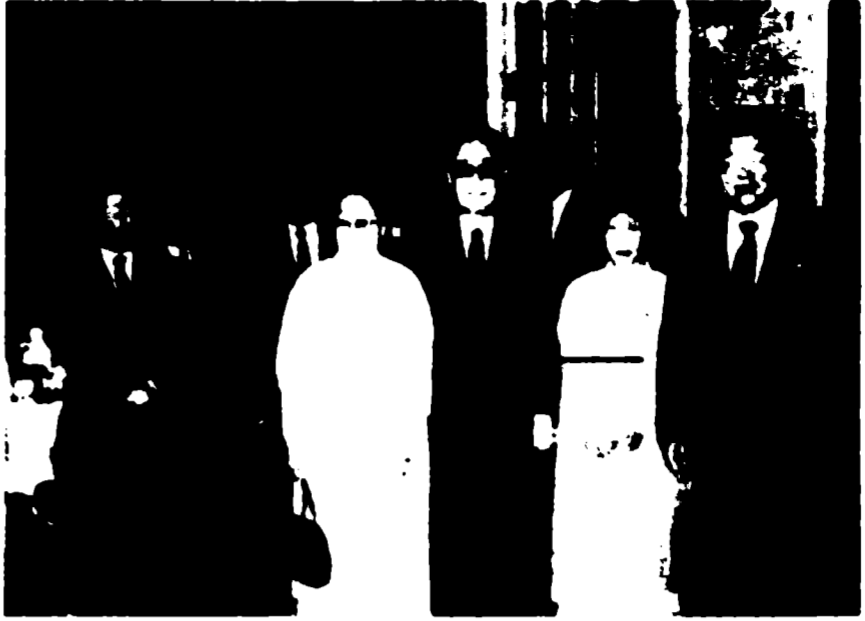
核 완고한 태도... 對美 협상 유도로 平壤 고위급회담 進展 어렵겠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수년 내에 완성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판박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며 「판박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유엔연설에서도 「판박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수년 내에 완성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판박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며 「판박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유엔연설에서도 「판박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수년 내에 완성할 것이라고 자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판박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며 「판박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유엔연설에서도 「판박은 소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核·統一·軍縮과거 주장 再湯



○북한의 김일성위원장, 김영(중대장)과 김두관(중장)을 비롯하여 북한측의 주요 인사들이 10월 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기념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본지=합의면에 의해 제공] (우측에서 시계방향으로)

북한 핵합의 양심 문제 반박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합의는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본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합의는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본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합의는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본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急變조류 방어 몸짓 일관

‘정책수정 시간필요... 일시 움츠림’ 시각도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합의는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본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합의는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본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합의는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본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북한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합의는 '양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본지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IV. 南北對話 20 年

**남북 대화의 열쇠 「남북대화사무국」
鄭時成 국장**

남북대화사무국 국장인鄭時成(56)은 20일 오전 10시 남포대호텔에서 열린 「남북대화사무국」 창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남북대화사무국」의 창립을 축하하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남북대화사무국」은 남북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대화사무국」은 남북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時成은 「남북대화사무국」의 창립을 축하하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남북대화사무국」은 남북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時成은 「남북대화사무국」의 창립을 축하하며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남북대화사무국」은 남북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時成이 4년째... 「남북대화사무국」의 수장이다.

鄭時成은 「남북대화사무국」의 수장이자 창립자이다. 그는 남북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鄭時成은 「남북대화사무국」의 수장이자 창립자이다. 그는 남북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연



鄭時成 씨
〈남북대화사무국 국장〉

『과 막혔던 남북간의 통로가 이제는 양쪽 측리가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9월1일로 문을 연지 20주년이 되는 남북대화사무국의 鄭時成국장(56)은 첫 남북직접심자회담(71년9월20일)이 열렸을때는 우리측은 축적된 자료가 없어「프로와야 마후어의 대결」처럼 몹시곤혹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당시 회담운영부 차장으로


“남북회담 밑거름역할 보람”

로 참여했던 鄭時成은 이때문에 73년 직접심자회담이 중단될때까지 회담준비를 위해 거의 집에 들어갈수 없었다고 한다. 『미국 직접심자회담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그후의 경제회담, 국회회담, 고위급회담의 밑거름이 되었지

요.』 鄭時成은 그러면서 지금껏 가시적이고 뚜렷한 성과가 없어 안타깝다고 했다. 鄭時成은 통일의 길이

그만큼 멀고 힘들기때문이지 아니겠느냐고 자체분석하고 『더욱씩하고 지나친 통일열망은 오히려 일을 더디게 할수 있다』면서 소련사태등외부 환경이 호전되는 만큼 국민들도 차분하고 조용하게 공감대형성을해줬으면 좋겠다고했다. <吳太鎰기자>

사무국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회> 1971년 8월 31일 창립 20주년 기념 회담 및 식사의료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지난 71년 연속의 적십자회담 개최 제의로 남북대화가 본격화된 이래 지금까지 남북한 사이에는 △2백19차례의 회담 및 실무접촉 △총 3천11명의 인적 왕래 △8백85회의 지통신화통화 △1백45번의 서신왕래가 있었다. 이 모든 회담 및 접촉과 교류의 실무 지원을 맡고 있는 남북대화 사무국이 1일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政權인보영에 비판순서 출범 긴장완화의 신평역이론

북한은 20년째 남북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측의 대화 의욕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6·25전쟁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 주석의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남북 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남북 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년째 남북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측의 대화 의욕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6·25전쟁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 주석의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남북 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년째 남북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측의 대화 의욕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6·25전쟁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 주석의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남북 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南北 대화事務局 창립 20돌

북한은 20년째 남북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측의 대화 의욕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6·25전쟁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 주석의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남북 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情報기관式 경직된 운영 방식 벗어날 때

북한은 20년째 남북 대화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측의 대화 의욕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6·25전쟁 40주년 기념식에서 김일성 주석의 발언이 주목된다. 그는 "남북 대화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朴濟均기자>

南北대화 20년간 2백명차려 열렸다

서울·평양 「赤十字회담」 이후의 발전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南北대화일지	
▲71.8.12	남.북.자.자.회담.개.최.제.외
▲71.9.6	남.북.자.자.회담.개.최.제.외
▲72.7.4	남.북.자.자.회담.개.최.제.외
▲83.2.2	남.북.자.자.회담.개.최.제.외
▲84.9.9	남.북.자.자.회담.개.최.제.외
▲85.9.9	남.북.자.자.회담.개.최.제.외
▲89.9.12	남.북.자.자.회담.개.최.제.외

北方정책등 實効高位회담만 3차례

「7.7선언」인 前向的 對北정책 評價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한은 지난 20년간 이례적으로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金山日)

뽕밭길의 '뽕'의 의미

뽕밭길의 '뽕'은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은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은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은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그것은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뽕밭길의 '뽕'이 '뽕'을

南北대화사무국 20돌 리셉션



南北대화사무국 20돌 리셉션... 서울대 박종철교수... 통일원장... 남북대화사무국... 2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南北대화이젠統一차원에서 추진을

統一院、南北대화사무국 20돌 기념세미나

北韓의 앞이 밝아간다... 통일원장 박종철...

北韓의 앞이 밝아간다... 통일원장 박종철... 남북대화사무국 20돌 기념세미나...



朴 鍾 植 (서울대교수)

신뢰 회복... 「한겨레」가 가야 할 길

北韓, 핵문제 정치카드로 친대이용할 듯...

통일원장 박종철은 남북대화사무국(국장 鄭時成) 창설 2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서울대의 박종철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대화는 이제 政治的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北韓, 핵문제 정치카드로 친대이용할 듯... 통일원장 박종철은 남북대화사무국(국장 鄭時成) 창설 2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서울대의 박종철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대화는 이제 政治的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다양한 남북관계이다. 이 문제는 일단 통일원으로서의 원칙적 접근으로 군사관리의 차원에서 수동적인 자세에 놓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北韓도 10만 減軍을 수반한 전후의 처리가 있는 선에서 차원의 이성이론으로 수렴이 가능한 해군제정립 구제적인 100% 減軍을 기대한다.

北 韓

북한은 9월 2일 1991년 21차 남북 대화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김형욱 외무부 장관이 참가한다. 김형욱 장관은 1988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대화 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북측 특사로 참가해 왔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對坐 207회 『新質書』 시발 적십자

북한은 9월 2일 1991년 21차 남북 대화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김형욱 외무부 장관이 참가한다. 김형욱 장관은 1988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대화 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북측 특사로 참가해 왔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은 9월 2일 1991년 21차 남북 대화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김형욱 외무부 장관이 참가한다. 김형욱 장관은 1988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대화 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북측 특사로 참가해 왔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 특사 김형욱(중)과 남측 특사 김성환(좌)이 9월 2일 서울에서 회담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형욱 장관은 1988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대화 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북측 특사로 참가해 왔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은 9월 2일 1991년 21차 남북 대화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김형욱 외무부 장관이 참가한다. 김형욱 장관은 1988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대화 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북측 특사로 참가해 왔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분단근거 부 可視的 성과 저의 없어

북한은 9월 2일 1991년 21차 남북 대화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김형욱 외무부 장관이 참가한다. 김형욱 장관은 1988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대화 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북측 특사로 참가해 왔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북한은 9월 2일 1991년 21차 남북 대화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는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김형욱 외무부 장관이 참가한다. 김형욱 장관은 1988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남북 대화 회담 때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북측 특사로 참가해 왔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김형욱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특사로 참가할 예정이다.

V. 南北關係 關聯記事

1. 統 一 大 行 進 提 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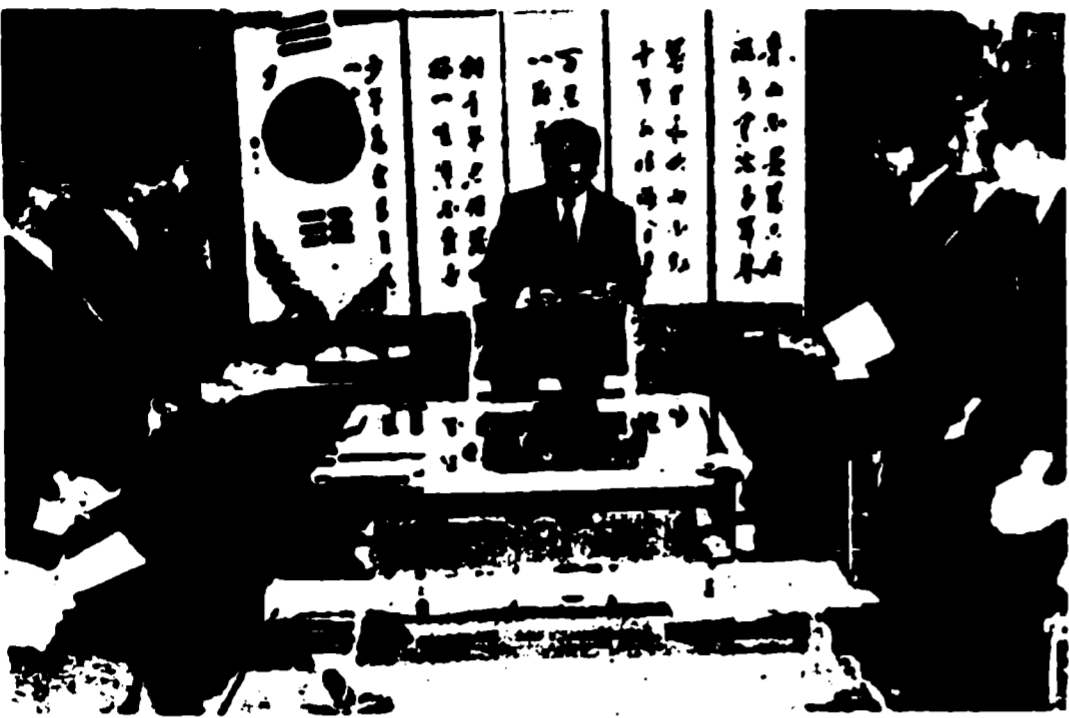
획기적 南北 민간交流 제의

總學長인솔 大學生訪北 허용

在野 등 各界人士 「光復節 행사」 참여도

盧대통령 1부에서 北에 門을 開放 촉구

- 盧대통령 지시내용
- ① 北제의 國土종단·學術토론회 수용
 - ② 在野人士 南北공동행사 참여 허용
 - ③ 총학장 인솔 大學生 訪北團 구성
 - ④ 北韓인사·大學生에 전면門戶 개방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3일 서울=뉴시스】 盧대통령이 5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연루부의 숙소에서 李鍾玉의 부부장 김.丁 李鍾玉의 부부장, 송재호의 고인보의 부장 등 당시 수행원들과의 회의를 주재. 8·15행사 남북공동개최경로를 南北교류회담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연루부=송재호의 부장(왼쪽)과 김인보의 부장(오른쪽))

북한측은 남한측의 대북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북한측은 '남한측이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南北교류 진보적 실험

盧대통령 새對北정책 배경

남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北韓 内部주요 인물들이 영입됐다

남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남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영인된 북측 인사들이 남한측의 지원에 대해 '북한측은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북한 방문 對北정책 지시 意味

북한 방문은 對北정책의 意味를 나타내며, 對北정책의 轉換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방문은 對北정책의 意味를 나타내며, 對北정책의 轉換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對北정책의 轉換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南北韓 人적교류 "물꼬" 기대

北 주장 대폭 수용으로 능동대처 北美 방문 성과 자신감 바탕 추진

북한이 대폭적인 대남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폭적인 대남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폭적인 대남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폭적인 대남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대폭적인 대남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 교류의 물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측은 이번 회담을 남측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회기적 南北관계 개선안 내용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北韓 선전공세에 적극대응

白頭漢拏중단이 핵심 학생訪北은 계속 개방

아직은 정부구상...北韓 수락 미지수



北韓측은 남측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남측은 남측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있다.

社說

「학기적 구상」의 虛實

「학기적 구상」이란 말은 학기제 수업과 관련된 말로, 학기제 수업의 장점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학기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기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학습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단점도 있다.

학기제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기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학습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단점도 있다.

학기제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기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학습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단점도 있다.

학기제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기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학습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단점도 있다.

학기제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기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학습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단점도 있다.

학기제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기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학습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단점도 있다.

학기제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기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학습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단점도 있다.

학기제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이고, 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학기제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학습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단점도 있다.

정부의 前向的 南北政策

社說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前向的인 남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前向的인 남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前向的인 남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前向的인 남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同胞 2천명 참가 統一대행진 갖자

光復節 31일 民間주도로
70세이상 秋夕 고향상호방문

崔浩中부총리 對北선명

【서울 15일 8월 15일】 통일대행진 2천명 참가를 목표로 7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통일대행진 1차 행사가 1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시작된다. 이 행사는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이 행사는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崔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대행진 1차 행사는 7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이 행사는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崔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대행진 1차 행사는 7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이 행사는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崔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대행진 1차 행사는 7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이 행사는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崔浩中부총리

崔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대행진 1차 행사는 7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하는 '민간주도형'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이 행사는 통일대행진 1차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시작된다."

統一대행진 행사

통일대행진 행사약도

1차: 서울(8.23) → 대전(8.25) → 전주(8.29) → 광주(8.29) → 제주(8.29) → 부산(8.26) → 대구(8.26) → 서울(8.27, 28)

2차: 서울(8.23) → 대전(8.25) → 전주(8.29) → 광주(8.29) → 제주(8.29) → 부산(8.26) → 대구(8.26) → 서울(8.27, 28)

행사 일정

- 8월 15일 (일) △ 서울(8.15) △ 광복절 기념식 △ 통일대행진 1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15)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3일 (일) △ 서울(8.23) △ 통일대행진 2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3)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4일 (월) △ 서울(8.24) △ 통일대행진 3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4)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5일 (화) △ 서울(8.25) △ 통일대행진 4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5)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6일 (수) △ 서울(8.26) △ 통일대행진 5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6)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7일 (목) △ 서울(8.27) △ 통일대행진 6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7)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8일 (금) △ 서울(8.28) △ 통일대행진 7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8)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9일 (토) △ 서울(8.29) △ 통일대행진 8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9)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행사 일정

- 8월 15일 (일) △ 서울(8.15) △ 광복절 기념식 △ 통일대행진 1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15)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3일 (일) △ 서울(8.23) △ 통일대행진 2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3)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4일 (월) △ 서울(8.24) △ 통일대행진 3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4)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5일 (화) △ 서울(8.25) △ 통일대행진 4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5)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6일 (수) △ 서울(8.26) △ 통일대행진 5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6)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7일 (목) △ 서울(8.27) △ 통일대행진 6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7)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8일 (금) △ 서울(8.28) △ 통일대행진 7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8)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 8월 29일 (토) △ 서울(8.29) △ 통일대행진 8차 행사 △ 관악구 공동경축행사 및 발대식(8.29) △ 통일문화축전 및 해단식(8.31)

「統一」대행진기 이뤄질까

전과 북측과의 접촉이 전망



【서울 15일路透電】남북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5일 남한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한 김문경 장관에게 처음으로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남북교류는 남북관계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남북교류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민족의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남북교류는 남북관계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 15일路透電】남북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5일 남한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한 김문경 장관에게 처음으로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입장에서 가능한 것만 골라 北「집권」대회「구실」거부면霧散

8月末총리회담 열리면 南北교류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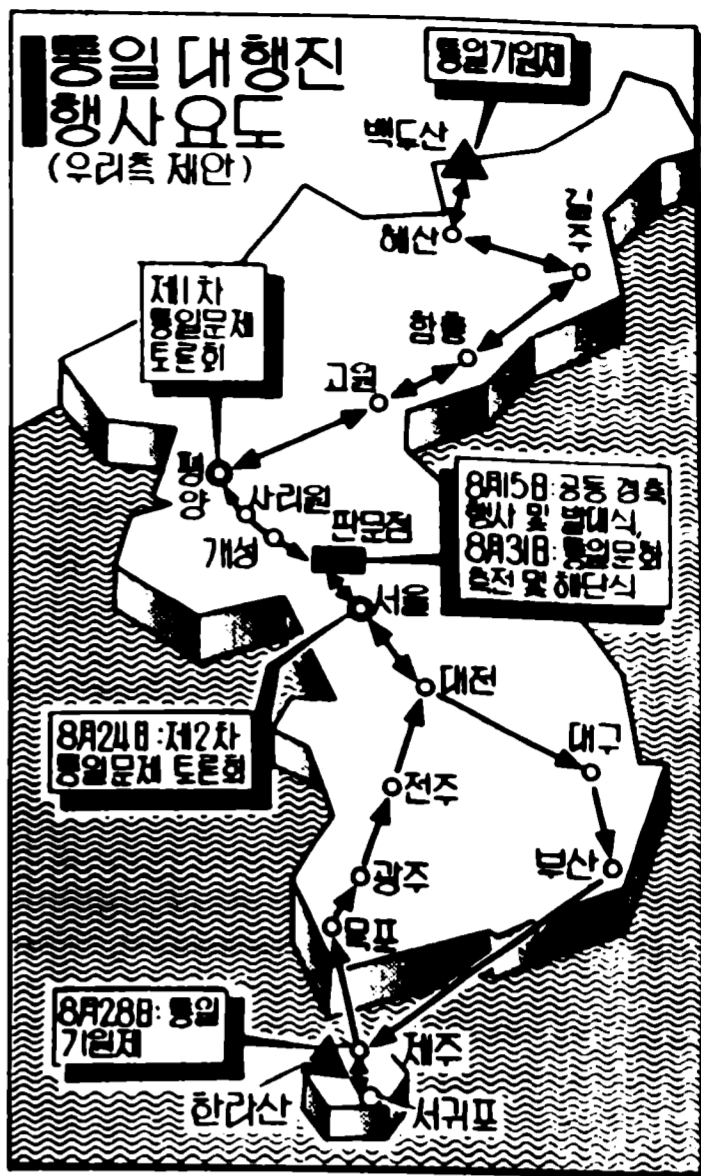
【서울 15일路透電】남북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5일 남한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한 김문경 장관에게 처음으로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15일 남한에서 통일부장관으로 취임한 김문경 장관에게 처음으로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필>

北제외의 대폭 수용 交流 새 물꼬 겨냥

8·15 統一대행진 이뤄질까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8월 15일 통일대행진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8월 28일 서울에서 8월 31일 부산을 거쳐 9월 1일 서울로 돌아오는 순이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8월 15일 통일대행진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8월 28일 서울에서 8월 31일 부산을 거쳐 9월 1일 서울로 돌아오는 순이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8월 15일 통일대행진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8월 28일 서울에서 8월 31일 부산을 거쳐 9월 1일 서울로 돌아오는 순이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변정세 好轉...관계개선 주도 자신감 北범민족대회와의 절충이 成事 열쇠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8월 15일 통일대행진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8월 28일 서울에서 8월 31일 부산을 거쳐 9월 1일 서울로 돌아오는 순이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8월 15일 통일대행진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8월 28일 서울에서 8월 31일 부산을 거쳐 9월 1일 서울로 돌아오는 순이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8월 15일 통일대행진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8월 28일 서울에서 8월 31일 부산을 거쳐 9월 1일 서울로 돌아오는 순이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8월 15일 통일대행진 서울 출발을 시작으로 8월 28일 서울에서 8월 31일 부산을 거쳐 9월 1일 서울로 돌아오는 순이다. 통일대행진 계획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대행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社說

北의 統一 大행진, 수락하라

한반도 남북의 경제발전과 통일 등 대동강을 넘어 북을 지원할 때 북의 통일과 남북의 경제발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통일과 경제발전은 서로를 위한 것이다. 통일과 경제발전은 서로를 위한 것이다. 통일과 경제발전은 서로를 위한 것이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남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경향신문(1991. 7. 16)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한가지라도 成事를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북은 통일과 경제발전의 길을 열어주었다.

社說

統一을 위한 大行進

「統一大行進」의 南北을 아우르는 이...

「統一大行進」의 南北을 아우르는 이...

「統一大行進」의 南北을 아우르는 이...

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北의 선별적...

光復잔치 함께 交流의 물꼬트기

政府의 「統一대행진」對北제의 배경

정부가 15일 발표한 「통일대행진」은 남북한이 함께 하는 통일대행진이다. 「통일대행진」은 7·6 합의의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기 총회의의 개회식(7·12)의 도화선을 구세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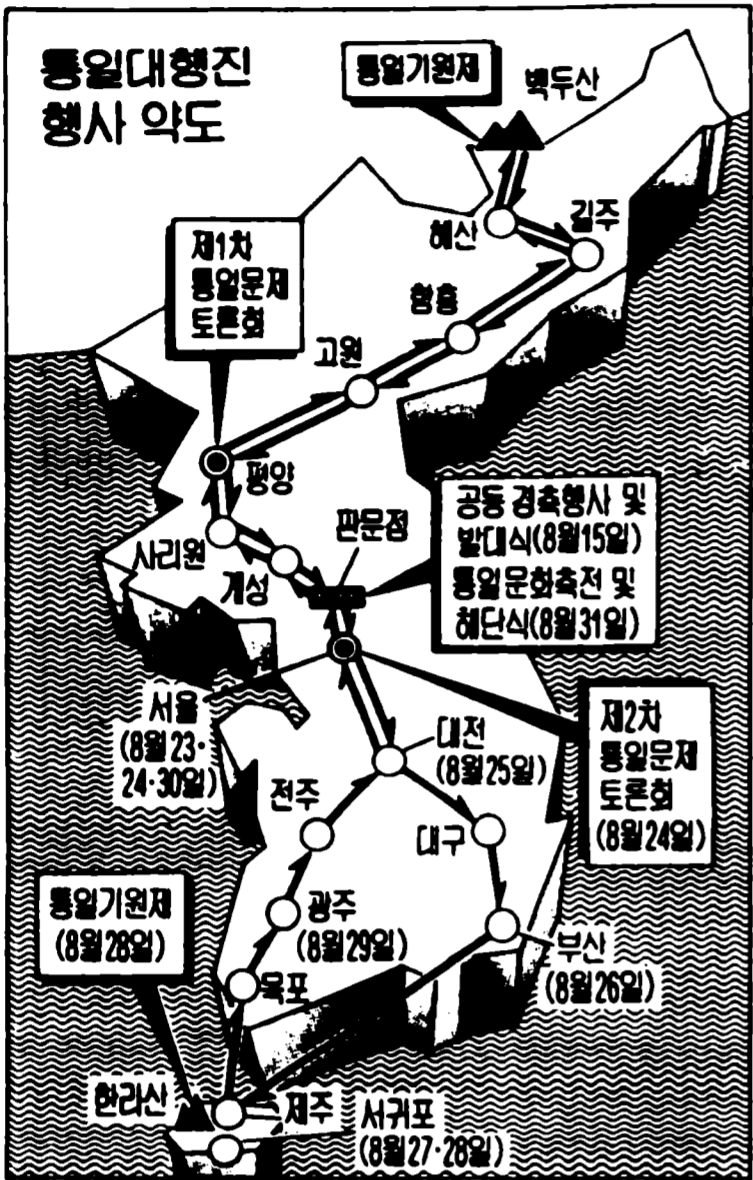
정부는 「통일대행진」이 남북한 국민들의 상호신뢰와 교류를 증진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대행진」은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기 총회의의 개회식(7·12)의 도화선을 구세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대행진」이 남북한 국민들의 상호신뢰와 교류를 증진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대행진」은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기 총회의의 개회식(7·12)의 도화선을 구세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대행진」이 남북한 국민들의 상호신뢰와 교류를 증진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대행진」은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기 총회의의 개회식(7·12)의 도화선을 구세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대행진」이 남북한 국민들의 상호신뢰와 교류를 증진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대행진」은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기 총회의의 개회식(7·12)의 도화선을 구세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대행진」이 남북한 국민들의 상호신뢰와 교류를 증진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대행진」은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기 총회의의 개회식(7·12)의 도화선을 구세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인討論등 北제안대폭 수용 人的왕래 확대로 신뢰회복 겨냥

北의 對南정책 변화조짐... 成事 기대

「통일대행진」 참가자 전원
이 15일 판문점으로 모여 남북사
회 교류 증진에 기여할 것을
인원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다.
「통일대행진」은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15개 도시를 순회하며
통일대행진의 의미를 알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상호신뢰와
교류를 증진할 예정이다.
(한신뉴스)

1945년 8월 15일 우리
역사가 나라를 되찾아 온 날과
같은 날이었다. 그러나 그
날이 또한 남북한이 평화
이념으로 이룩한 남북한
이기에 의미가 깊다.
우리 8월 15일 통일대행진
은 46주년을 맞아 남북한
국민들이 함께 하는 통일대
행진이다.
지금 국제사회의 동향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와
비슷하다. 남북한이
이와 함께 남북한이
남북한을 잇는 새로운
통일대행진이다.
7월 7일 북한의 「통일대행진」

한반도에서 「통일대행진」
을 가지는 것은 남북한
이 함께 하는 통일대행진
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8월 15일 통일대행진
은 46주년을 맞아 남북한
국민들이 함께 하는 통일대
행진이다.
지금 국제사회의 동향은
제 2차 세계 대전 후와
비슷하다. 남북한이
이와 함께 남북한이
남북한을 잇는 새로운
통일대행진이다.
7월 7일 북한의 「통일대행진」

「統一대행진」對北제의 聲明(전문)

남북한이 함께 하는 통일대행진
은 남북한 국민들의 상호신뢰와
교류를 증진하고 민족적 유대감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통일대행진」은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중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기 총회의의 개회식(7·12)의 도화선을 구세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社 説

實行的 중요한 核사찰 合意

北朝鮮이 미국과 합의한 후 핵실험을 포기하고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미국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미국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미국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미국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금지하고, 미국은 핵무기 생산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핵무기 확산을 막고 세계평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統一大行進」推進發表에 共응한 支持決議文

우리는 「統一大行進」을 전폭적으로 支持한다

南北間의 正當의 關係를 回復하는 爲한 相互尊重을 基로 南北間 交流의 協力を 通해서 信賴하고 和解하기를 望한다.
그런 爲해서 北은 南과 共同體라든가 北의 하나의 共同體라든가 北의 民族 同質性을 回復하기 爲한 노력부터 北의 推進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정부가 7월 15일 발표한 「統一大行進」 추진을 爲한 對北聲明에 全폭적으로 支持를 表한다.

南과 北 그리고 海外同胞가 日 8.15 光復節을 基로 多黨계 모임 組織 光復의 參與를 새기면서 共同體 行爲를 爲한다. 南은 北의 信賴 增進에 기여할 爲한 平和 統一의 意 志를 大 大 成 熟 期에 達한다.

부한측은 「統一大行進」을 受諾하라

우리는 北의 現狀이 正當의 平和와 統一을 爲한 基가 不 足한 爲로 北의 對南 對北 對外 對內 對 分 裂을 止하는 爲한 努力을 望한다. 「統一大行進」을 受諾하라. 「統一大行進」을 受諾하라. 「統一大行進」을 受諾하라.

統一의 北의 現狀이 正當의 平和와 統一을 爲한 基가 不 足한 爲로 北의 對南 對北 對外 對內 對 分 裂을 止하는 爲한 努力을 望한다. 「統一大行進」을 受諾하라. 「統一大行進」을 受諾하라. 「統一大行進」을 受諾하라.

「統一大行進」은 成功的으로 實現되여야 한다.

우리는 政府가 提議한 「統一大行進」을 7월 25일까지 「統一大行進」準備委員會를 發足할 爲한 努力을 望한다. 「統一大行進」을 7월 25일까지 「統一大行進」準備委員會를 發足할 爲한 努力을 望한다.

우리는 「統一大行進」을 成功的으로 實現되여야 한다. 「統一大行進」을 成功的으로 實現되여야 한다. 「統一大行進」을 成功的으로 實現되여야 한다. 「統一大行進」을 成功的으로 實現되여야 한다.

우리는 「統一大行進」을 成功的으로 實現되여야 한다. 「統一大行進」을 成功的으로 實現되여야 한다. 「統一大行進」을 成功的으로 實現되여야 한다. 「統一大行進」을 成功的으로 實現되여야 한다.

지난 15일 남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제의한 「통일대행진」의 관동개회문제가 북측의 거부로 사실상 무사수결됐다.

북한이 16일 남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의 대외화해발표, 그들의 추진중인 서울에서의 범민족대회강행의사확박 하면서 8.15 남북대협관계자선담을 우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개이전제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남한정부는 거부할 예정이다. 이 목적을 우리정부가 8.15관



성철환
(정치부)

통일대행진에 대한 제의가 있었으나, 정부의 고위당국자도 북한의 태도도 미루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제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관동개회문제를 관동개회문제가 좌절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된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행하기는 어렵다. 북수단과 북측이 수용할 수 있는 통북제의 틀 내 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도 그러한 노선을 전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5일 일방적으로 통북제안을 발표했다.

남한정부는 북한의 수용의 부분적이라도 북수단이 비동행하자 정부정부가 「북한에 지난 1년간 너무 많은 면했다. 스스로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부가 아니라 선진문명이 아니라 후진 문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그러한 노선을 전적으로 옹호하지는 않는다. 5일 일방적으로 통북제안을 발표했다.

남한정부는 북한의 수용의 부분적이라도 북수단이 비동행하자 정부정부가 「북한에 지난 1년간 너무 많은 면했다. 스스로 개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부가 아니라 선진문명이 아니라 후진 문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또 對北 첫 제의

**통일대행진 관련 조평통 담화
정부, '조건' 불구 적극 검토**

정부는 '통일대행진'제외에 대한 북한의 윤기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의 16일 담화내용에 범민련·전대협 관련구속자 석방 등의 전제조건은 있지만, 북한이 8.15 기념 남북 공동축제를 갖자고 한 점은 우리측 제의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고, 대행진 행사 가운데 북한측과 우리가 서로 제외한 통일문제

대토론회의 실천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17일 "북한의 조평통 담화는 통일대행진을 범민족대회 태두리 안에서 수용한다는 선전논리와 8.15 기념 공동행사를 위해 25일 서울 준비회의를 갖자는 실질논리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전제하고 "양측간에 공통된 부분을 이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진의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며 "오는 19일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 82개 사회단체가 행사추진 준비위원회합길성하면 그 안에서 대처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 범민족대회는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최병보 통일원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윤기복 조평통 부위원장의 담화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북한측이 구속자 석방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각계각층의 연원을 만들어 이번 통일대행진 행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침입작』 『統一행진』 전종성이 관전

8.15 南北통일준비 成事될까

8.15를 기점으로 南北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16시 30분 서울 대동문 16층 대회의실에서 16일 16시 30분

北側, 민간행사 환영, 조건부 수용 정부, 실무회담서 조정, 적극 대응

8.15를 기점으로 南北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16시 30분 서울 대동문 16층 대회의실에서 16일 16시 30분

북측은 8.15를 기점으로 南北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16시 30분 서울 대동문 16층 대회의실에서 16일 16시 30분

북측은 8.15를 기점으로 南北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16시 30분 서울 대동문 16층 대회의실에서 16일 16시 30분

북측은 8.15를 기점으로 南北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16시 30분 서울 대동문 16층 대회의실에서 16일 16시 30분

북측은 8.15를 기점으로 南北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16시 30분 서울 대동문 16층 대회의실에서 16일 16시 30분

북측은 8.15를 기점으로 南北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16시 30분 서울 대동문 16층 대회의실에서 16일 16시 30분

북측은 8.15를 기점으로 南北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16시 30분 서울 대동문 16층 대회의실에서 16일 16시 30분

南北통일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발족

8.15를 기점으로 南北 통일준비위원회가 16일 16시 30분 서울 대동문 16층 대회의실에서 16일 16시 30분

통일대행진 준비회의
北轉서거부
【北】北轉서거부... 통일이... 준비회의... 개최... 거부의... 준비회의... 개최... 거부의... 준비회의...

北, 준비회의의 호응... 金契植委員長 曹通文... 金契植委員長... 曹通文... 호응... 준비회의의... 호응... 준비회의의... 호응... 준비회의의...

통일대행진 준비회의... 南側 30일... 통일대행진... 준비회의... 南側 30일... 통일대행진... 준비회의...



「통일대행진」이 南北간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金契植위원장.

『統一大행진』 끝까지 성공 노력

金契植 행사준비위원장 인터뷰

「남북한 사이의 동진과 교류를 위한 인적·문화적 교류는...」

「작은部門선과 감히 양보할 터」

대행진 행사준비위원회... 金契植... 「작은部門선과 감히 양보할 터」

「북한은 「통일대행진」을...」 金契植... 「북한은 「통일대행진」을...」

통일대행진 南北협동... 10일까지... 「통일대행진」... 10일까지...

2. 第85次 平壤 IPU 總會

**평양개최 IPU총회
참가인원 증원요청**

박준규 국회의장

박준규 국회의장은 8일 북한 '의회 그루파' 양형섭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오는 4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85차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종래보다 많은 남한의 의원과 수행원, 기자가 판문점을 통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이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전달한 편지에서 "이번 제85차 총회가 남북한 의원들간의 상호교류와 친분을 돈독히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온세계에 남북한간의 우호관계를 과시하는 기회"라며 이렇게 요청했다.

**平壤IPU 총회 한국대표단
板門店통해 入北**

국회의원을 포함한 우리국회 대표단이 板門店을 통해 訪北, 오는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 平壤에서 열리는 제85차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北韓 總務 院최고인민회의 의장은 27일 朴俊圭국회의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IPU총회참석과 관련, 25명규모의 兩韓국회대표단이 板門店을 통해 北韓을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北서 議員 등 25명 초청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 개최

북한이 1991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평壤에서 열리는 제85차 국제의회연맹(IPU)총회에 한국 대표단 25명 규모의 兩韓국회대표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이 대표단이 板門店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平壤 IPU 총회만전
南北관계기여 계기로**
盧泰愚 대통령이 30일 金泳三 民自黨 대표최고위원이 平壤에서 열린 보고를 받고 이번 IPU 平壤 총회는 南北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를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추진방안 제시」國會연장 논의중
平壤—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平壤—D.C. 참가 반대
27일~도합 5일 계속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추진방안 제시」國會연장 논의중
平壤—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D.C.참가 반대

北韓, IPU참가 보장

어제 南北연락관 접촉

「신변安全」 각서 「전달」 받아

우리측 대표단 일행 25명 27일 入北

北측이 24일 평壤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인 IPU(제85차 총회)에 우리측 대표단 일행 25명(남측 15명, 북측 10명)을 포함하여 27일 오전 10시 평壤에 도착할 예정이다.

北측은 최근 李鍾九 국무회의인 IPU총회에 우리측 대표단을 참석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南北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평壤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北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平壤林사회안전부장 명)와 우리측의 총참모부와 우리측 대표단의 교환서류인정서를 확정했다.

양측은 연락관 접촉에서 △우리측 대표단 숙소를 평壤주암산초대소(모란봉 통일위원장이 각각 주최

키로 했으며, 金剛山관광 동의 세부일정을 정하기 위해 25일 다시 연락관 접촉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측 대표단 일행 25명은 27일 오전 9시 평壤에 도착할 예정이다.

北, 9일간의 평壤체류일정을 마치고 5월 5일 낮 12시 30분 평壤을 통해 귀환한다.

한편 朴定株위원장은 이날 국회차원의 남북교류를 보다 활발히 추진하자는데 내용의 朴浚圭국회의장 친서를 북측 楊亨철 최고인민회의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北측이 24일 평壤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인 IPU(제85차 총회)에 우리측 대표단 일행 25명(남측 15명, 북측 10명)을 포함하여 27일 오전 10시 평壤에 도착할 예정이다.

北측은 최근 李鍾九 국무회의인 IPU총회에 우리측 대표단을 참석시키지 않을 수도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南北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평壤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北측의 신변안전보장각서(平壤林사회안전부장 명)와 우리측의 총참모부와 우리측 대표단의 교환서류인정서를 확정했다.

양측은 연락관 접촉에서 △우리측 대표단 숙소를 평壤주암산초대소(모란봉 통일위원장이 각각 주최

“南北정상회담 ‘디딤돌’ 마련 최선”

『평양에서 열리는 IPU(국제 의회연맹) 제85차 총회에 국회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중단된 남북회담 예비접촉과 고위급회담이 재개되고 남북정상 회담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 합니다』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측 국회대표단의 자격으로 27일부터 5월5일까지 8박9일동안 평양을 방문하게 된 朴定洙IPU대표단장(국회의무통일위원장)은 26일 가벼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까지 15회에 걸쳐 IPU총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朴 단장은 『다른 어떤 총회 참석보다 중압감을 느낀다』면서 『40년 이상 고향에 가지 못하고 있는 월남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진다』고 말했다.

13대 국회에서 6회에 걸쳐 IPU대표단장을 맡은 朴 단장은 유창한 영어실력과 국제 감각이 돋보이는 IPU외교통. 지난 83년 서울에서 열린 제70차 서울

平壤—IPU참석 朴定洙의원단장



회가 있다. 金주석의 개막식 참석시, 각국 대표단장접견, 각국 대표단을 위한 리셉션등 공식적인 자리이다.

朴 단장은 『金주석과의 개별 면담 여부를 알 수 없으나 북측이 상당한 유화 제스처를 보일 것으로 전망돼 기회가 닿으면 만날 생각』이라고 金주석 개별 면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朴 단장은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리 대표단에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대표단이 전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남북국회회담 대표간의 회동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朴 단장은 그동안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측 대표들을 자주 만나知己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남북간에는 불신의 골이 너무 깊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인사를 만나고 오는 30일 평양 옥류관에서 북측 대표단을 위한 만찬

“못가는 이산가족 생각하면 안타까워 기회 주어진다면 金주석 만나볼생각”

총회를 유치한 주역이었고 서울 총회에서는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평양총회는 우리측 대표단에게 국제회의 참가이상의 큰 의미를 갖고있다. 朴 단장은 평양방문 기간중 총회기조연설

과 북한 고위급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신뢰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朴 단장은 朴浚圭국회의장이 북한의 梁亨燮최고인민회의의 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휴대하고

간다. 이 친서에는 중단된 남북국회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남북국회의원들의 교환방문 제의등 정치권의 교류방안이 들어있다.

朴 단장은 『우리의 진의가 순수하고 진지할 뿐만 아니라 건설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라고 말하고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동시에 북한 유엔동시가입의 필요성과 불가피성,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합리성을 북한은 물론 각국 대표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우리 대표단은 예정된 일정에 의하면 북한의 金日成주석과 두 차례 만날 기회와 한차례 볼 기

을 베풀 계획이다.

朴 단장은 『북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 IPU총회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우리 대표단의 평양 IPU총회 참석이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경북 김천 금릉출신인 朴 단장은 10, 11대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12대 낙선의 좌절을 겪고 13대에는 민정당 공천을 받아 3선의 영광을 안았다. 경기고 재학시절 경기여고 대대장이던 李範俊씨(57·전유정회의원)를 만나 미국유학을 같이 가는 열애를 거쳐 부부박사 부부학장 부부의원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金成珍기자>

北 入 北 人 治 政

IPU대표단 25명 平壤도착



IPU평양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도착한 국회대표단의 朴定洙단장(左)과 蔡汶植(右)·朴英淑고문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리동철(中)의 안내를 받고 있다. <板門店=朴相文기자>

金日成 면담 가능성

【平壤=金成珍·朴相文 특파원】 27일 제 1차 IPU(국제인민회의) 대표단이 평壤에 도착했다. 평壤에서 25명의 대표단이 27일 제 1차 IPU(국제인민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판문점 통일각에 도착했다. 평壤에서 25명의 대표단이 27일 제 1차 IPU(국제인민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판문점 통일각에 도착했다.

관문점 북측 통일각에 도착한 국회대표단의 朴定洙단장(左)과 蔡汶植(右)·朴英淑고문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리동철(中)의 안내를 받고 있다. <板門店=朴相文기자>

우리측 대표단 25명의 일일 오후 5시 30분 주안산초대소의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평壤에서 참가한다. 평壤에서 참가한다. 우리측 대표단 25명의 일일 오후 5시 30분 주안산초대소의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평壤에서 참가한다. 평壤에서 참가한다.

우리측 대표단 25명의 일일 오후 5시 30분 주안산초대소의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평壤에서 참가한다. 평壤에서 참가한다. 우리측 대표단 25명의 일일 오후 5시 30분 주안산초대소의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평壤에서 참가한다. 평壤에서 참가한다.

우리측 대표단 25명의 일일 오후 5시 30분 주안산초대소의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평壤에서 참가한다. 평壤에서 참가한다. 우리측 대표단 25명의 일일 오후 5시 30분 주안산초대소의 28일부터 5월 4일까지 평壤에서 참가한다. 평壤에서 참가한다.

IPU 대표단 平壤 도착

「盧 대통령 메시지」 金日成에 전달 가능성

전금칠, 南北 대화再開 시사

【서울=가톨릭통신】제 85차 국제의회연맹(IPU) 집행위원회 참석하는 국제 대화단 대표단(단장·朴定津의 부위원장 장)이 평壤에서 이·북 상호 교류 증진에 힘쓰고자 하아 국제 대화단 창립 10주년 기념회를 개최했다.

【가톨릭통신】제 85차 국제의회연맹(IPU) 집행위원회 참석하는 국제 대화단 대표단(단장·朴定津의 부위원장 장)이 평壤에서 이·북 상호 교류 증진에 힘쓰고자 하아 국제 대화단 창립 10주년 기념회를 개최했다.

【가톨릭통신】제 85차 국제의회연맹(IPU) 집행위원회 참석하는 국제 대화단 대표단(단장·朴定津의 부위원장 장)이 평壤에서 이·북 상호 교류 증진에 힘쓰고자 하아 국제 대화단 창립 10주년 기념회를 개최했다.

【가톨릭통신】제 85차 국제의회연맹(IPU) 집행위원회 참석하는 국제 대화단 대표단(단장·朴定津의 부위원장 장)이 평壤에서 이·북 상호 교류 증진에 힘쓰고자 하아 국제 대화단 창립 10주년 기념회를 개최했다.

【가톨릭통신】제 85차 국제의회연맹(IPU) 집행위원회 참석하는 국제 대화단 대표단(단장·朴定津의 부위원장 장)이 평壤에서 이·북 상호 교류 증진에 힘쓰고자 하아 국제 대화단 창립 10주년 기념회를 개최했다.

【가톨릭통신】제 85차 국제의회연맹(IPU) 집행위원회 참석하는 국제 대화단 대표단(단장·朴定津의 부위원장 장)이 평壤에서 이·북 상호 교류 증진에 힘쓰고자 하아 국제 대화단 창립 10주년 기념회를 개최했다.

【가톨릭통신】제 85차 국제의회연맹(IPU) 집행위원회 참석하는 국제 대화단 대표단(단장·朴定津의 부위원장 장)이 평壤에서 이·북 상호 교류 증진에 힘쓰고자 하아 국제 대화단 창립 10주년 기념회를 개최했다.

【가톨릭통신】제 85차 국제의회연맹(IPU) 집행위원회 참석하는 국제 대화단 대표단(단장·朴定津의 부위원장 장)이 평壤에서 이·북 상호 교류 증진에 힘쓰고자 하아 국제 대화단 창립 10주년 기념회를 개최했다.



平壤 平壤 平壤 제 85차 IPU 평壤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하오 평壤에 도착한 국제 대화단 대표단의 단장 박정진(왼쪽)이 부위원장 장(가톨릭통신)과 악수하고 있다. <가톨릭통신부속통신부>

국회대표단 平壤 첫방 이모저모

○북 평양행 동시 4시간 30분...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북 평양행 동시 4시간 30분...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어를 10여명 초청... ○아침 8시 30분 평양행...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북한과 북평을 잇는... ○평양행 동시 4시간 30분...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평壤가는 길 환영분위기 "셀러"

○...북한 대표단 (10.1.2)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北韓·대인연남면 再開 北南대표단 平壤첫방말자 양수

平壤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북한 대표단 (10.1.2)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북한 대표단 (10.1.2)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북한 대표단 (10.1.2)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평양 도착 후 1시간 30분 휴식 후 1시간 30분 관광...

I-P-U 평壤총회 오늘 개막

金日成, 개막연설서 「새統一방안」 발표할 듯

韓國대표단, 어제 북수교회의예배참석

【平壤=국회포럼기자단】제1차 I-P-U(국제평화연합) 평壤총회의 개막연설이 28일 평壤 시내 봉수교회의예배장에서 열렸다. 한국대표단(단장 박정환)이 영접받아 참석했으며, 김일성 주석은 영접사를 통해 환영사를 낭독했다. 김정은 총비서도 참석했다. 개막연설을 할 예정인 김일성 주석은 "북한은 남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 주석은 또 "남한이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남한이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한이 개혁을 단행하면 북한도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일성 주석은 또 "남한이 개혁을 단행하면 북한도 개혁을 단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회의장에서는 김일성의 지휘를 받으며 북한측이 축하를 표했다. 김일성의 지휘를 받으며 북한측이 축하를 표했다. 김일성의 지휘를 받으며 북한측이 축하를 표했다. 김일성의 지휘를 받으며 북한측이 축하를 표했다.

한국대표단은 이번 총회를 통해 북한측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표단은 이번 총회를 통해 북한측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표단은 이번 총회를 통해 북한측의 개혁의지를 확인하고,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P-U 평壤총회 한국대표단의 朴定洙단장과 金元基·趙世衡의원(앞줄 왼쪽부터)·金光一의원(뒷줄 오른쪽) 등이 28일 상오 평壤시내 봉수교회의 일요예배에 참석,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平壤=국회사진기자단>

IPU 대표단 訪北 이틀째 이모저모

북한 방문한 4인자회담 대표단 2인자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선교회의 100주년 기념식

100주년 기념식에는 서울에서 100주년 기념식...

유일성당·교회 찾아 統一기원미사·예배

북한 방문한 4인자회담 대표단 2인자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실외미사·核문제등 政治의견 교환

金주석이 救世主... 平壤 시민 주장

북한 방문한 4인자회담 대표단 2인자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북한 방문한 4인자회담 대표단 2인자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선교회의 100주년 기념식

100주년 기념식에는 서울에서 100주년 기념식...



IPU 평壤총회 한국대표단의 박영호(오른쪽) 의원이 28일 평壤시내 인민문화회관에서 열린 IPU 평壤총회 회담에 참석, 양측 대표들과 함께 있다.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89년 후 첫 미사 올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99년 후 첫 미사 올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99년 후 첫 미사 올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99년 후 첫 미사 올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99년 후 첫 미사 올릴

이날 회담은 평양에서 열린 IPU 대표단 4인자회담...

金日成-PU개막연설

統一방안 새立場표명. 여부 주목

유엔加入등 사고 격론 南北어제 非公式 회동

【서울=연합통신·차별시청】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2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일성은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2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일성은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2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일성은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2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金日成주석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경우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김일성 북한 최고지도자가 28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南北 국회대표 비공식회담

주요懸案 90분간 토론

IPU 평壤총회 개막

【주요】국회(국회기자단)는 28일 평壤에서 열린 17개국 의원 대표회의(이하 17개국 의원 대표회의) 참석차 평壤에서 열린 제 8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가 28일 평壤에서 개막했다. <과제기사 5면>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의 차관장인 남평壤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壤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남북의원연맹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평壤에서 열린 제 8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개막식. 남평壤총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제기사 5면 참조]

韓半島 核위협 덜칠계기

金日成 개막연설

【서울=내외】북한의 중앙외교부장은 평壤에서 열린 제 8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개막식에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그는 「자유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유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남평壤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壤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남북의원연맹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북한의 국회의원들은 「자유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유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남평壤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壤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남북의원연맹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북한은 「자유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유와 평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며, 이는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고 말했다.

남평壤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평壤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남북의원연맹의 상호협력과 교류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平壤 IPU에서의 양상

○...최근 북은 IPU에서 -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1일까지 1년간의 기간 동안에 실시될 예정인 남북회담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방 好戰性 對面에서 南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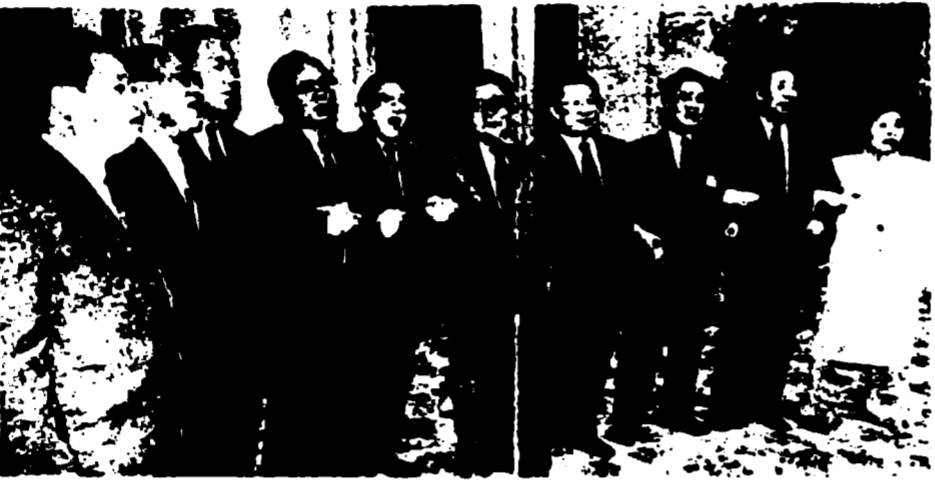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金日成, 연방제案 되풀이

I P U 총회 개막연설... 수정안 안내와 차단장, 金에 정상회담 촉구

【平壤=국회방송취재단】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29일 제85차 국회의원연맹(I P U)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연방제안을 하고,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했다.

【平壤=국회방송취재단】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29일 제85차 국회의원연맹(I P U)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연방제안을 하고,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했다.



盧총리 차안장관회의의 주제
정부는 29일 서울에서 열린 차안장관회의의
주제로는 차안장관회의의 주제
표현된 시우정안(정안)을 개안(정안)을
(정안)을 개안(정안)을

【平壤=국회방송취재단】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29일 제85차 국회의원연맹(I P U)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연방제안을 하고,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했다.

【平壤=국회방송취재단】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29일 제85차 국회의원연맹(I P U)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연방제안을 하고,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했다.

【平壤=국회방송취재단】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29일 제85차 국회의원연맹(I P U)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연방제안을 하고,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했다.

【平壤=국회방송취재단】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29일 제85차 국회의원연맹(I P U)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연방제안을 하고,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했다.

【平壤=국회방송취재단】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29일 제85차 국회의원연맹(I P U)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연방제안을 하고,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했다.

【平壤=국회방송취재단】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29일 제85차 국회의원연맹(I P U)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연방제안을 하고,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연방제안을 주도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말했다.

—1991년 4월 30일—

북측은 1991년 4월 29일(수요일) 평양에서 열린 '1991년 4월 29일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金日成 환영합니다... 차단장과 건배

북측은 4월 29일 평양에서 열린 '1991년 4월 29일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주席宮만찬에 1,200여명 참석 성황 의원회의선 北측 정치성발언 일관

북측은 4월 29일 평양에서 열린 '1991년 4월 29일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북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남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 양측의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회담은 남북 양측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송일성, 우리대표인사 환영 인사



IPU총회의 남북 대표단을 위해 28일 高麗문화사당에서 배운 민찬에서 北측 尹基福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本報=국회사진기자단】

平壤 IPU 이모저모

北측인사들, 獨逸式 통일 생각 말라, 정계 대표단만 찬서 한국기자 사진촬영 금지

○...북측인사들 1차 환영회 열어
北측인사들(인민)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환영회(인민)에서 尹基福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本報=국회사진기자단】

北측인사들 1차 환영회 열어
北측인사들(인민)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환영회(인민)에서 尹基福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本報=국회사진기자단】

北측인사들 1차 환영회 열어
北측인사들(인민)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환영회(인민)에서 尹基福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本報=국회사진기자단】

北측인사들 1차 환영회 열어
北측인사들(인민)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환영회(인민)에서 尹基福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本報=국회사진기자단】

北측인사들 1차 환영회 열어
北측인사들(인민)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환영회(인민)에서 尹基福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本報=국회사진기자단】

北측인사들 1차 환영회 열어
北측인사들(인민)은 28일 평壤에서 열린 환영회(인민)에서 尹基福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 심의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있다. 【本報=국회사진기자단】

北韓核사찰수락 진북영안법

— IPU 총회 韓·澳·뉴질랜드代表 추구연설

【서울 21일(수) 연합뉴스 보도】 북한이 핵사찰수락을 허용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북한은 핵사찰수락에 동의할 경우 IPU 총회(국제평화유지기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핵비확산조약(NPT)의 비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가진다.

<한진뉴스어젠>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

평양 - 200명의 이모저모

○...평양에서 200명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이원철의 '평양 - 200명의 이모저모'가 최근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에 실렸다. 이 책은 이원철의 평양 방문 일기와 인터뷰를 엮은 것으로, 평양의 현실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 200명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이원철의 '평양 - 200명의 이모저모'가 최근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에 실렸다. 이 책은 이원철의 평양 방문 일기와 인터뷰를 엮은 것으로, 평양의 현실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金日成大교수 갑작스런 고함질문에 당황 시민들 "李國防발언은 선전포고" 한목소리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이원철은 평양을 방문한 지 30일 전인 평양 시내 유류관에서 마진환 민찬에서 朴相文의 부(朴相文)와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이원철의 美문화철수 행적모음각'을 소개하고 있다. <平壤 = 朴相文과 대화>

北韓南北 대화 박테시엔노再開

樞事變, 朴定洙 단장에 박형 "IPU 총회 중" 論議할 수 노

朴 단장, 北 의회 대표단 서울 招請

【서울=가정통신망】北 단장인 朴定洙(57)가 北 의회 대표단 12명에게 서울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朴 단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北 의회 대표단 초청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朴 단장은 "北 의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北 의회 대표단과 南 의회 대표단이 1991년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에서 3일간 회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朴 단장은 회담 중 北 의회 대표단과 南 의회 대표단이 1991년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에서 3일간 회담할 예정이다. 회담 중 北 의회 대표단과 南 의회 대표단이 1991년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에서 3일간 회담할 예정이다. 회담 중 北 의회 대표단과 南 의회 대표단이 1991년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에서 3일간 회담할 예정이다.

北 단장인 朴定洙(57)가 北 의회 대표단 12명에게 서울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朴 단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北 의회 대표단 초청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朴 단장은 "北 의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北 의회 대표단과 南 의회 대표단이 1991년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에서 3일간 회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정일 평양에서 '영국 임박'

-D.C가 평양에서 '5.1절' 이모저모

○...김정일 의회 대표단 12명에게 서울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朴 단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北 의회 대표단 초청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朴 단장은 "北 의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北 의회 대표단과 南 의회 대표단이 1991년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에서 3일간 회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간도...김정일 의회 대표단 12명에게 서울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朴 단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北 의회 대표단 초청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朴 단장은 "北 의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北 의회 대표단과 南 의회 대표단이 1991년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에서 3일간 회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간도...김정일 의회 대표단 12명에게 서울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朴 단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北 의회 대표단 초청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朴 단장은 "北 의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北 의회 대표단과 南 의회 대표단이 1991년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에서 3일간 회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가슴팍마다 '아리의 수원', 합창...틀리기 권하기도 소포객, 왜 장가안갔나, 질문뒤 '통일된 뒤 가겠다' 정말 잘 오셨다...林양성 방記者인생들이 힘써 별난

간도...김정일 의회 대표단 12명에게 서울을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朴 단장은 1일 서울에서 열린 北 의회 대표단 초청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朴 단장은 "北 의회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할 경우, 北 의회 대표단과 南 의회 대표단이 1991년 5월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서울에서 3일간 회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平壤 IPU 대표단이 모셔져

평양시의 진격(합창)

○…북경 IPU 총회의 참정성인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차용용 대표단이 평壤市로 돌아와 평壤 IPU 대표단과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지난 오후 7시 30분 열렸다. 평壤시 당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은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사를 하면서 북경에서 열린 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8시 30분 열렸다.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은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에서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8시 30분 열렸다.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은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8시 30분 열렸다.

소풍 나온 시민들과 '우리의 소원' 합창



회의장에 太極旗를 걸린 후 처음으로 북한 평壤市에서 열린 총회 회의장의 한 모습이다. 평壤 IPU 총회의 회의장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1991년 5월 1일 열렸다. 국가를 함께 태극기가 내걸려 소풍을 한다.

평양 대표단 모셔주는

○…북경 IPU 총회의 참정성인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차용용 대표단이 평壤市로 돌아와 평壤 IPU 대표단과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지난 오후 7시 30분 열렸다. 평壤시 당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은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사를 하면서 북경에서 열린 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8시 30분 열렸다.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은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8시 30분 열렸다.

메이데이 공휴일 유원지에 인파 북적
平壤 시내 아파트들 러 생활상 살펴

평양시내 관광에 나서 평壤시내 아파트들 러 생활상 살펴

평양시내 아파트들 러 생활상 살펴

평양시내 아파트들 러 생활상 살펴



회의장에 太極旗를 걸린 후 처음으로 북한 평壤市에서 열린 총회 회의장의 한 모습이다. 평壤 IPU 총회의 회의장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1991년 5월 1일 열렸다. 국가를 함께 태극기가 내걸려 소풍을 한다.

시민들과 접촉하는

평양시당위원회

○…북경 IPU 총회의 참정성인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차용용 대표단이 평壤市로 돌아와 평壤 IPU 대표단과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지난 오후 7시 30분 열렸다. 평壤시 당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은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사를 하면서 북경에서 열린 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8시 30분 열렸다.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은 평壤시당위원회 위원의 회견이 8시 30분 열렸다.

북핵실험再開에 북측 긴장남이

—P.U.대표단 防北 영세제

○...북측은 1일 평양 1 일제 유급한 핵의안과 핵 P.U.대표단 구성관련 영인한 핵의안과 핵의안 관련 문서 기초수위에서 자신들 핵의안 영인한 다수의 단



1일 평양에서 열린 핵의안 관련 회의 모습. (가운데=북측 대표단장인 김용중) [가운데=북측 대표단장인 김용중]

핵의 실패

아시아 핵실험이 가동중인... 國·南北 韓·日本이 모두 참가하고 있는 13개국 기초수위에서 북측의 핵실험 관련 표가 구성관련 핵의안 영인한 다수의 단

아 북측이 긴장

아 북측이 긴장... 1일 P.U.대표단 구성 관련 핵의안 영인한 다수의 단

북측 긴장

북측 긴장... 1일 평양에서 열린 핵의안 관련 회의 모습

北측, 軍縮결의안 채택 說得실패 학생들, 남조선 어린이 깡통구걸

북측이 1일 평양에서 열린 핵의안 관련 회의 모습. (가운데=북측 대표단장인 김용중)

북측이 1일 평양에서 열린 핵의안 관련 회의 모습. (가운데=북측 대표단장인 김용중)

북측이 1일 평양에서 열린 핵의안 관련 회의 모습. (가운데=북측 대표단장인 김용중)

북측이 1일 평양에서 열린 핵의안 관련 회의 모습. (가운데=북측 대표단장인 김용중)

북측이 1일 평양에서 열린 핵의안 관련 회의 모습. (가운데=북측 대표단장인 김용중)

북측이 1일 평양에서 열린 핵의안 관련 회의 모습. (가운데=북측 대표단장인 김용중)

북측이 1일 평양에서 열린 핵의안 관련 회의 모습. (가운데=북측 대표단장인 김용중)

北韓核사찰 촉구 결의

核·군축문제 小委 “무조건 핵안전협정 체결토록”

【서울=대한뉴스통신】 북·한 2국 핵의존과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강요하는 미국의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金永三 일본방문 예정인가

一平代表 방한 이마져

【서울=대한뉴스통신】 북·한 2국 핵의존과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실험을 강요하는 미국의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며, 미국은 북·한 양국 핵실험을 강요하는 핵·군축문제 소위원회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 2차 회의를 열어 북·한 양국 핵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차단장 평양왔으니 모국어 쓰겠다 기조연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표단의 구성은...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구성된 대표단은...
 조만간 평양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북단장 北인권 신랄한 모국어 회담장 승평
 금강산 어젠더 언급들 "기적같은... 열감 언급이다"**

북단장 北인권 신랄한 모국어 회담장 승평
 금강산 어젠더 언급들 "기적같은... 열감 언급이다"
 북단장은 회담장에서...
 인권 문제를 신랄하게 언급했다.
 모국어를 사용한 그의 발언은...

북단장 北인권 신랄한 모국어 회담장 승평
 금강산 어젠더 언급들 "기적같은... 열감 언급이다"
 북단장은 회담장에서...
 인권 문제를 신랄하게 언급했다.
 모국어를 사용한 그의 발언은...

주황색의 핵

北韓「核」협정 촉구 IPU, 결의안 채택

【합중미군(하와이주) 5일路透電】 5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 협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고 핵 재처리 시설을 폐쇄하며 핵 폐기물 처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핵 협정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경향신문(1991. 5. 5)

이금剛山, 말에 잃었다

주황-PU 총회 언저리

【합중미군(하와이주) 5일路透電】 5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 협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고 핵 재처리 시설을 폐쇄하며 핵 폐기물 처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핵 협정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과 2~3개 관할지역의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 지역이 북한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 지역이 북한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絶景에 벗어났고 統一前 개방일...

공적후련하거든 서울갈수있다

【합중미군(하와이주) 5일路透電】 5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 협정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 실험을 중단하고 핵 재처리 시설을 폐쇄하며 핵 폐기물 처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이 핵 협정에 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금剛山, 말에 잃었다

아직 北韓같은 獨裁체제 본적 없다

평양-PU참석 獨대표단 北京서 회견

平壤-PU참석의 참석
했던 北 獨 대표단의 일원은
5일 北 獨 代表團을
관하러와 스탈린의 비
유하면서 金日成의 비
피로들(獨재체제)을
방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北 獨 獨재체제에 대해
것을 추구했다.

고 강조했다.
PU참석차 平壤
에서 北 獨 代表團은
獨재체제에 대해 2천3
백만 北 獨 주민들의
구속해방을 위한 獨재
체제를 비난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리하
이르며 北 獨 代表團은
獨재체제에 대해 獨재
체제를 비난했다. 獨재
체제의 獨재체제에
있고 北 獨 代表團은
獨재체제에 대해 獨재
체제를 비난했다.

같은 계략에 빠졌던 것으
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회민주주의의 우배를
초의원은 北 獨 獨재체
제에 대해 獨재체제에
라고 표현하고 국제사회
의 압력만이 오늘날의 北

정도 히틀러가 위대한
「유러」지도자로 불리
고 집권했던 것과 같은 맥
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나는
북한체제가 간혹 안독일의
히틀러시대와 소련의 스

리모두는 북한을 정치·경
제적 민주화 시켜 줄 것
들이기 위해 정국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獨 獨재체제의 우도 하
스조체 기독교민주주의
은 북한체제에 대한 개
현민주화운동이 일어나
이전의 北 獨 獨재체제를
상식했다면서 「이번 북한
여정은 나의 기속속에 남
아있는 과거 東 獨 獨재체
제의 악몽으로 거듭나리라

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하스조체의 위원은 북한
어린학생들이 오전 7시 30
분과 저녁 6시 30분 군대
식 작보행으로 동행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
다.
그는 지난 89년 東유럽
국가들을 휩쓴 민주화운
동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북한
이 지금처럼 모든 정보가
완전통제돼있는 한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北 獨 獨재체제 우리
는 베를린장벽처럼 서방
의 TV와 라디오를 듣고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
보접속의 자유가 東 獨 獨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
천적인 힘이 됐다. 그러나
나 북한주민들의 의무세
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정부가 완전 차단돼있다.
북한의 민주화가 되면 수
백만의 인구가 바르르
기어 있다」고 결론지었
다. <北京=연평>

個人개념 아예 없고 국민생각까지 통제 어린학생들의 군대식 직각보행엔 경악

원초적과 관련 「오스트리
아 북독일 대표단」의 서유
영에서 北 獨 代表團은 북
한이 金日成체제를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내놓은 獨재체제의 獨재체
제에 대해 獨재체제에
이라고 표현하고 국제사회
의 압력만이 오늘날의 北

獨재체제를 동요시킬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
는 특히 집단생활을 떠나
스탈린이 구속했던 개인
숭배체제를 金日成이 모
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金日成이 「위대한 수령」
이라고 찬양할 줄 아는지

탈린시대가 머리를 떠나
지 않았다고 회고했
다.
북한의 獨재체제는 「이제는
북한인이 공산주의의 회
망물 가져다 주지 못한다
」 현상을 깨닫고 개방이
로 나선 시기라면서 「우

간 「과거여행」이 있을 뿐
만 아니라 東 獨 獨재체제의
되지 못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미래사회
를 전망하는 「미래여행」
이었고 「말하자면 東 獨 獨재
민주화를 이룬다」 대해 하
는 단계를 간사한 北 獨 獨재

체류 1주일엔 끔찍한 경험... 스탈린시대 연상

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하스조체의 위원은 북한
어린학생들이 오전 7시 30
분과 저녁 6시 30분 군대
식 작보행으로 동행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
다.
그는 지난 89년 東유럽
국가들을 휩쓴 민주화운
동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북한
이 지금처럼 모든 정보가
완전통제돼있는 한 그것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北 獨 獨재체제 우리
는 베를린장벽처럼 서방
의 TV와 라디오를 듣고
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정
보접속의 자유가 東 獨 獨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
천적인 힘이 됐다. 그러나
나 북한주민들의 의무세
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정부가 완전 차단돼있다.
북한의 민주화가 되면 수
백만의 인구가 바르르
기어 있다」고 결론지었
다. <北京=연평>

平壤-PU總會가 남긴 것

核査査촉구決議로 北韓측 공지에

北朝鮮은 平壤에서 열린 국제회의(IEA)에 참가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하고, 이를 北韓측에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北朝鮮은 平壤에서 열린 국제회의(IEA)에 참가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하고, 이를 北韓측에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平壤에서 열린 국제회의(IEA) 제85차 총회가 6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4일 하오 폐회했다. 사진은 지난날 30일 비공식 회담을 갖고 있는 南北국회대표들.

南北대화再開·정치인交流 促請 韓半島

이제까지 IAEA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은 北韓측에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까지 IAEA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은 北韓측에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PU總會 마지막 회의

북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金日成대학 학생들, 政治性 발언 피해 난질 海金剛 큰바위는 赤旗歌·혁명구호로 일류

북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측은 핵査査촉구決議를 채택한 10여개국의 핵査査촉구決議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평화뉴스어정경

平壤-PU총회 결산

4일 평壤 내인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남북국회회담의 결산식이 6일(금) 평壤에서 열렸다. 이날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리기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양측이 합의한 「통일정책선언」과 「합작투자법」이다.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남북국회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국회회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기존信念-急變 대응 자신감 없는듯
기대했던 수정 고려연방제 안나와
李鵬과 金日成의 회담내용 관심거리

이 회담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외 정책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상당히 개방적으로 보인다. 특히, 수정된 고려연방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南北 국회회담 준비접촉
빠른 시일내再開합의

PU국회대표단 5일 귀환

일일장관과 宋漢虎동원원 차관회의 영접을 받았다. 차관장은 평壤의 진의 사귀환성을 통해 「北韓측 IPPU대표단」 회담 관계 북측대표단의 과두차례의 만찬을 갖고 남북국회회담의 여가지를 현안과 대화재개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하면서 우리측 입장을 밝혔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제85차 북한의 회담(1-11)은 평壤에서 열렸다. 양측은 합의문을 통해 남북국회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국회회담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회담은 4일(수)부터 6일(금)까지 3일간 계속됐으며, 양측 대표단은 5일(목)에 회담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식을 가졌다.

蔡汝植고문은北서 친척 상봉

7촌 조카딸·10촌동생 등 6명과 두차례

과제의회(연명) (I·P·U) 대 표단의 蔡汝植고문이 4월 7일 7촌조카딸과 10촌 동생 등 6명의 친척들과 회 후였다.



蔡고문은北서로 도착하 자마자 친척을 만나게 해주 겠다고 제의해,「형제·친척 아들도 여기(北)에 없다」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소)로 으면 짐을 같이 하 겠다」고 요구, 지난 1일 상 오시쯤 친척들을 처음 상봉.

蔡고문은 그러나 친척에 남 아저씨가 왜 南쪽의 우

남 아저씨가 왜 南쪽의 우

이, 7촌조카에게는 지회들이 가서 잔치를 올리도록 통일 해주세요」라고 신신당부 했고 다른 친척들은 모두 산소할 가할수 있도록 통 일해달라며 손을잡았다.

왜 우익의 반동위해 일하느냐" 불명

말했다. 북한측의「오신다 는 소신을 듣고 蔡고문을 불 모하는 친척들이 받고 싶어 한다」고 해 놓았다」고 실 평했다.

○...그 당시 정말 부친 최이북의 외영이라고 생 각하지 못했단 것.

이탈한다 친척들은 蔡 훈식(63·咸興경중공업원장), 蔡범식(60·南海通安岳郡협 동조합과장), 蔡영식(55)씨 등 10촌동생 3명, 변씨씨 의 아들 회동씨(대학원구 원), 연씨씨의 딸 회옥씨(유 치원선생), 그리고 故人이 된 6촌동생 蔡우식씨의 딸 경애씨(4촌)의 손녀인 무용지 도아부사) 등.

의 반동위해 일하 일하 합니까」라고 따졌다. 蔡고문은 이 말을 전하며 명변사이다 후련이 됐다 『형제사 같은』고 반박. 『형제사 같은』고 반박. 『형제사 같은』고 반박.

아들을 낳아 지금껏 노모 를 모시며 살아온 부인에 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한 표정. ○...2차 상봉이 4일 밤 9시. 蔡고문은 「한번 만나 는 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예고없이 찾아왔다」고 담시를 읊었다. 이틀이후 「통일」이 화 제가 돼 경애씨(4촌)의 아바

이, 7촌조카에게는 지회들이 가서 잔치를 올리도록 통일 해주세요」라고 신신당부 했고 다른 친척들은 모두 산소할 가할수 있도록 통 일해달라며 손을잡았다. 당초 이번 만남을 북한 측은 姜英勳前총리 때처럼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었 으나 2차 상봉에서 수행 기자들에게 들리고 말았다 는 설명. 蔡고문은 정애씨가 金川 成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 을 가져와 「이것은 저희가 죽 보배예요」라며 자랑한 때 「마음이 내려앉는 것 같 았다」고. 친척들은 평양을 떠나던 5일에도 예외로 나오겠다 고 했으나 이번에는 蔡고 문이 거절했다는 것. 그는 이번 친척의 해후 에 대해 「애처롭기도 하고 반 감기도 하고...」라고 답답 하게 소감을 털어냈다. <李容鎭기자>

북한 4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인민대회(一全會)가 26일 평양에서 막을 내렸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 주석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주체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체사상'을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주체정치'의 핵심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주체정치'의 핵심을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주체정치'의 핵심을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주체정치'의 핵심을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주체정치'의 핵심을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석의 사치 베르사이유궁 무색

「위대한 首領」, 벤츠 탄차 「양키文化」 비난 「테러정치」·주입식 思想교육만 판쳐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주체정치'의 핵심을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주체정치'의 핵심을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주체정치'의 핵심을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서 '주체정치'의 핵심을 '주체사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체사상'이 '주체정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위 시준네미紙기자訪北記

북한의 「북정화 진보」, 해외 언론 기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특히 「조선일보」 기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북한은 「조선일보」 기자들의 관심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북한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 기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北韓 농업 파탄 外交官에도 식량 配給

金日成 초상화 많아도 레닌 것은 안보여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외국인용 兌換화폐 暗市場서 5~6배 거래

【평양 26일 특보】

북한은 「북정화 진보」, 해외 언론 기자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특히 「조선일보」 기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북한은 「조선일보」 기자들의 관심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3. 其他 南北對話關聯 主要論・解說記事

축구단일팀을 따뜻하게 환영하자

대화 통한 실천적 결실 소중하게 거둬야

광주항쟁 11들과 고 강경대씨의 장례식, 2차 '국민대회'를 앞두고 사회적 긴장이 한껏 고조돼 국민들의 마음이 다소 어수선한 속에서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출전할 남북 단(유)일팀 선수단 일행이 17일 낮 '조용히' 판문점을 넘어 서울에서 첫밤을 보냈다.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일제감치 정국을 흔들어 놓았고 이제 시국마저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터라 단(유)일팀에 관심을 쏟을 마음의 여유가 모두에게 없을 법도 하다.

그러나 유일팀을 구성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쳤다는 어느 북녘동포의 감개나, 이제 단일팀을 만들었으니 남북의 형제끼리 우열과 승부를 가려야 하는 대결의 시대는 끝났다는 남녘 축구 선수의 흥분은 우리 모두가 쉽사리 잊을 수 없는 감격으로 여전히 이어져 있다. 지난날 26일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전경들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이후 백관단 해체와 광안봉치 종식, 내각 사퇴와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분신, 시국성명, 농성사태가 잇따라 터지는 속에서도 일본 지바에서 날아온 탁구단(유)일팀의 분전과 우승소식은 그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국민 모두에게 가슴 뭉클한 흥분음 안겨주었다. 또 '대한'도 아니고 '조선'도 아닌, 그래서 좀 어색한 '코리아'를 가슴에 붙이고 긴장으로 입술이 바짝 마른 듯했던 리분희 선수의 그 분전이 텔리비전을 통해 남녘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탄성과 안타까움으로 전해질 때는 북녘이 성큼 안방까지 들어와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도 만들었다. 남녘만이 아니라 '코리아'팀은 일본 현지에서도 민단과 조총련으로 갈린 동포들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한몫을 북돋아 주었다는 소식은 오히려 새삼스럽다.

6월 중순 포르투갈에서 열리는 청소년축구대회에 참가할 두번째 '코리아'팀이 선수와 임원까지 확정하고 서울에서 결단식만을 기다리고 있

다는 사실은 세계탁구의 감격을 되살리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코리아'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전망이 별로 밝지 못하기 때문이다. 5년전 열번째 본회담을 가진 뒤 중단된 적십자회담은 끝내 재개되지 못했고 정치인들의 접촉으로 주목을 끌었던 국회회담도 88년 여름부터 1년반 동안 10여차례 준비접촉을 가졌지만 본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그나마 지난해 1월에 중단됐다. 남북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당국자간 회담은 89년 초부터 1년반 동안 여덟차례의 예비회담 끝에 지난해 9월 첫 고위급회담이 열려 남북한의 총리가 서울과 평양에서 새차례 대좌했으나 금년 들어서는 4번째 회담을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차급도 재개될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나마 체육회담이 베이징아시아게임 단일팀 참가를 위한 1년여의 협상이 결렬된 부담속에서도 지난해 가을 평양과 서울의 통일축구 열기에 힘입어 4차례의 회담 끝에 국제대회 단(유)일팀 구성·참가에 거둔 합의하는 귀중한 결실을 얻었다.

전지훈련과 출전을 앞두고 단(유)일팀의 남북 임원들이 4강진출 결의를 다지면서도 팀워크를 기정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좋은 성적을 거둬 보답하려는 그들의 조바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도 아니지만, 남북대화의 유일한 실천적 결실이자 남북녘 모든 이들의 민족적 정서에 그대로 닿아 있는 '코리아'팀의 그 깊은 의미에 비취본다면 팀워크와 성적이 문제라 싶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도 고등학생까지 포함된, 이름 그대로 20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코리아'팀의 축구선수들을 모두가 가슴에 품듯이 따뜻하게 맞아야 한다. 관계당국도, 특히 북녘의 선수·임원을 안내하는 이들도 긴장된 시국속에서 배신감이 쓰이기는 하겠지만 편의는 물론이고 그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경색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다.

北韓 유엔加入 결정 따라 經協활기 전망

北韓이 유엔가입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그동안 北方지역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크게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엔가입을 북한 경제에서도 오는 9월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南北經協협력사업의 상당부분 재거둠을 해안에 본격적인 直交易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유엔가입을 전제로 하여 南北經協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재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민간경제에서도 그동안 움직임으로 추진되어온 南北經協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가 앞으로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北韓이 유엔가입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그동안 北方지역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크게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엔가입을 북한 경제에서도 오는 9월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南北經協협력사업의 상당부분 재거둠을 해안에 본격적인 直交易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유엔가입을 전제로 하여 南北經協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재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민간경제에서도 그동안 움직임으로 추진되어온 南北經協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가 앞으로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물자 교역현황
단위: 천만달러

연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8년	4	1,037	1	69
89년	57	22,235	1	4,731
90년	76	20,879	4	11,941
(1-4월)	78	45,491	5	16,741
계	215	89,642	10	16,741

88년은 남북물자 교역시행제정(10월) 이후 실적

남북물자 교역현황은 4월 5일내에 1조원규모로 대폭 확대 중, 우리측 민간상사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 88년부터 소비재 및 원자재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인 점을 고려, 경제협력차관금 제공 하는 방안도 시종히 검토하고 있다.

우선 현대그룹은 지난 88년 鄭周永명예회장의 북한방문때 합의한 △금강산개발사업 △元山수리조선소사업 △원산철도차량기지사업 등이 아직 유요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업추진 시나리오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또 현대종합상사내의 식료부 선유부 등을 중심으로 수출유망품목인

아연과 동, 금, 내방암이 될 요한 품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생산계획과 가격 수주를 점검하는 한편 對北투자계획 마련에 나서고 있다.

財界는 또 그동안 북방교역에서 중심역할을 해온 종합상사를 통해 북한과 교역가능품목에 대해 3국간 거래에도 직접 나설 계획이다.

現代 三星, 리키금성등 주요 그룹들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북방관련 신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對北거래를 추진해온 방식에서 탈피,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거래에 적극 나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쌍용, 효성, 코오롱, 금호, 광화, 동산, 기조원사재 등 4~5개 분야에 걸쳐 직·간교역 및 투자 시나리오를 작성, 수출의 공개상에 넘겨주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역실적 4월이 첫 방정재 추진에 힘입어 남북한 물자교역이 올들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경제회담재개 '3通' 협정 체결 등 추진

남북협력기금 1兆규모로 확충... 北에 자금지원 검토

財界선 전담부서 설치, 직접 투자도 서둘러

정부는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가 앞으로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유엔가입을 북한 경제에서도 오는 9월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南北經協협력사업의 상당부분 재거둠을 해안에 본격적인 直交易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유엔가입을 전제로 하여 南北經協협력사업의 본격적인 재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민간경제에서도 그동안 움직임으로 추진되어온 南北經協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가 앞으로 南北經協협력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물자 교역현황은 4월 5일내에 1조원규모로 대폭 확대 중, 우리측 민간상사를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 88년부터 소비재 및 원자재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인 점을 고려, 경제협력차관금 제공 하는 방안도 시종히 검토하고 있다.

우선 현대그룹은 지난 88년 鄭周永명예회장의 북한방문때 합의한 △금강산개발사업 △元山수리조선소사업 △원산철도차량기지사업 등이 아직 유요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사업추진 시나리오를 계속 연구하고 있다.

또 현대종합상사내의 식료부 선유부 등을 중심으로 수출유망품목인

아연과 동, 금, 내방암이 될 요한 품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생산계획과 가격 수주를 점검하는 한편 對北투자계획 마련에 나서고 있다.

財界는 또 그동안 북방교역에서 중심역할을 해온 종합상사를 통해 북한과 교역가능품목에 대해 3국간 거래에도 직접 나설 계획이다.

現代 三星, 리키금성등 주요 그룹들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북방관련 신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對北거래를 추진해온 방식에서 탈피,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거래에 적극 나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쌍용, 효성, 코오롱, 금호, 광화, 동산, 기조원사재 등 4~5개 분야에 걸쳐 직·간교역 및 투자 시나리오를 작성, 수출의 공개상에 넘겨주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역실적 4월이 첫 방정재 추진에 힘입어 남북한 물자교역이 올들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연과 동, 금, 내방암이 될 요한 품목들에 대해 구체적인 생산계획과 가격 수주를 점검하는 한편 對北투자계획 마련에 나서고 있다.

財界는 또 그동안 북방교역에서 중심역할을 해온 종합상사를 통해 북한과 교역가능품목에 대해 3국간 거래에도 직접 나설 계획이다.

現代 三星, 리키금성등 주요 그룹들은 이를 위해 그동안 북방관련 신시장 개척을 중심으로 對北거래를 추진해온 방식에서 탈피,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거래에 적극 나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쌍용, 효성, 코오롱, 금호, 광화, 동산, 기조원사재 등 4~5개 분야에 걸쳐 직·간교역 및 투자 시나리오를 작성, 수출의 공개상에 넘겨주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교역실적 4월이 첫 방정재 추진에 힘입어 남북한 물자교역이 올들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일문제와 통일이슈의 개편...統一院 건제

남북한이 통일 문제를 놓고 10년 가까이 대립해 오던 가운데, 최근 제3국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한 정상회담'이...

남북한이 합의한 '남북한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1) 남북한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원칙을 준수할 것임. (2) 남북한이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할 것임. (3) 남북한이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임.

南北코리아, 非政治 교류 활발



지난 5월 2~5일 日本 쓰루가에서 南北음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日本海 국제예술제'. 최근 제3국에서의 南北민간 접촉이 잦아지면서 판문점을 통한 南北직교류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第3國에서의 民間 접촉 날로 증가

화של회의·종교행사에 史上 첫 女性界 對坐도 北韓서 참여 폭 확대... 韓直交가 늘었다

남북한이 제3국에서 민간 접촉을 늘리고 있다. 특히 화של회의와 종교행사에 여성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등, 북한에서도 참여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한이 제3국에서 민간 접촉을 늘리고 있다. 특히 화של회의와 종교행사에 여성들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등, 북한에서도 참여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이 뽑아준 정부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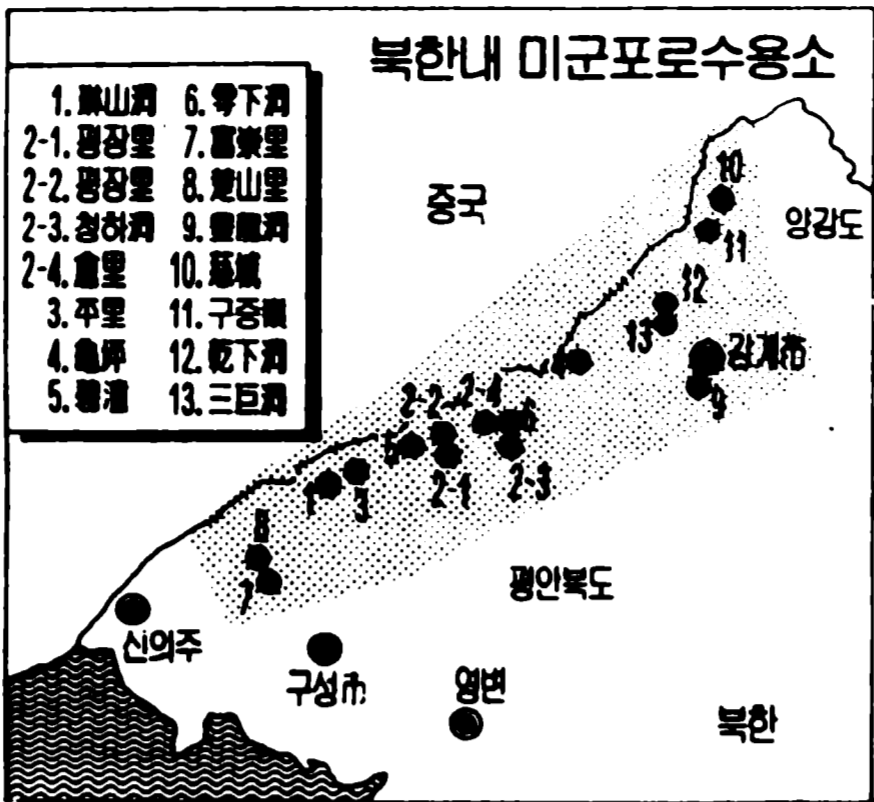
국민이 뽑아준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어떤 성과를 올렸는지 살펴본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증진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민이 뽑아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증진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민이 뽑아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증진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민이 뽑아준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 증진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교육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對美점근 위한 宥和제스처



유엔조사팀과 가 지난 86년 10월 평안북도 영변시안 6.25전쟁 발발의 미군포로수용소 위치를 나타내. 유엔조사팀이 이들 포로수용소를 평양 근교의 7개소로 추정하고 유엔기 관측을 통해 확인된 것이 밝혀졌다.

北韓 美軍유해 引渡의 배경

유엔加入 앞두고 宣傳효과 노린듯 美軍포함, 아직 1만여 具 殘存 추정

북한측에서 24일 「미군유해」 11구를 미군유해 인도한 것이 유엔의 최초 인도인 기록으로 남았다. 유엔의 미군유해 인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37년간 미군유해 인도가 없었다. 유엔은 미군유해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에서 24일 「미군유해」 11구를 미군유해 인도한 것이 유엔의 최초 인도인 기록으로 남았다. 유엔의 미군유해 인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37년간 미군유해 인도가 없었다. 유엔은 미군유해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에서 24일 「미군유해」 11구를 미군유해 인도한 것이 유엔의 최초 인도인 기록으로 남았다. 유엔의 미군유해 인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37년간 미군유해 인도가 없었다. 유엔은 미군유해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에서 24일 「미군유해」 11구를 미군유해 인도한 것이 유엔의 최초 인도인 기록으로 남았다. 유엔의 미군유해 인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37년간 미군유해 인도가 없었다. 유엔은 미군유해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에서 24일 「미군유해」 11구를 미군유해 인도한 것이 유엔의 최초 인도인 기록으로 남았다. 유엔의 미군유해 인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37년간 미군유해 인도가 없었다. 유엔은 미군유해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에서 24일 「미군유해」 11구를 미군유해 인도한 것이 유엔의 최초 인도인 기록으로 남았다. 유엔의 미군유해 인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37년간 미군유해 인도가 없었다. 유엔은 미군유해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에서 24일 「미군유해」 11구를 미군유해 인도한 것이 유엔의 최초 인도인 기록으로 남았다. 유엔의 미군유해 인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37년간 미군유해 인도가 없었다. 유엔은 미군유해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에서 24일 「미군유해」 11구를 미군유해 인도한 것이 유엔의 최초 인도인 기록으로 남았다. 유엔의 미군유해 인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37년간 미군유해 인도가 없었다. 유엔은 미군유해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측에서 24일 「미군유해」 11구를 미군유해 인도한 것이 유엔의 최초 인도인 기록으로 남았다. 유엔의 미군유해 인도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37년간 미군유해 인도가 없었다. 유엔은 미군유해 인도를 통해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에 가입하려는 북한측은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의 규범과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된 코리아, 화합의 주춧돌 놓았다

8강 오른 세계 청소년축구 決算

7천만여명의 성원과 세계축구팬들의 주목속에 제6회 포르투갈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남북단일 코리아팀은 8강진입이란 기대이상의 성적을 남기고 이번대회 경기일정을 마감했다.

코리아팀의 이번대회 성과는 남북의 화합과 경기력 등 두 측면에서 모두 합격이란 평가를 받았다.

코리아팀은 전혀 다른 체제와 이념, 심지어 경기용어까지 낯설어진 오랜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고 결코 쉽지 않으리라던 8강의 목표를 달성했다.

단체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팀워크를 이루기에 절대부족한 1개월만의 훈련기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등 강호를 헤치고 선전, 예선을 통과했다.

축구경기의 특성을 의식, 성적

보다는 단일팀 구성 자체에 의의를 두었던 당초 목표를 감안하면 값진 성과이다.

남북선수 18명을 포함, 총62명의 선수단은 합숙훈련 및 대회기간동안 서로의 신뢰와 이해를 높

이는데 나름대로 힘을 기울였고 만남과 대화만이 불신과 오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이번 코리아축구팀 출전은 지바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이어 한민족의 우수성을 새삼 확인해 준 것으로 앞으로의 남북간 스포츠교류증진은 물론 현안인 바르셀로나올림픽단일팀구성 등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성과 외에 내면적으로 단일팀 운영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의만을 의식, 경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못했다.

이번 코리아팀은 대회를 불과 4개월 앞둔 지난 2월12일 선수

단 코리아팀은 실질적인 합숙훈련이 부족한 것은 물론 축구를 잘 모르는 회담대표들의 의사만으로 구성된 합의서에 따라 움직이게 돼 어려움이 가중됐다.

경기때마다 양측 선수들의 안배문제로 논란이 많았고 기량을 체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있어도

기용하지 못했다.

국내 축구관계자들은 코리아팀이 소기의 목표를 이룩하긴 했지만 운영면에서 짧은 훈련기간으로 인한 팀워크부재와 선수단 운영상의 숫자줄다리기, 그리고 상호간의 불신 등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단일팀이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포르투(포르투갈)=배성국특파원〉

팀구성 한달만에 아르헨등 강호 꺾어 선수안배에 집착...戰力극대화는 차질

단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본뒤 2월28일 실무회담을 끝내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고집, 수차례 연락관 회의에서 당초의 일정을 변경하는 어려움을 겪다 5월6일에야 북측이 평가전을 위해 서울에 도착, 단일팀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처럼 불과 4개월만에 급조

平壤 또 간다니 말이 되나

수대협이 파견한 2명의 학생대표가 평壤대학의 관공에서 주체군을 경호하고 있다. 평壤대학은 5월 28일 개교한다. 그날 평壤대학 2만 5천여명 학생이 평壤에서 열렬히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1만여 수대협이 북한 학생대표를 따라 평壤으로 간다니 말이 되나. 서울로 돌아와서 평壤으로 간다.

수대협은 평壤으로 가려는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평壤으로 가는 학생들은 평壤에서 1년간 생활할 예정이다. 평壤으로 가는 학생들은 평壤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평壤으로 가는 학생들은 평壤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코자하는 대목은 이렇다. 평壤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대담한 선언을 하였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대담한 선언을 하였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대담한 선언을 하였다.

수대협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수대협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수대협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수대협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수대협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평壤은 평壤에 대한 거국적인 행위의 과제를 평壤으로 간다.

이 발표된지 4년째 만 19년이 된다. 이 선언을 시발점으로 한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20년만의 결심

7.4선언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조기인상화작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北의「흡수統一」불안 자극말아야

심사회담 예비회담대표도 지낸 남북 대화의 산증인이다.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편집자주〉

것이 남북 대화였지요. 하지만 세적이었던 데 비해 우리는 7.4선언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對南정책 80년들어 守勢 통일시기 점점변화없어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균요. 그렇다면 80년대 정세는 어떤 것이 되었는지, 그리고 남북 대화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南北입장 바뀐셈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3단계 對北정책 적중... 90년대 「실속대화」 가능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절함을 논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1990년 12월 31일 양측의 특종의 입회로 파기 선언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20여년간의 양측과 재개를 시도해 왔지만, 남북 대화의 묘사적 요인도 없다. 1990년 12월 31일 양측은 7.4선언을 계기로 7.4선언의 배경과 의미, 20년째 『新使節(新使節)』(57)기 7.4선언의 의의와 시의적

統一은 우리 손으로 主導의지 천명

盧대통령이 밝힌 南北관계 政策기조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1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문화공동체」제의는 異質性극복 意志

北方외교등결실「 주변여건成熟」 판단

地方의원위축으로 새「平統」 역할 기대

데서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40명의 1차 위원 1차회의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盧대통령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기 출범식에서 5기 자문위원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政府 開放제안 계기로 본 실태와 전망

정부가 개방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개방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개방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정부가 개방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개방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개방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정부가 개방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개방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개방정책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 국내외 여론이 분분하다.



南側 선전용우려 일방개방 반대

北側 體制무너지질까 全面개류 꺼려

東西獨처럼 無理念無廣告로 交叉시청 바람직

남측은 선전용우려 일방개방 반대를 주장하며, 북측은 체제 무너지질까的全面개류 꺼려하며, 東西獨처럼 無理念無廣告로 交叉시청 바람직을 주장한다.



이들은 남측은 선전용우려 일방개방 반대를 주장하며, 북측은 체제 무너지질까的全面개류 꺼려하며, 東西獨처럼 無理念無廣告로 交叉시청 바람직을 주장한다.

말만 앞선 南北 방송교류

시작이 半 南北 경제 교류 물꼬 트다

쌀·시멘트 直交易의 의미

북한측의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은 남북 경제 교류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쌀과 시멘트 등 1차 산업과 건설 자재 분야의 직거래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국안거쳐 仲介料 부담 덜어 교역 늘면 合作 사업도 전망 밝아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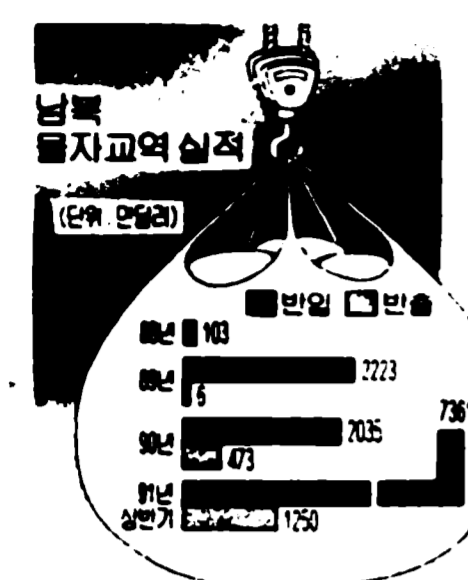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측은 직거래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후, 4월 27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경제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5월 10일부터 1차 직거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남북 경제 교류의 실질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南北交易의 새 물결

여기에서 피노백 과민 반국가적
 동정 조미안 진수나 변화한 기
 인다. 이러한 야성적 재조직 재
 진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재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NCDA)의 남북은행 통합을 위한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재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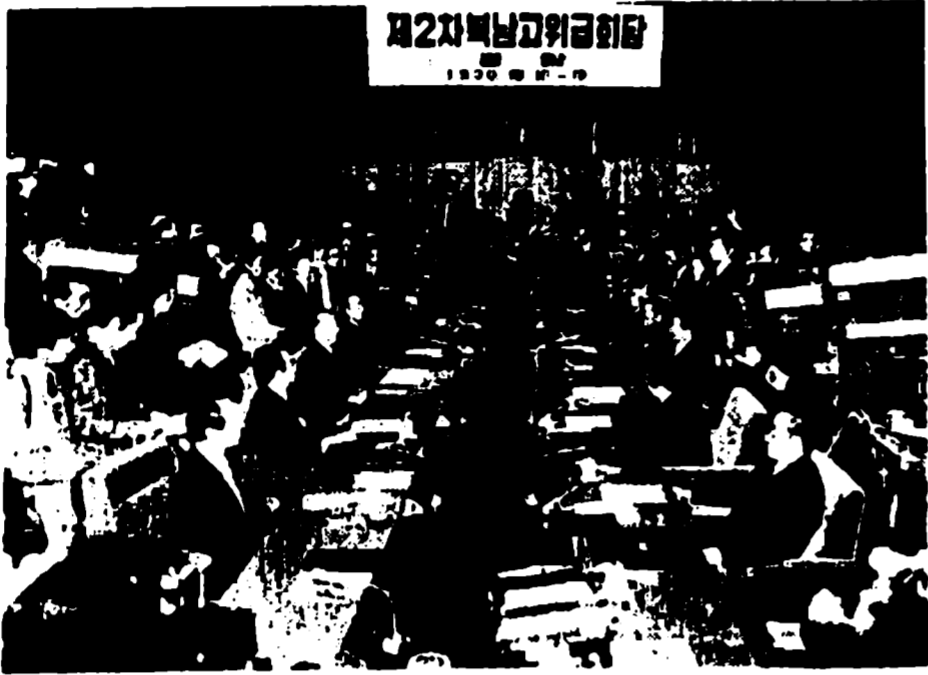
재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조직 야성적 재조직 재조직 재

週間초점

不可侵선언

北에 「合理的 지배집단」 전제돼야

이 기사를 보면... 「북」은 남한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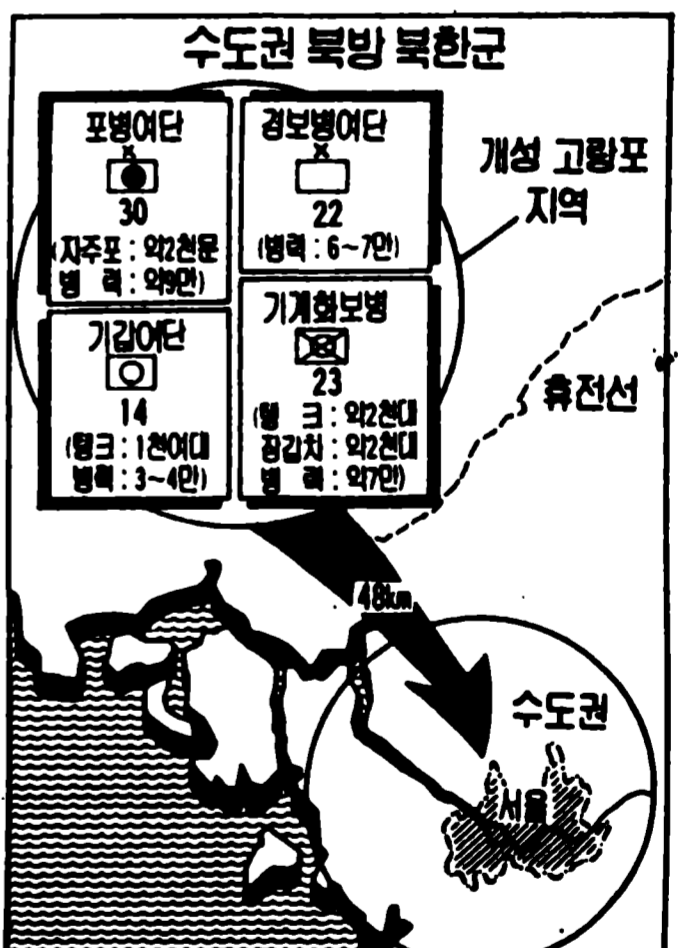
제2차 북남교섭회담

◇북한측 남북교섭회담 대표단 2차 회담에서 남한측 대표단과 회담한 모습이다.

「북」은 남한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對南赤化전략 활용의 도발면
신뢰구축우선...서둘 필요없어

북한은 남한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은 남한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은 남한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獨蘇 불가침·日蘇 중립조약 일방과기 교환

북한은 남한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은 남한을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고 영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Table with multiple columns and rows containing names and dates, likely a list of individuals or events related to the article.

社 説

全大協, 왜 뒷길만 택하는가

조선노동당도 5월과 6월엔 전진 전진할 수밖
의 선택이 없는 여권 전진이라 할 수 있
다.

조선노동당도 5월과 6월엔 전진 전진할 수밖
의 선택이 없는 여권 전진이라 할 수 있
다.

조선노동당도 5월과 6월엔 전진 전진할 수밖
의 선택이 없는 여권 전진이라 할 수 있
다.

조선노동당도 5월과 6월엔 전진 전진할 수밖
의 선택이 없는 여권 전진이라 할 수 있
다.

조선노동당도 5월과 6월엔 전진 전진할 수밖
의 선택이 없는 여권 전진이라 할 수 있
다.

조선노동당도 5월과 6월엔 전진 전진할 수밖
의 선택이 없는 여권 전진이라 할 수 있
다.

조선노동당도 5월과 6월엔 전진 전진할 수밖
의 선택이 없는 여권 전진이라 할 수 있
다.

'교류확대' 정부 진실성 훼손

'서대기련' - 북한학생 2차접촉 제동의미

정부가 북한방문 취재를 협의 하기 위한 서대기련과 북한 조선 학생위원회와의 12일 1차 판문점 접촉을 허용했다가 13일 제2차 예비접촉을 불허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비난을 받더라도 범민족대회와 관련되는 성격의 행사는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보인 것이다.

동적으로 대처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서대기련이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8월10일부터 20일까지의 방북취재를 위한 북한주민접촉신청을 승인하고, 애초 금지조건으로 내세웠던 범민련이나 전대협을 통한 서대기련의 북한접촉도 사실상 묵인해왔다. 그러나 북한쪽이 서대기련의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북한쪽이 취재일정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청장을 주지 않으면서 전대협 대표로 평양에 간 박성희·성용승씨의 남한 귀환에 맞춰 서대기련의 방북을 요구하자 정부의 입장이 돌변하기 시작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남쪽이 불법으로 금지한 범민족대회와 서대기련의 방북을 교묘히 연계한 것으로 보고, 서



12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서대기련 방북취재를 위한 1차실무접촉에서 남북 학생대표들이 둘러앉아 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용철(북), 김기현(남), 리하길(북), 최경철(북), 지은경(남), 최병섭(남)씨. <판문점=이정우 기자>

1차접촉 허용 하루만에 태도 돌변 '범민족'관련 정치이용 반대 매달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을 '개방'시키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양쪽의 인적·물적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을 선전해 왔으나 가시적 성과는 별로 이루지 못했다.

통일논의의 창구원인화를 강조해온 정부는 최근 여려해 동안 새야의 통일운동에 힘입어 국민들의 통일열기가 답아오름에 따라 이산 합법적인 틀 안에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른바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서대기련이 북한방문 취재를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정부는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능

방북 예정일인 10일까지 소식이 없다가 이날 밤 '갑자기'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한 판문점 예비접촉을 갖자고 재외해오자 이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도 서대기련의 방북취재에 관해 소극적인 입장이며 △1차 예비접촉을 불허할 경우 그 책임이 모두 정부쪽에 넘어오고 △서대기련의 방북취재를 법적으로 승인한 이상 이를 뒤엎을 명분이 없다고 판단, 단순히 북한이 초청장과 신변안전보장각서만을 받는 목적의 판문점 접촉은 허용하기로 논의의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1차

대기련의 방북을 '희생'시키더라도 범민족대회의 분위기를 북돋우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서대기련과 북한쪽의 1차접촉을 허용하고 2차접촉을 불허한 것이 일관성의 결여라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북한쪽에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그동안의 정부입장으로 볼 때 예상됐던 것이기는 하나,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민간접촉을 다시 무산시켰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류확대 의지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서대기련의 북한방문 취재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서대기련과 북한쪽의 제2차 예비접촉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범민족대회가 끝난 뒤에는 방북취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 정부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대기련의 방북취재 계획은 전대협과 범민련이 지지했기 때문에 북한이 의외로 빨리 초청장을 보내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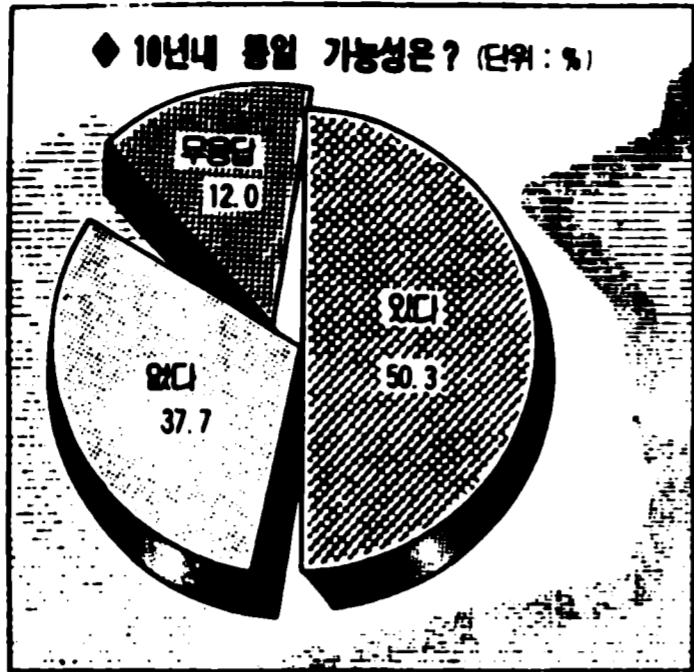
서대기련의 운동권안에서의 위상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예비접촉 불허 결정에 대한 역습으로 북한이 초청장을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기련은 정부의 예비접촉 불허결정에 반발, 통일원 앞에서 정부의 반통일적 자세를 비난하는 농성을 계획하는 등 이 문제를 반정부부쟁의 쟁점으로 삼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대기련은 일본 등 제3의 경로를 통해 북한에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 기자>

南北통일 10년내 가능 "50.3%"

78%가 "南서 노력"… "林양訪北 도움안돼" 58%



남북통일 10년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남과 북의 통일은 10년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0.3%로 나타났다. '없다'는 37.7%, '모름'은 12.0%였다.

석이 생활하는 한 통일 3段階化無作爲準備을 의가능성인 회박하고 전 사용하여 남자 7백35명, 망하고 있거것으로 나타 여자7백 65명을추출했다. 『文益機을사와 林秀卿양 이가운데 20대는 5백19 등과간을 사람이 북한을 명, 30대는 3백60명, 40 발류한 것이 우리나라의 대는 2백67명, 50대는 3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여 백54명이며 지역별로는 시 울 3백84명, 경기 2백51 부를통계실에는 1백50 명, 강원 62명, 충청 1백 이 된다. 응답이 29.3 45명, 전남 2백4명, 정 %에 불과한 반면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반응은 58 북 1백93명, 전남 2백61 6%나 됐다. 조사결과에 대한 오차한 이면 조사는 제주도를제 계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외한 전국의 20세이상 남 11 2.5%이다. <高麗元기자>

社說

北韓의 不誠實한 對話자세

북한은 1991년 8월 14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991년 8월 14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991년 8월 14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화가 아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웅적인 투쟁을 지칭하면서 보란 치욕하고...

교역가는 南北관계

북한이 1991년 8월 14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991년 8월 14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社說

北 派 트집인가

북한이 남북 대화에 수반하는 한
 단교선에서부터 10월의 동맹을 맺고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북한이 북한을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
 는다는 것은 남북 대화에 대한
 단교선에서부터 10월의 동맹을
 맺고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그것은 우리 남 사민주의 북한에
 대한 단교선에서부터 10월의 동맹을
 맺고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북한이 북한
 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
 자는 북한이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
 자는 북한이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남북 대화에 대한 무
 기한 정지하자는 북한이 북한
 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동맹을 맺고 있다. 그 동맹이 이제
 단교선에서부터 10월의 동맹을
 맺고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남북 대화
 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북한이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북한이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
 자는 북한이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북한이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
 자는 북한이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북한이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
 자는 북한이 북한으로 중인
 중대선의 차이를 감안하여 남북
 대화에 대한 무기한 정지하자는
 표했다.

남한에서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
 (서대기련)의 방북취재를 「범민족대회」
 들러리로 이용하려 한다는가, 재야세력과
 의 「정치협상회의」를 집요하게 추구하
 는 사실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북한이
 단교선의 그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제를 모으고 최후지만 「기쁜노선」에
 서는 아조노 편향성을 찾아볼 수 없다.

여권조사를 통해 본 국민意識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88.7%가 통일시기를 2~3년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 5년 이내는 11.7%, 10년 이내는 15.2%, 20년 이내는 21.1%로 나타났다.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지역은 서울(88.7%)로 나타났다. 대전(88.4%), 부산(88.3%), 대구(88.3%), 광주(88.3%), 대전(88.3%), 광주(88.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1991년 8월 16일
 목요일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지역
 서울 88.7% 대전 88.4% 부산 88.3% 대구 88.3% 광주 88.3% 대전 88.3% 광주 88.3%

통일시기를 가장 늦게 예상한 지역
 강원 76.4% 전북 76.4% 경북 76.4% 전남 76.4% 충청 76.4% 제주 76.4%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직업
 교사 88.7% 의사 88.7% 변호사 88.7% 기자 88.7% 연구원 88.7%

통일시기를 가장 늦게 예상한 직업
 농부 76.4% 어부 76.4% 목수 76.4% 장수 76.4% 요리사 76.4%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연령
 20대 88.7% 30대 88.7% 40대 88.7% 50대 88.7% 60대 88.7%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교육수준
 대학 88.7% 고졸 88.7% 중졸 88.7% 초졸 88.7%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소득수준
 월소득 100만원 이상 88.7% 50만원 이상 88.7% 30만원 이상 88.7%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정치참여
 투표 88.7% 정치활동 88.7% 정당가입 88.7%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사회참여
 자원봉사 88.7% 자원봉사 88.7% 자원봉사 88.7%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문화참여
 문화활동 88.7% 문화활동 88.7% 문화활동 88.7%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환경참여
 환경보호 88.7% 환경보호 88.7% 환경보호 8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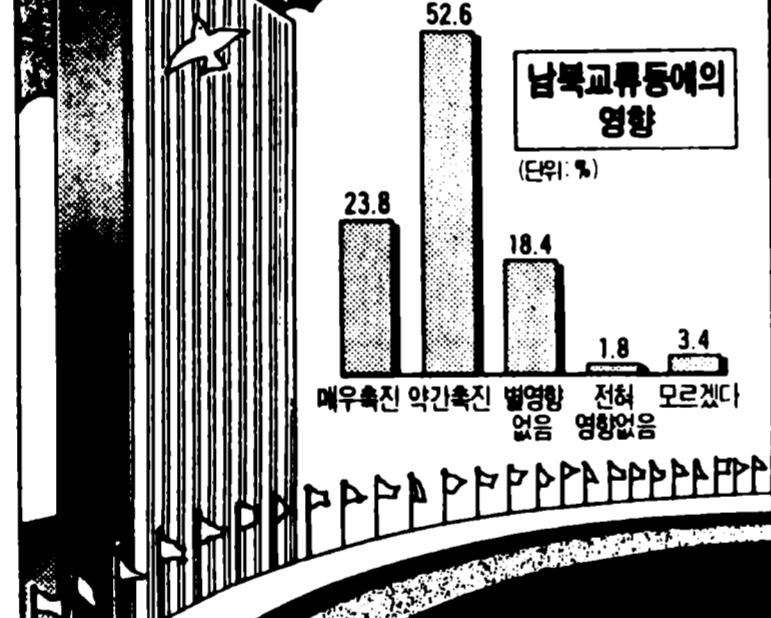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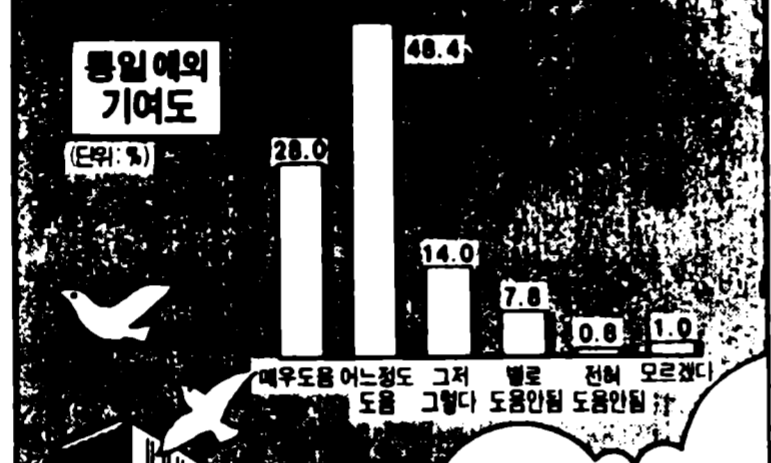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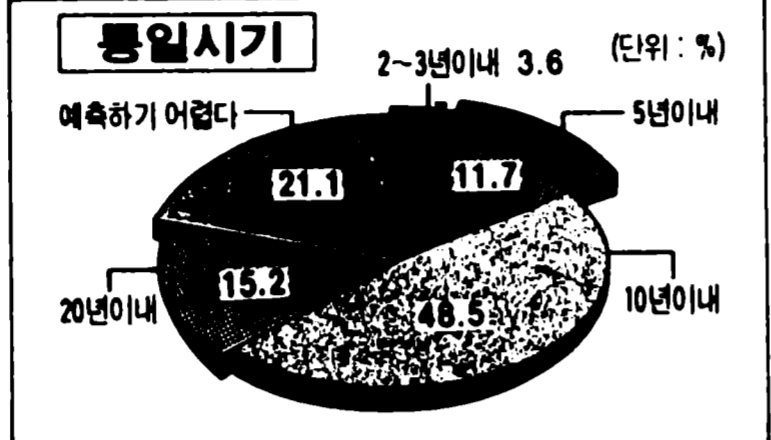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건강참여
 건강관리 88.7% 건강관리 88.7% 건강관리 88.7%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여가참여
 여가활동 88.7% 여가활동 88.7% 여가활동 88.7%

성중신시기정각용작부一統

實現인남관...절반이 10年内

南北방송개방은 "同時" "南먼저" 잇갈려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지역은 서울(88.7%)로 나타났다. 대전(88.4%), 부산(88.3%), 대구(88.3%), 광주(88.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늦게 예상한 지역은 강원(76.4%)로 나타났다. 전북(76.4%), 경북(76.4%), 전남(76.4%), 충청(76.4%), 제주(76.4%)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직업은 교사(88.7%)로 나타났다. 의사(88.7%), 변호사(88.7%), 기자(88.7%), 연구원(88.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늦게 예상한 직업은 농부(76.4%)로 나타났다. 어부(76.4%), 목수(76.4%), 장수(76.4%), 요리사(76.4%)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직업은 교사(88.7%)로 나타났다. 의사(88.7%), 변호사(88.7%), 기자(88.7%), 연구원(88.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늦게 예상한 직업은 농부(76.4%)로 나타났다. 어부(76.4%), 목수(76.4%), 장수(76.4%), 요리사(76.4%)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시기를 가장 빨리 예상한 직업은 교사(88.7%)로 나타났다. 의사(88.7%), 변호사(88.7%), 기자(88.7%), 연구원(88.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늦게 예상한 직업은 농부(76.4%)로 나타났다. 어부(76.4%), 목수(76.4%), 장수(76.4%), 요리사(76.4%)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 및 응답 집계

- 남북한 UN 동시가입의 계기는.
 - ① 동서긴장완화...27.0%
 - ② 정부의 북방외교...21.6%
 - ③ 남북한 통일논의 진전...19.2%
 - ④ 북한내부변화...27.2%
 - ⑤ 모르겠다...5.0%
- UN 동시가입이 미칠 통일예의 기여도는.
 - ① 매우 큰 도움이 될 것...28.0%
 - ②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48.4%
 - ③ 그저 그렇다...14.0%
 - ④ 별로 도움 안될 것...7.8%
 - ⑤ 전혀 도움 안될 것...0.8%
 - ⑥ 모르겠다...1.0%
- UN 동시가입이 남북교류 및 협상에 미칠 영향은.
 - ① 매우 촉진시킬 것...23.8%
 - ② 약간 촉진시킬 것...52.6%
 - ③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18.4%
 - ④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1.8%
 - ⑤ 모르겠다...3.4%
- 남북한 통일방안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자세히 알고 있다...7.8%
 - ② 어느정도 알고 있다...53.8%
 - ③ 잘 모른다...32.8%
 - ④ 전혀 모른다...5.6%
- 통일의 바람직한 형태는.
 - ① 협상을 통한 합의통일...78.0%
 - ② 독일식의 흡수통일...16.6%
 - ③ 무력통일...1.8%
 - ④ 모르겠다...3.6%
- 통일후의 상황을 고려한 통일에 대한 입장은.
 - ① 다소 혼란·부담이 있더라도 서둘러야...26.8%
 - ② 다소 늦추더라도 후유증 최소화해야...59.6%
 - ③ 혼란·부담감수하면서 통일 추진할 필요가 없다...11.8%
 - ④ 모르겠다...1.8%
-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지.
 - ① 이루어질 것...78.8%
 - ② 이루어지지 않을 것...14.2%
 - ③ 모르겠다...7.0%
- 통일시기에 대한 전망은.
 - ① 2~3년 이내...3.6%
 - ② 5년 이내...11.7%
 - ③ 10년 이내...48.5%
 - ④ 20년 이내...15.2%
 - ⑤ 현재로선 예측관란...21.1%
-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는.
 - ① 미국...32.4%
 - ② 소련...32.0%
 - ③ 중국...15.2%
 - ④ 일본...13.0%
 - ⑤ 모르겠다...7.4%
- 남북한 방송의 상호개방에 대한 입장은.
 - ① 북한과 상관없이 남한만이이라도 개방해야...44.6%
 - ② 반드시 남북한 동시개방해야...51.6%
 - ③ 모르겠다...3.8%

엔시대 南北협력의 指標 제시

「엔시대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다.」
 유엔이 발표한 「엔시대」 보고서에 따르면, 엔시대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다. 유엔은 1991년 8월 16일 발표한 「엔시대」 보고서에서, 엔시대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1991년 8월 16일 발표한 「엔시대」 보고서에서, 엔시대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는 繼承발전하는 것 과거 否定은 잘못 現代史 정당한 평가로 歷史인식 바로 잡아야

유엔은 1991년 8월 16일 발표한 「엔시대」 보고서에서, 엔시대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1991년 8월 16일 발표한 「엔시대」 보고서에서, 엔시대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1991년 8월 16일 발표한 「엔시대」 보고서에서, 엔시대는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평의회」 창립총회(가운데)가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李信福기자)

「8.15정축사」對北제외의 담긴 뜻

「통일평의회」 창립총회(가운데)가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李信福기자)

어떤 문제든 協議 "그 開放우도 포석 技術·노동력 結合 合作여지 커"

「통일평의회」 창립총회(가운데)가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李信福기자)

「통일평의회」 창립총회(가운데)가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통일평의회」 창립총회(가운데)가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李信福기자)



「통일평의회」 창립총회(가운데)가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李信福기자)

「통일평의회」 창립총회(가운데)가 8월 15일 서울에서 열린다. (李信福기자)

社 說

統一전선의 '도구', '汎民聯'

북한측의 「汎民聯」조직은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汎民聯」이 남북 통합 전선의 구축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한 '汎民聯'

북한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汎民聯'을 구성할 예정이다. 「汎民聯」은 경제개혁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汎民聯'을 구성할 예정이다. 「汎民聯」은 경제개혁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汎民聯'을 구성할 예정이다. 「汎民聯」은 경제개혁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汎民聯'을 구성할 예정이다. 「汎民聯」은 경제개혁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북한이 「汎民聯」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汎民聯」은 경제개혁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북한이 「汎民聯」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汎民聯」은 경제개혁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북한이 「汎民聯」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汎民聯」은 경제개혁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북한이 「汎民聯」을 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汎民聯」은 경제개혁을 위한 도구로 평가된다.

統一 지향적 財政인여예

북한은 통일 지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汎民聯」은 통일 지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통일 지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汎民聯」은 통일 지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통일 지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汎民聯」은 통일 지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은 통일 지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汎民聯」은 통일 지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 南北대화 거부 못할듯

蘇쿠데타 실패의 韓半島 영향

북한의 북반도통일과 관련하여 최근 북한은 남한에 대해 '북한은 남한을 통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통일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을 통일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을 통일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을 통일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을 통일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을 통일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정리위해 어정정한 태도 예상 개혁 공포 더 심해져 폐쇄정책 강화

북한은 내부정리를 위해 어정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내부정리를 위해 어정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내부정리를 위해 어정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내부정리를 위해 어정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내부정리를 위해 어정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이 내부정리를 위해 어정정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22일 특파원 기고>

社說

蘇쿠데타실력의 金日成

대비상국의 蘇聯(蘇聯)은 그다지
인정 받기 어렵다. 이쪽 국가의 비
하도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정치(政
적)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물론
의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모든 귀족(貴族)은 물론이고 귀족(貴
족)은 물론이고 귀족(貴族)은

블라디미르·푸시킨회의의 外交자문

특별기문



블라디미르·푸시킨

스탈린의 후계자로서... 푸시킨의 역할... 블라디미르 푸시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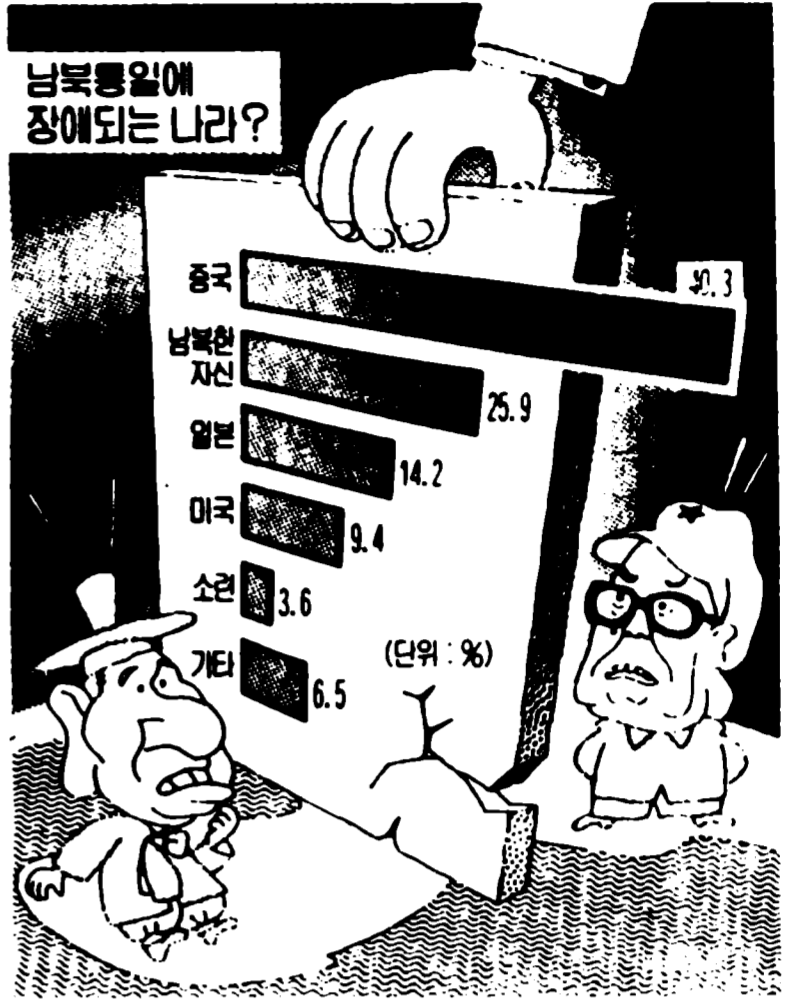
김일성·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28일 속개된 북연방최고회의 특별회의도중 연...

“蘇공산당 몰락 韓半島통일 촉진”

南·北韓軍縮프로그램을 추진하여 非정부를차원 北로經協 확대노

남·북한 군축 프로그램 추진... 경제협조 확대... 김일성 주석의 발언...

김일성 주석의 발언... 북연방 최고회의...



<그림: 柳善港>

세계평항계... 蘇사태후 달라진 국민의식

세계평항계의 이번 조사는 1991년 7월 7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이 조사는 1989년 12월 실시된 조사와 비교하여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북조선의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 7일 조사 당시 71%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89.8%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그 중 49.8%는 '북조선이 스스로 개방-개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북조선의 개방-개혁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9.8%에서 93.3%로 증가했다. 반면 '북조선의 개방-개혁이 우리나라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서 6.7%로 감소했다.

과학력일수록 무체통일 전망

학생들중에 蘇사태 부정적시각 많아
"北 붕괴보단 스스로 개방-개혁" 49.8%

설치라는 전망(19.8%)이 우세했는데, 학력별로 보면 고졸(25.1%)보다 대졸(14.3%)이 북한의 체제붕괴 가능성이 적게 보였고, 대신 개방개혁을 위주로 한 전망이 10% 이상에 달하는 비율(37.3%)보다 대졸(50.2%)이 더 높게 보고 있었다.

반면 소련사태로 인해 북한의 체제붕괴를 감화하리라고 답한 사람(18.9%)도 많았는데, 고졸(10.4%)보다 대졸(25.5%)이 이 가정을 높게 보고 있는 점이 특이했다.

통일을 10년 안으로 앞당길 것이라는 견해(47.1%)는 55%에서 41.3%로 낮아졌고, 소련사태는 또한 5년 내 붕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부추겼는데, 지난 달 7월 조사에서 95%까지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6.4%)은 미미했다. 반면 붕괴하면 5년 안으로 통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24.2%를 차지했다. 이는 17%에서 24.2%로 증가했다.

소련사태가 통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것이라고 보는 의견(20.6%)도 많았는데, 특히 고졸(32.3%)이 이 견해를 가장 많이 보였다. 반면 소련사태를 부정적 영향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통일방안으로 보면, 교류 확대(19.1%)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 조사 때의 14.4%와 비슷한 수준으로, 역시 우리 국민들이 남북 자유왕래를 통한 통일의 길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북대화에서 한 단계 한층의 점진적 단계적 통일에 대해 북한측이 주장하는 「군사정치적 대립해소」를 통일추진방안으로 꼽은 비율은 8.7%에 불과하고, 특히 학생층의 4.8%가 이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달 조사 때보다 교류 확대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층(20대)은 또 인접교류의 필요성에 30~60대의 40~45%선보다 훨씬 높은 62.2%의 지지율을 보였다.

통일방안에 대한 조사에서 서울전북전남중앙지방간 지역에서 美國을 타지역의 2배 이상으로 꼽은 점이 특이했고, 특히 학생층이 높은 비율로 이러한 견해를 보였다.

장편의 통일수용 11월을 통일장악세력이라고 보는 견해는 71%에서 89.8%로 증가했다. 반면 '북조선의 붕괴가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9.8%에서 93.3%로 증가했다. 반면 '북조선의 개방-개혁이 우리나라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서 6.7%로 감소했다.

(통일방안조사)

북조선의 개방-개혁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9.8%에서 93.3%로 증가했다. 반면 '북조선의 개방-개혁이 우리나라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서 6.7%로 감소했다.

북조선의 개방-개혁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9.8%에서 93.3%로 증가했다. 반면 '북조선의 개방-개혁이 우리나라에 손해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2.2%에서 6.7%로 감소했다.

귀여운 마뽀양 「여객비행」

社 説

◆ 사설

귀여운 마뽀양은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는 특별행사로,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비행」은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여운 마뽀양은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는 특별행사로,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여운 마뽀양은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는 특별행사로,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여운 마뽀양은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는 특별행사로,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여운 마뽀양은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는 특별행사로,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여운 마뽀양은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는 특별행사로,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여운 마뽀양은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는 특별행사로,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여운 마뽀양은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는 특별행사로,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귀여운 마뽀양은 새해의 첫 날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간 운영되는 특별행사로, 여객비행의 승객들에게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귀여운 마뽀양의 운영을 통해 여객비행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항공여행의 즐거움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南北頂上會談이 필요한 狀況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1990년 12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社 說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1990년 12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1990년 12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으로서 유엔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북한의 회담을 양방향이어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1990년 12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南北정상회담의 前提조건

社 說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1990년 12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1990년 12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1990년 12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상대로 1990년 12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이 제안한 회담이 아니라 남한이 제안한 회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訪北취지에 어긋나다” 제동

建大生 북한방문 不許 배경



南北대학생 포용
선교대 학생대표(사
초차원)와 성대대학
학생대표(성대차원)들이 24일 오후 6시 30분에서 2시간
동안 양측 포용단을 만나 <중략>

建大生 북한방문 불허 배경
성대대학(성대차원)과 선교대(선교차원) 대학생 포용단이 24일 오후 6시 30분에서 2시간 동안 양측 포용단을 만나 <중략>

“법정학력” 관할, 영남포용단
保安法 무시 태도는 不可
영남포용단(영남차원)의 북한방문 불허 배경
성대대학(성대차원)과 선교대(선교차원) 대학생 포용단이 24일 오후 6시 30분에서 2시간 동안 양측 포용단을 만나 <중략>

영남포용단(영남차원)의 북한방문 불허 배경
성대대학(성대차원)과 선교대(선교차원) 대학생 포용단이 24일 오후 6시 30분에서 2시간 동안 양측 포용단을 만나 <중략>

學術답사 벗어난 政治행사로 변질

建大 학생 訪北 不許의 배경

建大 4 국어국문학과 학생대표 4명과 김일성대 조신언문학부 학생대표 4명이 학술답사와 관련, 24일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南北 학생 합의의 내용 申請 때와 는 판이

不法 「汎靑學聯」 조직 등 惡例 남길 우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관북리에서 남북 교류위에서 합의한 南北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南北담판」의 함정

社說

북·미·유럽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발표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명목으로, '북·미·유럽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유럽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발표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명목으로, '북·미·유럽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유럽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발표는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명목으로, '북·미·유럽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남북회담은 '남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회담은 '남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南北대화생애연구

남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남북회담은 '남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회담은 '남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회담은 남북정상회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남북회담은 '남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회담은 '남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계곡의 단애면이다.

북한은 1990년말과 1991년초에 걸쳐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북한은 1990년말과 1991년초에 걸쳐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북한은 1990년말과 1991년초에 걸쳐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북한은 1990년말과 1991년초에 걸쳐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북한은 1990년말과 1991년초에 걸쳐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북한은 1990년말과 1991년초에 걸쳐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統一국가론을 경제행정단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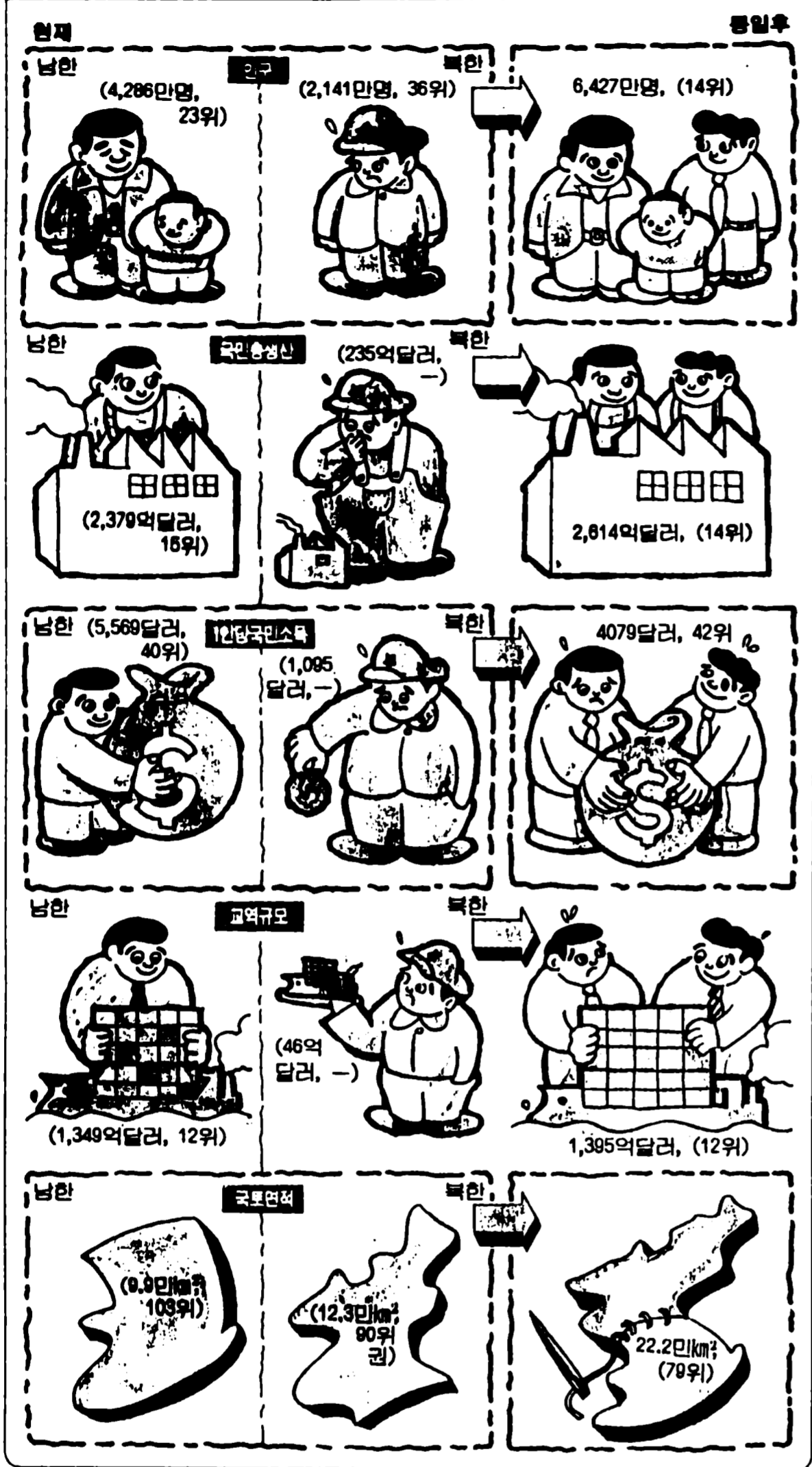
△시리아=원주민자치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1989년 10월 15일(30-35)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시리아는 15개 주(省)로 분할된다. 이 시리아는 원주민자치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시리아=원주민자치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1989년 10월 15일(30-35)에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시리아는 15개 주(省)로 분할된다. 이 시리아는 원주민자치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北韓세습→개방→民主化로 붕괴 1국가 2지역정부 聯邦制로 北 쿠데타등 돌발사태 가능성

북한이 1990년말과 1991년초에 걸쳐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100만명 규모의 인민화동(人民化動)을 벌였다.

통일한국의 국제位相 (90년 기준)



<그림=文 貳 植 기자>

人口·경제규모 세계 14位로

指標로 본 韓半島情勢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비추어진다. 인구상으로는 남한이 23위, 북한이 36위, 통일후는 14위로 오른다. 국민총생산(GDP)은 남한이 15위, 북한이 1위, 통일후는 14위로 오른다.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이 40위, 북한이 80위, 통일후는 42위로 오른다. 교역규모는 남한이 12위, 북한이 1위, 통일후는 12위로 오른다. 국토면적은 남한이 103위, 북한이 80위, 통일후는 79위로 오른다.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통계를 보면, 통일후의 경제 위상은 인구, GDP, 1인당 소득, 교역, 국토 면적 등 14위 수준으로 오른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후의 경제 위상은 인구, GDP, 1인당 소득, 교역, 국토 면적 등 14위 수준으로 오른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한국의 인구 3백45萬인

통일후의 인구는 3백45만 명으로, 이는 세계 14위 수준이다.

「南+北」은 숨이상의 역량
국민소득 4千79달러...42位로 밀려

1천95만명으로 70위권 밖에 있다.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남한이 40위, 북한이 80위, 통일후는 42위로 오른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후의 경제 위상은 인구, GDP, 1인당 소득, 교역, 국토 면적 등 14위 수준으로 오른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일후의 경제 위상은 인구, GDP, 1인당 소득, 교역, 국토 면적 등 14위 수준으로 오른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통일후의 경제 위상이 세계 14위 수준으로 오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도교회는 남북체제야 적대

전도교회는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전도교회는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전도교회는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전도교회는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체제 중 남한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양측을 지지할 수 없다.

북한이 1991년 10월 7일... (Introductory text for the main article)

북한이 1991년 10월 7일... (Main article text, partially obscured by the headline)

南北정상회담 80%가 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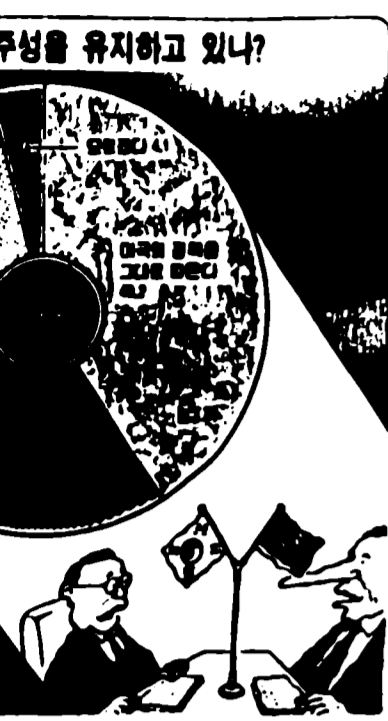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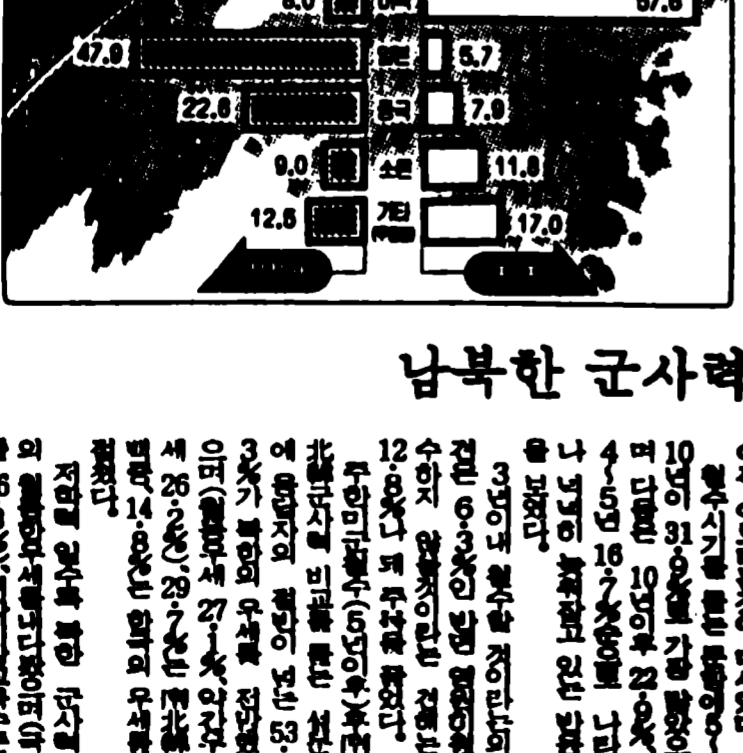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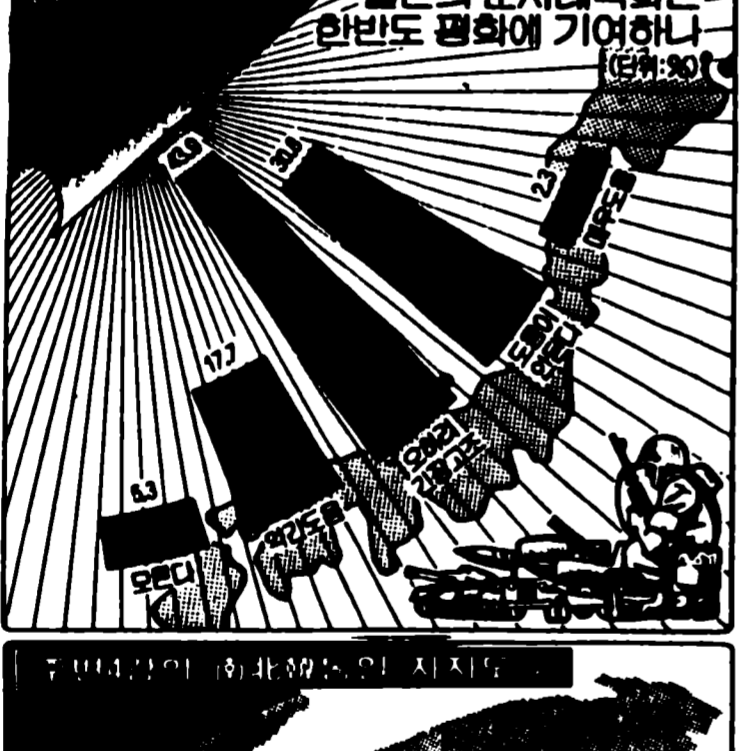
남북 정상회담이 80% 이상 낙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과 북이 10월 7일 평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경우, 응답자의 80% 이상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통시加入 韓반도平和 기여 82% 이상은 日의 군사大國化를警惕

유엔통시加入(UNTS)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 이상이 유엔통시加入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요인으로는 유엔통시加入이 가장 많이 꼽혔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日本의軍事大國化)에 대한 우려도 82% 이상은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선 高學歷者 일수록 '비슷하다'는 견해가 두드러져 나타났다. 고학력층일수록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대해 '비슷하다'는 견해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각이... (Text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partially obscured by the survey data)

金日成 빈손가들이

訪中 「공식일정 3일」 決算

金日成 부총리의 江都를 출발하여 파리의 중
민공산당총서기(4일) 李 弼 奎 국무원총서기(5일) 楊 尚
穆 국무총리(5일) 楊 尚 穆을 필두로
북경(6일)의 연 金日成이 北京의 도화
社 회담을 마치고 6일 北京 한 4일오전 중국의 黨政



북한 최고지도자 김일성(右)은 5일 평壤에서 李弼奎(左)의 손을 흔들고 있다. (北平=平壤) (본보 특약)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려되는 데라 북한에 대한
지원은 최소규모의 그칠 전
망이다.

국제사회에서 脫고립주의
노선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
에 對外정책에서 중남과 북

소련의 경제위기에 서 비
못된 코메콘체제의 와해는
북한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타고 있다. 이 때문에 「우
호가격」이란 이름하의 소

李弼奎리는 대신 金日成
에게 중부식 경제개발 시
장점서 도입정책을 강조했
다. 金日成이 「의」 중국체
재기간 중 주로 돌아볼 것
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

결속과 시불구 經協은 「쥐꼬리」 核문제 등 北의 對外정책 조율

과격적인 환경영향을 통해
양국의 「북한」관계 불과
시켰다.

련 등지에서 원유를 주요 상
품 수출제시세의 단점으로
수입하던 사실상의 원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다

이 山東省 등 해안도시로
의정되었는 것도 시사하는
점이 많다. 山東省의 우리
나라의 삼양식품공업(주)
등 10여개기업이 진출한
북기경제의 개관정책이
실현된 지요이로 평가받고
있다. 金의 이 지역 수반일
정부가 南北한의 경제교류
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
정부가 南北한의 경제교류
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

그러나 金의 가장 큰 관심
점은 「산」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의」 수반의

한편 經濟문제 등 북한외교
의 의미한다. (朴海龍기자)

金日成 訪中에서 驚이것

社說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9월 25일 베이징을 출발한 뒤 10월 10일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15일 동안 중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다.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다.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다.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9월 25일 베이징을 출발한 뒤 10월 10일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15일 동안 중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다.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다.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9월 25일 베이징을 출발한 뒤 10월 10일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15일 동안 중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다.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다.

북한이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9월 25일 베이징을 출발한 뒤 10월 10일 평양에 도착할 때까지 15일 동안 중국을 순회할 예정이다.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다. 김일성 최고지도자 3인방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으로다.

경향신문(1991. 10. 8)

金日成이 中國에서 배운것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그는 중국에서 배운 것을 돌아볼 것이다. 그의 방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것이다. 김일성은 중국에서 배운 것을 돌아볼 것이다.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그는 중국에서 배운 것을 돌아볼 것이다. 그의 방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것이다. 김일성은 중국에서 배운 것을 돌아볼 것이다.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그는 중국에서 배운 것을 돌아볼 것이다. 그의 방문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긴장 관계를 완화할 것이다. 김일성은 중국에서 배운 것을 돌아볼 것이다.

경제·軍事情勢서 제하된 성과

金日成 訪中 무장시험 장담

【북경 = 韓聯新通信社】 北朝鮮의 김일성 주석은 최근 중국 방문 중 북경에서 열린 군사회담에서 중국 지도자들에게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통일大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통일大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통일大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통일大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통일大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주석은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통일大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통일大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통일大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조선은 핵무기 보유를 원하며,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핵무기 보유는 북조선의 통일大业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북미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안정

북미관계의 변화와 동아시아의 안정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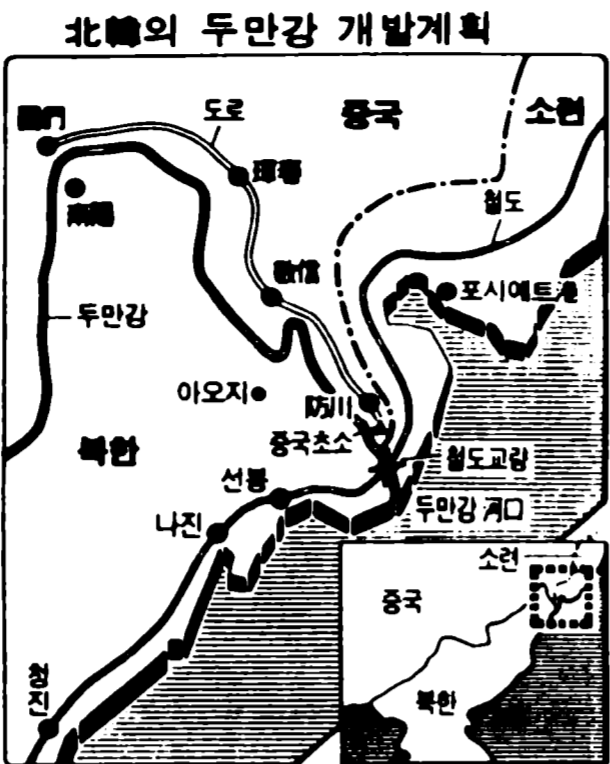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관계의 변화는 동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동아시아의 긴장局势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滿江의 南北정합』 물고기

UNODA 7. 24일 회담 기록

UNODA 7. 24일 회담 기록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UNODA의 회담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UNODA의 회담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UNODA 7. 24일 회담 기록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UNODA의 회담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UNODA의 회담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개발계획 공동작성성을 모색

경제운용 방식 차이 해소가 큰 과제

UNODA 7. 24일 회담 기록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UNODA의 회담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UNODA의 회담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UNODA 7. 24일 회담 기록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UNODA의 회담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UNODA의 회담은 남북 정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속보특기>